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학위논문

모국수학이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윤 다 인

# 모국수학이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정 진 성

이 논문을 사회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윤 다 인

윤다인의 사회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박 명 규



부 위 원 장

정 재 현



위 원

정 진 성



<국문 초록>

## 모국수학이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윤다인

모국수학 제도는 민단이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해서 1962년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내용에 조금씩 변화를 겪으며 50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 오늘날 모국수학은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규모 또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듯, 모국수학 제도가 긴 역사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모국수학이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6개월 전에 모국수학을 위해 한국에 온 재일동포 3, 4세 22명을 눈덩이 표집을 통해 모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구술자들이 모국수학을 결정한 배경에는 뿌리 찾기, 유학, 이력 쌓기, 탈(脫)일본, 한류의 영향과 같은 다섯 가지 동기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뿌리 찾기란 한국어나 한국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지식과 같은 민족적 소양을 키우고 한국 생활을 통해 자신의 기원 및 민족 정체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하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한국

어의 실질적인 효용보다는 한국어가 자신의 민족의 언어라는 측면에 더 주목하며, 모국수학을 통해 자신의 뿌리와 연관되어 있는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부 구술자들은 ‘유학처’로서 한국을 택하여 모국수학을 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이 자신의 모국이라는 사실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생활비가 저렴하고 보다 쉽게 유학 갈 수 있다는 면에 더 주목했다. 셋째, 또 다른 구술자들은 모국수학을 통해 한국어를 익히고 국제 경험을 갖추어 장래에 취업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다른 분야로 전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모국수학을 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한국어가 자신의 민족의 언어라는 측면보다는, 일본사회에서 한국어가 갖는 효용가치 및 ‘국제 경험’ 으로서의 모국수학에 좀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일본을 떠나고 싶다는 ‘탈(脫)일본’과 관련된 욕구가 일부 구술자들에게 모국수학을 선택하는데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부 구술자들은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모국수학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10년 사이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다음으로, 모국수학생들이 한국 생활 중 겪었던 경험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부 구술자들의 경우 한국 생활 초기에 본국의 한국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행동양식을 자신의 준거의 틀로 여기며 ‘한국인이 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다수의 구술자들은 모국수학 중 본국의 한국인들과 교류하였고, 그 경험과 내용에 의해 민족정체성에 크고 작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터뷰를 했던 거의 모든 구술자들은 많은 한국인들이 재일동포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

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한 구술자들의 반응은 보통 부정적이었으며, “실망”, “충격”, “분노”, “짜증”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다음으로, 다수의 구술자들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본국의 한국인들이 재일동포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구술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식 및 인상은 무척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많은 구술자들이 모국수학을 하며 재일동포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들을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구술자들은 재일동포에게 우호적인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겪은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 더 크게 영향 받았다. 이 부정적인 경험들은 ‘재일 정체성’의 강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구술자들은 한국에서 경계인으로서 생활하며, 자신의 소속이 한국인가, 일본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을 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술자들은 태어나고 자란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며 여러 가지 문화 차이를 경험했으며, 이에 대처하는 방식 또한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모국수학생들이 모국수학 과정 중 겪었던 민족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국수학의 동기와 목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구술자들이 모국수학 과정이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고 구술하였다. 이들의 민족정체성의 변화는 한국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재일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일본적 민족정체성의 강화의 세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이 범주들은 모국수학생들이 최종적으로 가지게 된 확고하고 유일한 민족정체성이라기 보다는 모국수학 중 겪었던

단편적인 변화의 단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가지 민족정체성이 모두 강화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국수학 중 한국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를 겪었다고 구술한 구술자는 오직 두 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뿌리 찾기’를 위해 한국행을 택하였고, 한국의 대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모국수학을 마친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강하게 희망한다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거의 모든 구술자들은 모국수학 과정 중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모국수학을 통해 자신이 재일동포라고 인식하게 되거나 인식의 강화를 겪은 구술자들 사이에서도 그 이유는 다양했고, 인식의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일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를 겪은 구술자들의 경험은 (1) ‘나는 재일이다.’, (2) ‘한국인은 아니다’, (3) ‘부정적인 재일에서 긍정적인 재일로’, (4)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나는 재일이다.’ 유형은, 재일동포만이 가진 특질이나 재일동포만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들에 보다 주목하며, 자신을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재일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인은 아니다’ 유형은, 한국 생활을 통해 경험한 본국의 한국인들과 자신의 차이 및 이질성을 강조하며, 이 결과로 인해 재일적 민족정체성이 강화된 구술자들이다. (3) ‘부정적인 재일에서 긍정적인 재일로’ 유형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국수학을 통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변화를 경험한 구술자들이다. 마지막으로, (4)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유형은, 모국수학 전에는

자신의 민족정체성이나 자신이 속한 국가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인지를 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모국수학을 통해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고 경계인이자 월경(越境)인인 재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 구술자들이다. 셋째,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22명의 구술자들 중 모국수학을 하기 전 자신을 ‘일본인’으로 정체화했던 구술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모국수학을 하며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던 일본적인 요소를 발견하였고, 이는 일본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는 구술자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국수학 후 자신을 오직 ‘일본인’으로만 정체화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재일적 민족정체성과 함께 일본적 민족정체성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모국수학은 대다수 구술자들에게 자신이 재일임을 ‘확인’ 및 ‘재확인’ 하는 과정으로 작용하였으며, 일부 구술자들에게는 자기 안에 있던 일본적인 요소를 ‘발견’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민족정체성은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고 있고,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구술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자신감 및 자아정체감의 풍부화와 연결되고 있었다.

주제어: 재일동포, 모국수학, 민족정체성, 민족교육, 디아스포라

학번: 2011-20105



## 목 차

<u>I. 서론</u> .....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4
(1)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4
(2) 재일동포 모국수학생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8
3. 이론적 배경.....	10
(1)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	10
(2) 디아스포라(Diaspora).....	13
4. 연구 방법.....	19
 <u>II.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모국수학</u> .....	23
1. 민족교육의 전개.....	23
2. 민족교육 현황.....	26
(1) 학교 내 민족교육.....	28
(2) 학교 외 민족교육.....	36
3. 모국수학.....	41
(1) 모국수학의 역사.....	41
(2) 모국수학 현황.....	46

<b>Ⅲ. 모국수학 동기의 다양성</b>	<b>58</b>
1. 뿌리 찾기	58
2. 유학	72
3. 이력 쌓기	76
4. 탈(脫)일본	82
5. 한류의 영향	86
6. 소결	90
 <b>Ⅳ. 한국 생활의 경험</b>	 <b>92</b>
1. 한국인이 되기 위한 시도	92
2. 본국의 한국인들과의 만남	96
(1) 재일동포에 대한 무지와 편견	97
(2) 재일동포에 대한 규정 - 비(非)한국인	107
(3) 재일동포에 대한 우호적 태도	115
3. 경계인으로서의 소속 선택의 상황	117
4. 한일 문화 간 차이 발견	125
5. 소결	130
 <b>Ⅴ. 모국수학과 민족정체성의 변화</b>	 <b>134</b>
1. 한국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135
2. 재일(在日)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139
(1) ‘나는 재일이다’	140
(2) ‘한국인은 아니다’	143
(3) ‘부정적인 재일에서 긍정적인 재일로’	147

(4)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	157
3. 일본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161
4. 소결.....	165
 <u>VI. 결론</u> .....	168
 <참고문헌>.....	174
 <Abstract>.....	182
 <日文抄録>.....	187

## 표 목 차

[표 1-1] 민족정체성의 종류.....	12
[표 1-2] 인터뷰 대상자 인적 사항.....	22
[표 2-1] 재일동포 민족교육 현황.....	27
[표 2-2] 일본 내 민족학교 현황.....	28
[표 2-3] 조선학교 아동생도 및 학교수의 추이 (1946 ~ 2006년).....	31
[표 2-4] 오사카 부내 민족학급·클럽에 참여하는 학생수(2003 년도)...	35
[표 2-5] 모국수학 제도 연혁.....	41
[표 2-6] 연도별 모국수학 지원자 수.....	45
[표 2-7] 모국수학 형태별 분류.....	47
[표 2-8] 모국수학 교육과정 수업시수.....	49
[표 2-9]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의 중점 교육 내용.....	49
[표 2-10] 모국수학 장기 교육과정 지역별·연도별 수료자 현황.....	51
[표 2-11] 모국수학 단기 교육과정 지역별·연도별 수료자 현황.....	51

## I. 서론

### 1. 연구목적

오늘날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반도 출신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일본에 거주하게 된 조선인과 그 자손(서경식, 2012, p.23)”을 칭하는 올드커머(old comer)와 1965년 한일 협정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뉴커머(new comer)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적이나 소속 단체에 상관없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과 그 자손들을 ‘재일동포<sup>1</sup>’로 칭하기로 한다. 이들 재일동포 중 조선적 혹은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특별영주자는 약 38만명<sup>2</sup>에 달하고 귀화 등에 의해 일본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까지 합하면 이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

재일동포는,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는 동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몇 가지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오늘날 5 세대에 이르는 재일동포들 중 많은 수가 아직도 한국 국적 혹은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둘째, 보육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독자적인 민족교육 체계를

---

<sup>1</sup> 재일동포는 재일, 재일한인,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코리안,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자이니치(在日), 자이니치 코리안 등의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위와 같은 호칭들은 각각의 입장과 이유에 근거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학계에서 합의된 용어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일동포'라는 호칭이 한국 국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에 있는 한반도 출신 모두를 지칭한다는 점과,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객관성이 확보된 호칭으로 보고 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정진성, 2012).

<sup>2</sup> 일본 법무성 사법 법제부, 국적별 재류 자격별 외국인 등록자(2011).  
<http://www.moj.go.jp/TOUKEI/index2.html> 을 참조

갖추고 있고, 마지막으로, 단일민족 신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사회의 강한 동화주의의 압박과 차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이 타 해외동포 집단에서는 보기 힘든 특징들이다.

조선인으로서의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뚜렷했던 재일동포 1세대들과 비교하여, 그 이후 세대로 내려올수록 민족정체성이 점점 더 다양하게 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을 임시 거처로 여기고 고향인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며 자신들이 직접 일구어낸 민족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던 재일동포 1세대와는 달리, 그 이후 세대들은 일본에서의 정주를 지향하는 경향이 월등하게 높으며, 민족학교보다 일본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일본인 배우자를 택하는 비율 또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윤인진, 2004).

이렇듯 일견 점점 더 많은 재일동포들이 일본 사회에 동화되어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한편, 한국어와 문화 등을 배우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모국수학을 위해 한국행을 택하는 젊은 재일동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모국수학’은 정규·비정규 과정 여부와 수학 기간에 관계없이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어학당, 학부, 대학원과 같은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수학하는 것을 총칭한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것을 지칭할 때, ‘모국수학’, ‘모국유학’, 혹은 ‘한국유학’이라는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외국에 머물면서 공부함’이라는 뜻을 가진 ‘유학’ 보다는 ‘모국수학’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모국수학생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결혼, 사업, 주재원 부임 등을 계기로 한국에 오게 된 경우 생활여건이나 기회비용과 같은 요소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학하거나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수학을 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태어난 많은 재일동포들에게 한국은 민족적 공동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생활 터전으로서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무척 낯설 수 밖에 없는 곳이다(권숙인, 2002).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 동포가 자신의 민족적 기원인 한국으로 귀환하여 모국수학을 하며 한국 사회, 본국의 한국인,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일동포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이들의 민족정체성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모국수학 제도는 1962년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던 제도로서, 내용에 조금씩 변화를 겪으며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제도이다. 초기에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었으나, 오늘날 모국수학은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규모 또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듯, 모국수학 제도가 긴 역사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국수학 제도를 살펴보고, 인터뷰를 통해 오늘날 모국수학을 하고 있는 재일동포 3,

4세들의 민족정체성을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동포 3, 4세들이 모국수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둘째, 모국수학 중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셋째, 모국수학 이후의 민족정체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재일동포 모국수학생들의 모국수학 경험과 민족정체성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오늘날 더욱 더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고 있는 젊은 재일동포의 새로운 존재양식 및 민족정체성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 (1)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을 범주화한 연구로는 하라지리 히데키(1989)의 연구가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큐슈 지방의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을 ①한국인, ②북조선인, ③조국의 '조선인', ④재일조선인, ⑤귀화자 1: 대한민국계 일본인, ⑥귀화자 2: 조선반도계 일본인, ⑦귀화자 3: 북조선계 일본인, ⑧귀화자 4: 일본인, ⑨자유인: 국제인, 기타와 같은 9 가지로 분류하였다. 후쿠오카 야스노리(1993) 또한 재일동포 2, 3 세 150 여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일동포의 정체성을 ①공생지향, ②조국지향, ③개인지향, ④귀화지향, ⑤동포지향 5 가지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을 범주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정영혜는 개인의 정체성은 혼성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범주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범주를 만드는 것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을 차별하거나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김요자, 2004, p.25 재인용).

윤일성(2003)은 133 명의 재일동포 1 세~3 세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한국/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애착도, 일본인과 결혼에 대한 태도, 귀화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민족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김왕식(2005)은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이 젊은 세대로 내려 갈수록 더 약화되고 있다고 보며 일본 정부의 동화정책, 한국정부의 기민정책과 재일동포의 의식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일동포 사회 또한 3, 4 세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한 후 빠른 속도로 일본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김예림, 2009).

박용구(2008)는 재일동포의 세대 교체, 완화된 제도적 차별, 국가주의적 경향의 퇴조가 재일동포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평가한다. 또한, 예전과는 다르게 귀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줄어들고 귀화하는 재일동포들 사이에서도 일본 국적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민족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등 재일동포 사회와 정체성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현선(2011)도 재일동포들의 국적과 귀화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대표하는 사례로서 일본 국적의

재일동포에 주목하는데, 이들이 국적과 민족이 분리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귀화 후 삶과 아이덴티티를 코리안, 더블, 재일 등으로 재구축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김현선(2007)은 재일동포 축제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과거에는 일본인과의 이항대립적 관점에서 민족성이 주장되고 획득되는 양상이었다면 현재는 상호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민족성으로 유지해가는 모습을 띄고 있다”(p. 483)고 평가하며, 변화해가고 있는 재일동포의 민족성과 일본 사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임영언과 김태영(2008)은 633 명의 재일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중 대다수가 한국과 일본의 중간적인 입장에 해당하는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민족정체성이 상황에 따라 가변 하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재일동포 청소년들의 변화하는 정체성을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조국을 지향하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일본 사회에서 동포간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민단계 한국 국적 청소년의 경우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재일’을 자신의 정체성으로서 추구하는 이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영언, 2009).

최근 들어,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한류’라는 새로운 현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3 년 일본 NHK 방송국에서 방영된 한국드라마 '겨울연가'를 계기로 나타난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의 드라마, 영화, 배우, 가수 등이 일본에

진출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한류열풍은 일본인들의 한국 문화,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킨 것뿐만 아니라,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다(황혜경, 2008). Han, Singhal, Hanaki, Kim & Chitnis(2007)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 사회에 점점 더 수용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침묵 속에 있던 재일동포들에게 그들의 삶과 정체성이 가시화되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일본사회에 널리 퍼진 한류를 통해 재일동포들은 한국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어 자신들의 민족적 뿌리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한국어 방송의 시청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재일동포 청소년들은 한류로 인해 한국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대학에서 한국 관련 수업을 수강하거나 모국수학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향진(2011)은 한류를 재일동포가 "지난 100 여년간 일본사회로부터 받아온 일방적인 언어적, 문화적 동화과정에 시비를 걸 수 있는 결정적 계기"(p.191)로 보고 있다. 김지영(2009)은 조국에 대한 실질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재일동포들에게 한류미디어 접촉은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킨 경험"(p.208)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이 가지는 한류 경험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게 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많은 재일동포들이 한류 미디어를 접촉한 이후 한글을 배우거나 본명을 사용하게 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고, 응답자 중 민족학교 미경험자의 4.5%와 민족학교 경험자의 6.3%는 모국수학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2) 재일동포 모국수학사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정훈(1997)은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재일동포 모국 수학사의 경우를 중심으로」에서 96 명의 재일동포 2, 3 세 모국수학생들에게 서베이를 실시하고 그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도 실시하여 모국수학이 지니는 의미와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재일동포들이 일본 사회에서의 취업 차별을 피해 모국수학을 오며, 그들의 민족정체성 또한 일본 사회에서 경험한 차별에 의해 형성되었으나 한국의 현실을 체험하며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자신을 발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재일동포 모국수학사의 민족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17 년 전에 행해진 연구이기 때문에 오늘날 모국수학생들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끼(구라시게 정 우희)(2001)는 「한국에 유학하는 자이니치(在日) 학생의 삶과 문화」에서 약 2년 반에 걸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그리고 모국수학을 직접 체험한 연구자 본인의 경험들을 통해 모국수학중인 재일동포 3, 4세 학생들이 왜 모국수학을 결심하고, 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며,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유끼는 그들이 한국에 오기 전 비(非)일본인으로 자신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 생활을 통해 다시 한번 비(非)한국인임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자이니치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이중의 비(非)정체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끼의 연구는 한국에 유학하는

재일동포의 한국에서의 삶과 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민족정체성에 보다 주목하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국수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재일동포의 귀환과 민족정체성을 다룬 연구로는 권숙인(2008)의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과 정체성」이 있다. 권숙인은 이 논문에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11명의 재일동포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배경과 목적,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그들의 귀속의식과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을 닛케진(日系人)과 같은 다른 디아스포라 귀환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는 “진짜 한국인”(p. 52)이 되기 위하여 한국에 온 재일동포들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편견을 경험한 뒤 한국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민족정체성의 수정 및 타협의 과정을 통해 재일동포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재한 재일동포의 배경과 정체성을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동기에 의해 한국에 온 재일동포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국수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논문과는 차이가 있다.

### 3. 이론적 배경

#### (1)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sup>3</sup>

민족정체성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온 복잡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기 정의(self-identification), 집단에 대한 귀속감, 자신의 민족집단이 공유하는 가치와 태도에 대한 의식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여겨진다(Phinney, 1990; Phinney, Horenczyk, Liebkind, & Vedder, 2001). Spickard 와 Fong(1995)은 민족정체성이 역동적이고, 생애에 걸쳐 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민족정체성의 개념을 주로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이론 혹은 개인 정체성(individual identity) 이론과 관련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Saharso, 1989). 전자는

---

<sup>3</sup> 한국적 맥락에서 ‘민족’은 종족, 국민, 민족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에 다의성을 띄며, “그 자체가 매우 복잡적이고 논쟁적” (박명규, 2009, p.39)인 개념이다. 민족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를 ethnic identity로 볼 것인지 national identity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ethnic과 nation 모두 서양에서 온 개념이기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각의 차이 또는 개념을 한국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생기는 시각의 차이 등으로 인해 두 용어는 아직 합의된 번역어가 없다. 두 용어 모두 ‘민족’으로 흔히 번역되어 쓰이지만 nation의 경우 ‘국민’에 가깝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ethnic의 경우 국가중심적인 민족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닌 ‘종족’에 가깝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장정아, 2005; 박은경, 1987).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의 경우, 조선 혹은 한반도 출신자, 한민족의 일원, 한국계 일본인 혹은 ‘자이니치(在日)’라는 일본내의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일원 등 대한민국, 북한, 일본과 같은 국민 국가의 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ethnic identity 개념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민족정체성을 Tajfel(1981)이 설명한 사회적 정체성인 “사회 집단(들)에 대한 자신의 소속감에 대한 인지와 그 소속감에 관련된 가치와 의의에서 비롯된 개인의 자아 개념의 한 부분” (p. 255)의 일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주로 사춘기에 탐색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정체성의 형성이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정체성의 영역에 관련된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Erikson 의 정체성 발달이론(Robert et al., 1999, p.303 재인용)과 맥락을 함께한다.

Phinney 는 모든 민족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민족정체성 발달 모델을 제시한다. 그는 우선, 자신의 민족 집단에 대해 검토되지 않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민족정체성의 단계에서 민족 집단에 대한 탐색의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자신이 귀속한 민족 집단과 민족성에 대한 탐색이 끝나면 획득된 민족정체성 단계로 도달한다고 설명하였다 (French, Seidman, Allen & Aber, 2006, p. 2 재인용).

다수의 연구자들(Barth, 1970; Sheets, 1999; Padilla, 1999; Yinger, 1994)은 민족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는 하는 것과 동시에 타자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Yinger(1994)는 타자에 의해 민족적으로 별개라고 여겨지는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민족적으로 별개라고 여기는지, 공통된 기원과 문화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민족 집단의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는 위와 같은 구성 요소들의 여부를 기준으로 민족정체성을 8 가지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그는 민족정체성의 종류에 대한 분류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1] 민족정체성의 종류

	I. 타자로부터 민족적으로 별개라고 여겨지는가?			
	그렇다		아니다	
	II. 개인이 그들 자신을 민족적으로 별개라고 여기는가?		II. 개인이 그들 자신을 민족적으로 별개라고 여기는가?	
III. 공유하는 활동(shared activity)에 참여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1. 충만한(full)	2. 자각되지 않은(unrecognized)	3. 은밀한(private)	4. 숨겨진(hidden)
아니다	5. 상징적(symbolic)	6. 고정된(stereotyped)	7. 상상된(imagined)	8. 비민족적(nonethnic)

(출처: Yinger, 1994, p.4 에서 인용)

민족정체성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정영훈(2010)의 「민족정체성,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정체성」이 있다. 그는 민족정체성을 “특정 민족이 가지는 고유특성이나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소속의식”(p.3)이라고 보며 이는 생애적인 것과 관련된 객관적인 부분과,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 주관적인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족정체성의 유지와 강화 및 소멸에는 계승 의지와 의도적인 계승을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익한지 여부, 민족성원들이 자문화와 자민족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여부, 민족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민족문화에 접할 기회와 수단을 가지고 있는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디아스포라(Diaspora)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로 ‘흩어지다, 펼쳐다, 분산되다’라는 뜻을 가진 dia 와 speirein 의 복합어인 diasporain 에서 생겨난 명사이다.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1960 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은 이민, 망명자, 피난민을 모두 포함하여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김영민, 2009).

디아스포라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들 중 하나는 사프란(Safran, 1991)의 정의인데, 그는 디아스포라가 (1) 특정한 중심으로부터 두 개 이상의 지역으로 분산되었고, (2)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 혹은 신화 등을 간직하고 있으며, (3) 그들 자신이 호스트 사회(host society)에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믿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소외감을 느끼며, (4) 그들의 조국(ancestral homeland)을 후손들이 돌아가야 할 참되고 이상적인 고향(home)으로 보며, (5) 그들이 자신의 모국의 유지나 회복 그리고 번영과 안보에 헌신하여야 한다고 믿으며, (6) 모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6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코헨(Cohen, 2008)은 사프란이 내린 디아스포라의 정의에, 다른 국가에 정착해 있는 같은 민족 구성원들과 공동의 책임의식과 공감을 공유하고 있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그는 디아스포라의 유형을 피해자, 노동, 제국, 무역, 탈영토화 디아스포라와 같은 5 가지로 분류하였다. Brubaker(2005)는 (1) 분산, (2) 실제의 혹은 상상된 모국에 대한 지향, (3) 경계의 유지와 같은 세 가지

요건들이 디아스포라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의 디아스포라 정의들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조국과 다른 곳에 거주하며 다양한 차원에서 모국을 지향하는 점에 주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은 디아스포라들이 고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만 타향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소속되지 않고 그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는 경계인 집단이며, 비교적 자유롭게 월경하며 다층적이고 다수적인 집단 소속감과 유연한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는 존재로 이해한다(박준규, 2003; 임채완, 2008). 디아스포라는 이주, 민족정체성, 문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연구할 때에 유용한 개념이다(윤인진, 2004).

고전적 디아스포라 개념에서는 모국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이산된 상태가 강조되는 반면 현대적 디아스포라 개념에서는 자의적으로 모국과 거주국 중 그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은 상태가 더 강조된다. 디아스포라 연구를 고전적 연구와 현대적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자는 이민 1 세대의 모국에 대한 애착과 집합적 기억에 관심을 가지고, 후자는 거주국에서 출생하여 모국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애착도 비교적 약한 이민 2 세와 그 이후 세대에 초점을 맞춘다(윤인진, 2012).

재일동포를 디아스포라로서 바라보고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재일동포 학자인 서경식(2006)은 디아스포라를 "근대의 노예무역, 식민지배, 지역 분쟁 및 세계 전쟁, 시장경제 글로벌리즘 등 몇 가지 외적인 이유에 의해, 대부분 폭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용어"(p.14)로 정의하며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에 위치한 디아스포라의 소수자적 입장을 강조해왔다. 박명규(2004)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수용과 배제, 소속감과 타자의식, 우리와 그들의 경계가 갈등하고 있는 사회적 지점”(p.170)을 뜻하는 베르버너의 ‘디아스포라 위치’ 개념을 설명하며, 재일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라고 느끼는 인식이 바로 ‘디아스포라 위치’로부터 생겨났다고 보고 있다. 소냐 량(2001) 또한 재일동포가 망향(homeless) 상태에 있다는 점이 재일동포를 재일동포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디아스포라로서의 재일동포를 연구해왔다. 이한정(2012)은 재일동포를 디아스포라를 통해 파악하는 것으로 인해 지금까지 역사적 유산인 식민지 경험자의 정체성 영역을 넘어서서 국가 간의 경계를 월경하는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재일동포가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계인 이더라도 ‘민족’ 안에 존재하며, 또한 ‘민족’ 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존재”(p.278)라고 설명한다. 그는 재일동포에게서 한민족의 특성을 찾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 오늘날, 그들에게서 집합적 속성을 찾기보다는 앞으로는 디아스포라 개념을 적용하여 그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복합적인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아스포라, 그 중에서도 이주한 당사자가 아닌 그 후손들이 조국(ancestral homeland)으로 귀환(return)하는 현상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며칠간의 단기 모국방문(homecoming), 중·장기 체류, 혹은 영구적인 귀환 등 다양한 차원의 귀환을 모두 ‘귀환’으로 칭한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귀환’

혹은 ‘귀환 이주’와 같은 전통적인 용어 외에도 ‘유산 관광’ (heritage tourism)(Basu, 2005; Ari & Mittelberg, 2008), ‘민족적 귀환’ (ethnic return)(Tsuda, 2003), ‘환류(역이민)’ (임영언, 2011), ‘재이동’ (reimmigration)(조경희, 2011) ‘뿌리 이주’ (roots migration)(Wessendorf, 2007), ‘조상과 관련된 귀환’ (ancestral return)(King & Christou, 2011), ‘역-디아스포라 이주’ (counter-diaspora migration)(King & Christou, 2008a)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권숙인(2004)은 민족적 귀환이주(ethnic return migration)를 “민족적 기원을 둔 나라를 떠나 수 세대에 걸쳐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그 기원이 되는 나라로 돌아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p.183)고 정의하며, 전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성립 후 귀환한 것을 고전적 사례로 본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제 3세계로부터 제 1세계에 속해있는 고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많은 후손 디아스포라들은 역사적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뚜렷이 하고, 참된 정체성의 재확인 및 재발견을 위한 절차로써 조상의 고향을 방문한다. 자신의 ‘소속’과 ‘고향(home)’을 찾는 과정은 무척 강렬하고 감정적이며, 삶을 바꾸기까지 하는 체험이 되곤 한다(King & Christou, 2008a). 일반적으로, 거주국에 충분히 통합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후손 디아스포라들은 모국으로의 이전(relocation)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거주국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 모국에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발견하는 '사치'를 누리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King & Christou, 2008b). 후손

디아스포라들이 모국행을 선택하는 데는, 역사적 및 사회적 연고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신현준, 2013). 대개의 경우, 이들은 모국방문을 통해 모국과의 정서적인 연결이 강화되지만, 모국을 진정한 ‘고향(home)’으로 느끼거나 모국으로 이전(relocate)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나(King & Christou, 2010), 모국과의 결렬 및 모국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고(King & Christou, 2009), 유년기의 모국방문 경험이 성년이 된 후에 모국으로 영구적인 이주를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Wessendorf, 2007). Tsuda(2003)는 그의 연구에서, 일본을 모국으로 여기며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귀환한 일제인(日系人)들이 일본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취급되며 주변화를 경험하고 그 결과로, 자신이 태어난 나라인 브라질을 재발견하는 것과 함께 브라질적인 정체성을 강화시켜나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국방문 중 후손 디아스포라들은 소외감 혹은 귀속감을 느끼거나 두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도 있는데, 어느 생애 단계에 누구와 모국을 방문했는지에 따라 한 개인에게 있어서 모국방문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이 관찰되었다(Huang, Haller & Ramshaw, 2011). Ishikanian(2004)은 모국을 방문하는 디아스포라들이 체류자 신분임과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모국에서의 정서적이거나 영적인 경험을 기대하거나 거주지의 선택권을 탐색하는 침입자들(interlopers)과도 같다고 표현한다. 후손 디아스포라들이 모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들은 모국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국으로 이주한 1세대 이자 ‘신 디아스포라’가 구성된다고 볼 수도 있다(King & Christou, 2011; Weingrod & Levi, 2006).

재인용).

본 논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후손 디아스포라들의 모국수학에 관해서 아직까지 축적된 연구물이 극히 적다. 이 중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스라엘 혹은 한국의 모국수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Cohen(2003)은 이스라엘에 소재한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재학하고 있는 유대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이 모국수학을 하게 된 동기를 1. 종교관련, 2. 관광관련, 3. 종교와 관광관련, 4. 기타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유대계 학생들이 모국수학을 선택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기대, 열망, 동기가 작용하며 이스라엘의 한 가지 면에만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총체적인 ‘이스라엘 경험’에 흥미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경우 종교가 모국수학의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일동포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대민족에게 종교는 민족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습득할 목적으로 모국수학을 선택하는 재일동포의 경우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국수학과 관련된 한국의 연구로는, 앞서 선행연구 부분에서 다루어진 재일동포 모국수학생에 대한 연구와 함께 중국동포, 파라과이동포 모국수학생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은희(2007)는 파라과이동포 학생들이 모국수학 과정에서 겪는 문화충격과 갈등을 살펴보았다. 파라과이동포들은 거주국에서의 생활만족도가 비교적 낮아 미국이나 한국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국수학생들 또한

한국에서 받은 학위가 미래에 도움이 되고 한국이나 제 3국에서 직업을 얻기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모국수학을 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모국수학을 하며 경제적인 문제, 문화 차이, 한국식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조혜영(2002)은 중국동포들이 모국수학 과정에서 겪는 모국관 및 민족관의 형성과 변화 과정, 한국 생활 중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연구하였다. 자신의 모국인 한국에서 환영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오지만 실제로는 재미교포나 재일동포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으며,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의 위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 이질감 및 고립감, 정체성의 혼란 등이 재중동포들이 모국수학을 하며 겪는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 4. 연구 방법

2012 년 12 월 - 2013 년 2 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2 명의 재일동포 3, 4 세 모국수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semi structured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연구자가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그 밖의 유용하다고 판단한 정보들을 얻는 것을 통하여 인터뷰 대상자의 관점 혹은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터뷰이다(Berry, 1999).

인터뷰 대상자는 최소한 6 개월 전에 모국수학을 위해 한국에 온 재일동포 3, 4 세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몇 명으로부터 다시 그들의 지인을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모집하였다. 심층인터뷰 전에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의의 그리고 인터뷰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고, 익명성과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것과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인터뷰를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은 뒤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집이나 시내의 커피숍에서 각각 2 시간 ~ 4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모든 내용은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 하에 녹음되었다. 사전에 준비한 몇 가지 질문들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되,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에 반응하여 즉석에서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의 질문을 추가로 하였다. 사전에 준비해놓은 질문들은 (1)인적 사항, (2)교육 배경, (2)성장 배경, (4)모국수학의 동기와 목적, (5)모국수학 과정, (6) 모국수학 전의 민족정체성, (7)모국수학 이후의 민족정체성의 변화에 관한 질문들이다. 면접 언어는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한국어로 답하기 어렵거나 일본어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일본어로 답할 수 있게 하였고, 질문 또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본어로 다시 한번 반복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22 명의 연령은 20 대 초반에서 40 대 초반에 걸쳐 있으며 이 중 한국 국적 소지자는 20 명, 일본 국적 소지자는 2 명이었다. 성별은 여성 14 명, 남성 8 명으로 여성 응답자의 수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조금 더 많았다. 교육배경을 살펴보면 10 명은



일본 학교만 다녔고, 8 명은 민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4 명은 일본 학교와 미국/뉴질랜드/멕시코에서 현지 학교를 다녔다. 인터뷰 당시 이들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체류 기간은 각각 6 개월에서 10 년으로 다양했다. 모국수학의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국어학당 학생 5 명, 학부생 4 명, 한국어학당과 학부를 모두 경험한 학생 3 명, 대학원생 2 명, 학부 교환학생 2 명, 대학원 교환학생 2 명, 한국어학당과 대학원을 모두 경험한 학생 2 명, 한국어학당과 대학원 교환학생을 모두 경험한 학생이 1 명, 고등학교, 한국어학당 그리고 학부를 모두 경험한 학생이 1 명이다. 인터뷰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인터뷰 대상자 인적 사항

이름 (가명)	성별	연령	재일 세대	국적	출신지	교육배경	직업	모국수학 유형	한국 체류 기간
조민희	여	20대	3	한국	도쿄	일본학교	대학생	학부 교환학생	1년
강리사	여	20대	3	한국	오사카	일본학교	대학생	학부 교환학생	8개월
김민준	남	20대	3	한국	도쿄	일본학교, 한국인학교	창업 준비중	학부	6년
정수나	여	40대	3	한국	나고야	일본학교	대학원생	대학원	10년
윤은미	여	20대	3	한국	오사카	일본학교, 미국유학	유학 준비중	어학당/ 대학원	3년
박두진	남	20대	3	한국	미에	일본학교, 멕시코유학	대학원생	어학당/ 대학원 교환학생	6개월
고우리	여	20대	3	한국	히메지	조선학교, 일본대학	아르바이트	대학원	3년
이순옥	여	30대	4	한국	나고야	일본학교	대학생	어학당/ 학부	8년
권지현	여	20대	3	한국	오카야마	일본학교	아르바이트	어학당	4년
박미화	여	30대	3	일본	도쿄	조선학교	아르바이트	어학당	1년
임영호	남	20대	3	한국	교토	일본학교	대학생	고교/학부/ 대학교	5년
박문희	여	20대	3	한국	도쿄	조선학교	대학생	어학당/ 학부	2년
이대철	남	20대	3	한국	효고	일본학교	대학생	어학당/ 학부	4년
송지숙	여	20대	4	한국	도쿄	조선학교	대학생	학부	3년
윤수진	여	20대	3	한국	토치기	조선학교	대학생	학부	4년
송명자	여	30대	4	한국	오사카	일본학교 미국학교	대학생	어학당/ 학부	3년
이광일	남	20대	3	한국	코치	일 학교, 민족학교	대학생	어학당/ 학부	5년
하철수	남	20대	3	한국	고베	일본학교	취직예정	어학당	2년반
최미자	여	40대	3	한국	와카야마	일본학교	주부	어학당	5년
이진순	여	20대	3	한국	도쿄	조선학교, 일본학교	대학원생	대학원 교환학생	6개월
김영훈	남	20대	3	한국	아키타	일본학교	대학생	어학당/ 대학교	4년
오태식	남	20대	3	일본	카와사키	일본학교, 미국학교	대학원생	대학원 교환학생	6개월

## II.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모국수학

### 1. 민족교육의 전개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후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적·비강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일본은 1910년대에 “토지사업에 의한 ‘토지수탈’”, 19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에 의한 ‘쌀 수탈’, 1930년대는 황민화 정책에 의한 ‘노동력 수탈’, 1940년대는 징용, 징병에 의한 ‘생명 수탈’”(『역사 교과서 재일 코리언의 역사』작성위원회, 2000, p.36)과 같은 식민지 정책들을 펼쳤다. 이와 같은 정책들로 인해 조선인들은 생계가 극도로 어려워져 일본행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되거나, 강제 연행되어 일본에 가게 되었다.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에 가게 된 배경에는 “①식민지 시기 한반도 농촌에 있어서의 만성적인 경작지 부족, ② 토지 조사사업이나 산미증식계획 등으로 인한 소작인들의 생활환경 불안, ③ 몰락 농민들의 대량 노동력을 흡수할 만한 한반도 내 노동시장의 부재 혹은 부족, ④ 한반도에서 가까운 일본의 입지 조건, ⑤ 비록 관리 통제가 수반되기는 했지만 갈수록 발달해 가는 한반도와 일본과의 연결 교통수단, ⑥ 한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⑦ 일반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서 저임금 고효율 조선인 노동자의 환영”(최영호, 2008, P.79 재인용)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 수는 1946년 3월까지 약 150만 명에 달했고, 나머지 조선인들의 약 80% 또한 고국에 귀환을 희망했으나 결국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약 60만 명은 일본에 남게 되었다(서경식, 1996). 이때 일본에 남게 된 60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바로 재일동포 1세대로서, 재일동포 사회의 모체가 되었다.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 민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재일동포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이후 자녀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기 위한 국어강습소를 전국 각지에 세우기 시작하였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설립된 국어강습소는 빼앗긴 말이었던 조선어를 되찾는 교육 활동의 장이었으며, 조선어를 익히지 못한 아이가 귀국 후를 대비하여 조선어를 습득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반년 후인 1946년 4월에는 조선어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수학, 과학도 함께 가르치는 학교 형태로 발전하여 초등학교 525개교, 청년학교 10개교에서 42,0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1,100여명의 교원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재일코리안 사전」 편집위원회, 2012). 재일동포들은 학교의 설립에서부터 교과서 제작, 학생 지도, 학교 운영을 본국 정부의 도움 없이 모두 힘을 모아 이루어내는 등의 높은 교육능력을 보여주었으나, 자유롭게 민족교육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1948년 1월부터 일본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당시 외국인이었으나 구식민지 출신자로서 일본 국적을 가진 자의 자녀들은 일본의 교육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인 교사가 일본어를 사용하여 일본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일본국민 육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교육법이 강제되었다(오자와 유사쿠, 1999). 연합군총사령부(이하 GHQ) 또한 동서냉전이 심각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조선학교가 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인식하여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와 GHQ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각지의 조선학교들에 대해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 조련, 조선학교 관계자, 학부형, 학생들은 폐쇄에 반대하며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1948년 4월, GHQ의 명령으로 조선학교의 폐쇄를 집행하기 위해 파견된 경관대와 학교 폐쇄에 반대하던 재일동포들 사이에 격한 난투가 각지의 조선학교에서 발생하였다. 오사카, 고베에서는 재일동포들이 대집회를 열었는데,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하고 당시 16살이었던 김태일군이 사살되었다. 이 시기에 재일동포들이 민족학교를 사수하기 위해 펼친 투쟁을 ‘한신교육투쟁’이라고 부른다(김찬정, 2010). 한신교육투쟁으로 인해 민족학교가 존속될 수 있었고, 민족학급의 전신인 ‘각서 민족학급’ 설치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9년 10월 일본 문부성이 내린 민족학교에 대한 폐쇄령으로 인해 대다수의 민족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윤인진, 2004). 문을 닫게 된 민족학교의 학생들은 일본 공립 학교에 분산되어 입학하거나 학교를 그만두었고, 일부 조선학교는 일본 공립 학교로 전환되었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폐쇄조치에 한결같이 반대한 결과 자주 학교로 남게 되었다. 1953년 재일동포 학생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의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1955년 공립 조선학교가 자주학교로 변경되어 각종학교로서 인가를 받게 되었다. 재일동포 민족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는 1956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모든 조선학교를 관할하기 시작하였다(마츠다 토시히코, 2003). 이때부터 재일동포의 민족학교는 민단계 학교와 총련계 학교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띄게 되었다. 민단은 재일동포가 일본 내의 소수민족으로서 지위향상을 이룰 수 있는데 주력하였던 반면, 총련은 재일동포를 언젠가는 모국으로 돌아갈 존재 즉 조국의 해외공민으로 바라보며 일본 내에서의 지위향상보다는 민족교육에 힘썼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각 단체의 민족학교 규모 및 학생 수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었다(윤인진, 2004). 오늘날까지 민단과 총련의 민족학교는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민단과 총련의 민족교육, 재일동포 관련 NGO 및 한국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민족교육 프로그램도 다수 등장하여 민족교육의 장이 한층 더 다양화 되었다.

## 2. 민족교육 현황

이 장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민족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 재일동포 민족교육 현황

학교교육 (전일제)	민단계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4, 대학교: 0	
	총련계	유치원: 40, 초급학교: 53, 중급학교: 33, 고급학교: 10, 대학교: 1	
	코리아 국제 중고등학교	2008년 오사카에 개교한 전일제 민족학교. 개교 초기는 조선학교의 대안학교였으나 현재는 한국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 (2012년 11월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외 한국학교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음.)	
일본 학교 내 민족학급		재일동포 학생들이 비교적 많이 다니는 일본의 소·중학교 내에 설치하여 주로 과외수업의 형태로 진행.	
사회교육	민단계	임해·임간학교	여름방학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민단 각 지방본부에서 실시하는 단기교육과정.
		어린이토요학교	일본 학교에 다니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토요일을 활용하여 운영.
		코리안 아카데미	재일동포 기성세대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민강좌 시스템. 4개 지방본부에서 상설 교실화되어 운영중.
	총련계	오후야간학교	일본 학교에 재학하는 재일동포 학생들을 위하여 오후·밤 시간을 이용하여 총련의 각 지방본부에서 운영.
		토요아동교실	일본 학교에 다니는 재일동포 학생들을 위하여 토요일을 활용하여 총련의 각 지방본부에서 운영.
		하기학교	여름방학기간에 조선학교와 총련의 사무소 등에서 모국어를 기본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민족교육.
		우리말교실, 각종문화교실	일본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하는 재일동포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
	한국교육원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 문화 등의 민족교과 교육활동을 실시. 종합교육원:5개, 분원:5개, 교육원:8	
	재일동포 관련 NGO	재일동포관련 NGO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어, 한국 문화 및 재일동포에 관련된 강좌를 진행.	

(민단 홈페이지; 총련 홈페이지;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코리아국제중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참조)

## (1) 학교 내 민족교육

[표 2-2] 일본 내 민족학교 현황 (2013. 3 현재)

총련계 민족학교		민단계 민족학교	
유치원	40	유치원	2
초급학교	53	초등학교	3
중급학교	33	중학교	4
고급학교	10	고등학교	4
대학교	1	대학교	0
총 137개교 (실제 학교 수: 65)		총 13개교 (실제 학교 수: 4)	

(민단 홈페이지 자료 및 총련 내부 자료를 재구성)

### ① 민단계 민족학교

현재 민단계 민족학교는 동경에 소재한 동경한국인학교, 오사카에 소재한 금강학원과 백두학원, 교토에 소재한 교토국제학원으로 4개의 학교가 있다. 위 학교들에 설치된 유치원은 2개원, 초등학교는 3개교, 중학교는 4개교, 고등학교는 4개교로 총 13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보다 전국적인 규모로 퍼져있고, 다수의 학교들이 기숙사를 갖추고 있는 조선학교와는 달리 민단계 민족학교는 전국에 네 군데 밖에 없는데, 이는 오늘날 많은 재일동포들이 일본 학교로 진학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동경한국인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의 학교는 일조교 인가를 받았다. 일조교 인가를 받게 되면



사립학교진흥조성법에 근거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본의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고 독자적인 교과, 한국어, 한국사 등의 수업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제약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재일코리안 사전」 편집위원회, 2012).

## ② 총련계 민족학교

총련계 민족학교는 그 규모 면에서,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총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총련계 민족학교는 2013년 3월 현재 65개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40개의 유치원, 53개의 초급학교, 33개의 중급학교, 10개의 고급학교, 1개의 대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 체계를 갖추고 외국에서 민족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북한은 재일동포들을 해외 공민으로 인정하며 1957년부터 총련을 통해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은 한반도 이남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재일동포들에게 자신들의 조국은 북한이라는 조국관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남근우, 2011).

조선학교의 학기 구분, 등교 일수, 연간 수업 주수와 수업 일수, 주당 수업 시간은 일본 학교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국어, 조선역사, 지리, 사회, 음악, 미술 등의 과목들이 학우서방에서 발행된 122점의 교과서를 사용하여 지도되고 있다. 모든 총련계 민족학교는 학교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문부과학성의 교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일본 학교에 비해 학부모들에게 지워지는 교육비 부담이 크다. 또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일본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통해 인정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정태현, 2007). 일본의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에 비해 조선학교의 학력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워, 국립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따로 검정시험을 응시하거나 통신제 고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상의 차별과 동시에, 조선학교 학생들은 통학 중에 물리적 폭력 및 언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졸업 후에도 조선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 취직이나 결혼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총련계 재일동포들이 자녀를 조선학교에 보내는 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희생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 각지의 조선학교들에서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문웅 2004). 다음 표는 1946년부터 2006년까지 조선학교 학생 수 및 학교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2-3] 조선학교 아동생도 및 학교수의 추이 (1946 ~ 2006년)

	학년도	아동생도수	전년비	학교수	전년비	비고
1	1946	43,362		541		조련기/정규학교화
2	1947	49,722	6,360	578	37	
3	1948	56,300	6,578	606	28	
4	1949	37,287	- 19,013	307	- 299	4.24 교육투쟁 조련강제해산 민전기/1949년비
5	1951	14,925	- 22,362	116	- 191	
6	1955	22,978	8,053	110	- 6	
7	1958	22,645	- 333	118	8	총련결성 교육원조비 송금개시 귀국사업개시
8	1959	33,433	10,788	118	0	
9	1960	45,075	11,642	135	17	
10	1968	37,697	- 7,378	149	14	혁명활동게시판
11	1969	37,514	- 183	153	4	
12	1970	35,713	- 1,801	155	2	
13	1972	34,692	- 1,021	158	3	7.4 남북공동성명
14	1999	약 15,800				
15	2000	약 15,300	- 500			
16	2001	약 14,800	- 500			학생수는 2년전비
17	2002	약 13,900	- 900			
18	2003	약 12,200	- 1,700	77		
19	2004	약 11,500	- 700			
20	2006	약 10,500	- 1,000	68		

(원표의 전처: 1999-2004년 통계[오사까부 사가이시의회의원 자료] 2006년 통계 [2007.9.27 배신 산계이신문/학교수 79교]참조) (출처: 김덕용, 2008 재인용)

위 표를 살펴보면, 1948년 606개에 달하던 조선학교가 2006년에는 68개로 줄어 지난 60년간 무척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수 또한 1948년 56,300명에 달했지만 2006년 10,500여명에 불과해 60년 전에 비해 오늘날 훨씬 적은 수의 재일동포만이 조선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조선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조선적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 혹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학생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 또한, 조선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재일동포 부모들 중에는 총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부모들도

다수 존재한다. 한 논문에 소개된 조선학교 교장의 인터뷰를 보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한국 국적 아이들이 반 이상입니다. 민단 간부의 80%이상도 민족학교 출신이지요. 학교의 모든 재정은 스스로 확보해야 하며 납부금과 기부금, 행정보조금 등으로 운영하는데 북에서만 교육원조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액수보다 상징적이고 심정적인 의미가 더 큼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중립을 유지했다면 학교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했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우리에게 알아서 살아가라고 했고, 북에서는 교육지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배덕호, 2003 p.165)

2010년 4월, 일본 내의 모든 외국인학교들을 포함한 고등학교들이 학비 무상화 대상이 된 가운데, 조선학교만이 제외되어 재일동포 및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화 대상 제외 반대 투쟁을 펼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500여 개에 달하는 단체들이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제도를 적용 시행할 것, 일본 지자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즉각 철회할 것,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익집단들의 폭력적 언행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통일뉴스 2013.03.29). 이와 관련하여, 유엔 '경제·사회·문화의 권리규약위원회'는 2013년 5월 "본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로서 우려하는 바"라며 "차별에 대한 금지가 포괄적이고 즉각적으로 교육의

모든 국면에 적용되고, 국제적인 차별 금지의 근거들을 모두 망라한다는 것을 상기하며, 일본정부에 대하여 고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확대할 것을 보증하도록 촉구한다"는 최종견해를 발표하여 향후 일본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통일뉴스 2013.05.22).

### ③ 국제학교 (코리아 국제 중·고등학교)

2008년 4월 오사카에 개교한 코리아국제중고등학교는 초기에는 총련계 조선학교의 대안학교로서 출발하였으나, 2011년 3월 일본 정부로부터 각종학교 인가를 받았고 2012년 11월에는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외 한국학교로 승인을 신청함과 동시에 태극기를 게양하여 한국계 민족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학교 관계자에 의하면, 재외 한국학교로 승인을 신청한 배경에는 현재 학교 운영상의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점이 작용했다고 한다. 각 학년의 정원은 25명이나 현재는 전체 정원에 못 미치는 약 7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더해 한국어와 코리아 근현대사와 재일코리아안사로 이루어진 코리아학을 가르치고 있다(연합뉴스 2013.01.29; 코리아국제학원 홈페이지)

#### ④ 민족학급

민족학급은 1949년 민족학교를 폐쇄하며 오사카부교육위원회가 각서로서 보장한 것으로, 일본 학교에 다니는 재일동포 학생들을 위하여 부 내 33개의 공립학교에 설치하고 36명의 민족강사들을 정식 교원으로 채용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때 설치된 민족학급은 ‘각서민족학급’으로 불리고 있다. 각서민족학급은 시간이 흐르며 일본인 교사들의 차별과 견제 속에서 점점 그 수와 교원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재일동포 운동단체와 일부 일본인 교직원이 전개한 운동에 의해 11개 학급만이 보전될 수 있었다. 1971년 오사카에 소재한 한 소학교에 재일동포 학생이 학생회장에 입후보하여 권리를 주장했던 것을 계기로, 1972년 오사카를 중심으로 특별활동 형식의 민족학급이 설치되었는데 이때 설치된 민족학급은 ‘72년형 민족학급’으로 불리고 있다. 1985년에는 민족학급의 보급을 위한 단체인 ‘민족교육촉진협의회’가 결성되어 각서민족학급의 존속과 72년형 민족학급의 보급을 위한 운동을 하게 되었다(송기찬, 2004).

오늘날 민족학급은 민족클럽으로 불리기도 하며,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사카 한국교육원 내부 자료에 의하면, 민족학급은 “오사카 교육위가 인정하는 공식 특별 활동 (방과후 활동)” 이고, 민족클럽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식적인 특별활동”을 가르킨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오사카시와 사카이시를 제외한 오사카부내 41개시에 설치되어 있는 민족학급은 약

80여개이며, 참가 학생수는 약 1,500명이다. 각 학교에서는 개구리의 모임, 호랑이 학급, 안녕 학급, 어깨동무 모임, 저고리 클럽, 산토끼 어린이 모임 등의 다양한 이름 아래 한글과 전통 춤, 악기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 또한 외국 국적을 가진 교사, 강사 및 일본인 교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학생 모집은 입학시에 열리는 방과후 클럽 소개회를 통해 모집하거나 가정방문 시 학부모에게 권유 혹은 학생 개별면담을 통해 모집하고 있다. 참가는 전적으로 학생의 의사에 달려있으며, 수업이 실시되는 주기는 학교에 따라 주 1회에서 월 1회까지로 다양하다. 아래의 표는 오사카 부내의 민족학급 및 클럽에 참여하는 학생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4] 오사카 부내 민족학급·클럽에 참여하는 학생수 (2003 년도)

오사카 시립 초·중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 수	178,760명
오사카 시립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한국·조선 국적 학생수	5,362명
오사카 시립 초·중학교에 설치된 민족학급·클럽 참가 학생수: 총 2,260명 (단, '귀화'와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 포함)	상용직 민족 강사 근무 학교 민족 학급 참가 학생 수: 720명 초등학교에 설치된 민족 클럽 참가 학생 수: 1,071명 중학교에 설치된 민족 클럽 참가 학생수: 469명
오사카 시내의 민족학급·민족 클럽 설치 학교: 총 94개교	상용직 민족 강사 근무 학교: 7개교 초등학교 민족 클럽 설치 학교: 47개교 중학교 민족 클럽 설치 학교: 40개교

(코리아NGO센터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위 표를 살펴보면 오사카 시립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한국·조선적 학생수 5,362명 중 2,260명만이 민족학급·클럽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동포 학생도 다수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재일동포 학생이 민족학급·클럽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2) 학교 외 민족교육

학교 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족교육을 살펴보면, 그 주최 기관에 따라 민단계, 총련계, 한국교육원, 재일동포 관련 NGO에서 실시하는 민족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 대다수의 재일동포 학생들이 일본 학교에 다니며 학교 내에서 민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 외 민족교육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배우며 민족적 소양을 키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민단계

민단에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학교, 임해·임간학교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토요학교’는 일본 학교에 재학중인 재일동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민족교육 프로그램이다. 한글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도하고 있다. 일본 학교의 토요일 휴일제도를



활용하여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으며, 민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도우미로 참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24개현에서 35개의 어린이 토요일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일부 어린이 토요일학교에는 자녀들의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한국어, 도예, 민요, 민화, K-POP 등을 가르치는 '학부모반'도 함께 개설되어 있다. '임해·임간학교'는 일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일동포 초, 중고생을 대상으로 4박5일 내외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민단의 각 지방본부에서 실시하고 있고, 일부 지방본부는 한국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등 그 형식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27개소에서 실시되었고 참가 학생 및 지도자는 모두 합해 1337명에 이른다. 코리안 아카데미는 1993년에 만들어져, 재일동포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문화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 강좌 시스템을 도입한 민족교육 프로그램이다. 일본대학의 교수 및 재일동포 사회의 저명 인사들을 강사로 하여 역사, 일반교양, 문화, 문학, 한국어에 대한 강의가 실시되고 있다. 수강자는 2003년을 기준으로 4,400명을 넘었으며, 4개 지방본부에서 상설 교실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민단 홈페이지 참조).

## ② 총련계

총련에서 실시하고 있는 준정규 민족교육과정으로는 오후야간학교, 토요일아동교실, 하기학교, 성인교육망이 있다. 위 교육과정들은 총련에서 펴낸 준정규교육용 교과서를 주 교재로 하고 있다. 준정규교육용

교과서는 초급, 중급, 상급 교과서가 있으며 한글, 조선의 역사와 지리, 민족의 문화와 풍습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후야간학교’는 일본 학교에 다니는 재일동포 학생들을 위하여 오후에 운영되는 민족교육 프로그램이다. ‘토요아동교실’은 일본 학교에 다니는 재일동포 아동들을 위하여 토요일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며, 민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토요학교와 그 성격과 형태에 있어 유사하다. ‘하기학교’는 여름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비상설적인 민족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조선학교와 총련의 사무소 등에서 한글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기학교 또한, 그 형태에 있어서 민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해·임간학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성인교육망’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학교, 일본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는 재일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실, 일반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말 교실 과 각종 문화교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련 홈페이지 참조).

### ③ 기타

#### a. 주일 한국교육원

주일 한국교육원의 전신인 ‘한교교육문화센터’는 1963년, 민단의 요청에 의해 재일동포의 모국 방문 촉진 및 민족교육, 반공교육을 위하여 9개소에 설치되었다. 이 센터는 1967년 ‘한국교육문화센터’으로

개편되었다가 1977년부터 ‘한국교육원’으로 개칭되어 운영되고 있다(시마 아즈코, 1993). 현재 주일 한국교육원은 한국의 해외 공관으로서, 재일동포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 문화등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전국에 분포한 5개의 종합교육원(동경, 카나가와, 오사카, 코베, 후쿠오카)과 5개의 분원(사이타마, 나라, 와카야마, 오카야마, 오이타), 그리고 8개의 교육원(삿포로, 센다이, 니가타, 나가노, 치바, 교토, 히로시마, 시모노세키)이 운영되고 있다.

#### b. 재일동포 관련 NGO 주최 민족교육 프로그램

현재 일본에는 재일동포와 관련된 NGO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NGO에서는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및 한국 문화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NGO들 중의 하나인 재일코리안 청년연합(이하 'KEY')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KEY는 1991년 설립된 NGO로서, 국적에 관계없이 한반도에 뿌리를 둔 재일동포 청년들이 같은 뿌리를 가진 동료들과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도쿄, 오사카, 효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방마다 한글 강좌 및 공개 세미나,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KEY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글 강좌는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로 나뉜다.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강좌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자원 봉사 강사의 지도 아래 2~5명을

정원으로 한 입문, 초급, 중급, 상급 과정으로 나뉘어 매주 열리고 있다. 모든 강좌의 회비는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무료 체험 수업 및 학기 도중부터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되도록 많은 재일동포들이 부담 없이 한글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글 강좌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으로 단기 유학 및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동기부여가 되는 것과 동시에 한국어 실력을 더 높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KEY에서는 한글 강좌 이외에도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반도의 역사, 재일동포의 역사, 소수민족의 인권, 전쟁과 평화 등을 주제로 한 공개 세미나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주 장구, 전통 춤, 태권도, 가야금과 같은 민족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아 문화 동아리'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재일동포 관련 NGO는 한글강좌, 민족 전통 문화 동아리, 공개 세미나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 외의 민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KEY 홈페이지 참조).

### (3) 모국수학

#### ① 모국수학의 역사

[표 2-5] 모국수학 제도 연혁

담당기관	연도	내용
학생지도: 문교부 (現교육부) 학생교육: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62	민단이 후계자 육성책의 일환으로서 본국정부에 청원하여 모국수학 제도가 구체화됨.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학교교육과정을 12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학입학을 인정한다’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모국유학제도’라는 명칭 아래 실시되어 11명이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됨. 입학전형은 한국어와 주일대사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을 토대로 각 대학 및 학과에서 서류전형만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됨.
	1963	‘재일동포학생 모국유학 특별조치’에 의해 정원에 구애 받지 않고 학교의 수용능력 내에서 교포학생들을 받아들일도록 하는 한편 이들에게는 학비를 국비로 보조해주는 특혜가 주어짐.
학생지도: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학생교육: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64	모국유학 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도처는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가 전담하였으며, 모국어 교육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가 담당함. 모국수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던 것을, 자비 모국수학생을 모집하고 매 학기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변경.
	1965	재일동포 학생 중 문교부의 추천을 받아 서울대학교 각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기한 내에서 대학원장의 신청에 의해 3월말 이후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부여함.
	1966	한국정부가 주최하고 민단이 모집을 전담하여, 중·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 모국수학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시작함.
서울대학교 내 재외국민교육연구소	1970	서울대학교 내에 재외국민교육연구소가 부설기관으로 발족하게 되고, 어학훈련 코스가 병설되었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1971	재일동포의 요망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국유학과정이 신설되었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가 담당하게 됨.
학생지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교육: 서울대학교 부속 재외국민교육원	1977	재외국민교육연구소에서 서울대학교 부속 재외국민교육원으로 개편되어 학생 수용 및 지도와 함께 해외동포를 위한 교재개발도 병행해서 담당하게 됨. 제도명이 ‘모국유학’에서 ‘모국수학’으로 변경됨.
	1984	대만동포 자녀가 입학한 데 이어 88년에는 미국동포 자녀도 입학하게 되어 모국수학 제도가 해외 동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
국립국제교육원 (前국립국제진흥원)	1992	재외국민교육원이 서울대학교 부속기관에서 교육부의 직속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명칭도 ‘국제교육진흥원’으로 바뀜.
	1998	고등학교 예비과정이 폐지됨.
	2001	재외동포 교육전문기관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
	2008	대통령령 제20897호에 의거하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주관: 국립국제교육원 운영: 국립공주대학교	2009 ~ 현재	2009년 4월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을 위탁 받아,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산하 재외동포교육센터에서 모국수학 프로그램 참가 학생의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음.

(민단 홈페이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이창기&김재갑, 1988; 시마 아쓰코, 1993를 참조하여 작성)

본 논문에서 ‘모국수학’은 정규·비정규 과정 여부와 수학 기간에 관계없이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어학당, 학부, 대학원과 같은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의 수학하는 것을 총칭한다. 민단이 후계자 육성책의 일환으로서 한국정부에 청원하여 구체화된 모국수학 제도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학교교육과정을 12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학 입학을 인정한다’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모국유학 제도’라는 명칭아래 실시되어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된 11명의 학생이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 입학한 것이 그 시초이다. 시마 아쓰코(1993)는 모국수학 제도가 마련된 배경에는 총련계 조선대학교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조선대학교가 1956년에 설립되고 1958년에 4년제로 전환되어 총련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총련 차세대 간부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역할을 함께 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민단측에서도 차세대 간부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정부에 이를 요청하였던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sup>4</sup>. 당시 문교부(現교육부)는 재일동포학생들에게 모국에서 대학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민족정신을 함양하고 일본에서 가졌던 왜곡된 대한국관을 시정하는 것과 동시에 반공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모국수학 제도의 취지로 하였다. 다음해인 1963년 2월에는 문교부에서 ‘재일교포학생 모국유학 특별조치’를 취하여 재일동포학생들이 정원에 구애 받지 않고 학교의 수용능력 내에서

---

<sup>4</sup>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민단 측에서는 모국수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민단, 민족학교를 비롯한 동포조직체에 기여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년 10명 전후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에게 학비를 국비로 보조해주는 특혜를 주었다. 입학전형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국어가 중시되었으며, 그 밖에는 주일대사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을 토대로 각 대학 및 학과에서 서류전형만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4년 3월부터는 문교부에서 민단을 통해 자비로 모국수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한 후 매 학기마다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고,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를 그 실행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모국수학 희망자의 증가에 따라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는 학생 지도 또한 담당하게 되었다. 1965년에는, 재일동포 학생 중 문교부의 추천을 받아 서울대학교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기한 내에서 대학원장의 신청에 의해 3월말 이후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가 주어졌다. 이는, 3월 말에 졸업식이 시행되고 4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일본 학제로 인해 재일동포들이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66년부터는 재일동포 중등·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정부가 주최하고 민단이 모집을 전담하는 단기 모국수학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 위치한 사립대학교를 매입하여 국립대학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모국수학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틀이 잡혔다. 1970년에는 모국수학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가 부수적으로 맡아서 하던 한국어 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내에 재외국민교육연구소가 부설기관으로 발족하게 되고 한국어 어학훈련

코스도 병설되었다. 1971년에는, 한국의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기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모국수학 과정이 고등학생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가 모국수학생의 고등학교 과정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였으며, 이 과정은 1998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1977년에는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연구소가 서울대학교 부속 재외국민교육원으로 개편되어서 학생 수용 및 지도를 비롯하여 해외동포를 위한 교재개발도 병행해서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모국유학제도’라는 명칭도 ‘유학’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어색하다는 지적이 있어, ‘모국수학제도’로 변경되었다. 1984년에 대만동포가 최초로 모국수학과정에 입학한 데 이어서 1988년에는 미국동포 자녀도 입학하게 되어, 재일동포만을 대상으로 했던 모국수학과정이 해외동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1992년에는 재외국민교육원이 서울대학교 부속기관에서 교육부의 직속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명칭도 ‘국제교육진흥원’으로 바뀌게 되었고, 2001년 국제교육진흥원이 재외동포 교육전문기관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제교육진흥원은 2008년 대통령령 제 20897호에 의거하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재외동포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교육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을 위탁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정된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의 평가 과정을 거쳐 1년씩 사업을 연장 위탁 운영하게 되었고 2013년 현재 5년째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이창기&김재갑, 1988; 민단 홈페이지; 2012



재외동포 모국수학 장·단기 교육과정 운영 성과 보고서;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재일코리안 사전」편집위원회, 2012). 다음은, 민단 내부  
자료에서 발췌한 것으로 연도별 모국수학 지원자 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 2-6] 연도별 모국수학 지원자 수

연도	수료자수			진학자수	연도	수료자수			진학자수
	장기	단기	계			장기	단기	계	
1962	11	-	11	11	1988	152	32	184	85
1963	10	-	10	10	1989	144	29	173	55
1964	2	-	2	2	1990	120	35	155	83
1965	14	-	14	14	1991	111	37	148	49
1966	43	-	43	143	1992	76	22	98	47
1967	81	-	81	81	1993	74	21	95	27
1968	68	-	68	68	1994	62	24	86	28
1969	91	-	91	18	1995	63	34	97	17
1970	124	-	124	15	1996	43	19	62	24
1971	144	-	144	88	1997	51	19	70	32
1972	124	-	124	41	1998	43	26	69	30
1973	99	-	99	-	1999	66	29	85	41
1974	145	-	145	89	2000	42	13	55	25
1975	121	-	121	84	2001	66	19	85	38
1976	97	-	97	65	2002	57	31	88	23
1977	95	-	95	71	2003	94	9	103	37
1978	125	-	125	86	2004	73	38	111	35
1979	132	-	132	85	2005	63	29	92	33
1980	93	-	93	60	2006	62	36	98	27
1981	61	18	79	31	2007	52	28	80	29
1982	63	26	89	23	2008	31	20	51	10
1983	72	23	95	52	2009	14	4	18	3
1984	73	23	96	55	2010	15	24	39	11
1985	86	26	112	62	2011	13	4	17	7
1986	99	32	131	60	2012	20	20	40	18
1987	111	23	134	63	2013	*	*	*	*
					합계	3,791	763	4,554	2,090

1. 상기 통계자료는 학적부와 종료대장의 기록에 의거하여 국제교육진흥원이 작성
2. 1973년은 학적부가 현재 남아있지 않아, 확인 불가.

(출처: 민단 중앙본부 문교국 내부 자료)

위의 표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모국수학 장·단기 교육과정을

거친 연도별 학생의 수와 진학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를 살펴보면, 1995년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하다가 200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민단 측은 이를 일본 사회의 경제 불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09년부터 학생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2009년부터 모국수학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이 국립공주대학교로 변경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주대학교는 공주에 위치하고 있어서 2008년까지 교육과정이 운영되던 국립국제교육원과 비교하여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위 표는 모국수학 장·단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본에서 직접 한국의 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의 수, 한국의 대학교·대학원에 교환학생으로서 재학한 학생의 수, 한국 대학교 부속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학생의 수, 한국 내 사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학생의 수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실제 모국수학생의 수는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 숫자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 ② 모국수학 현황

모국수학 제도가 실시된 초기에는 한국에 모국수학을 목표로 오는 거의 모든 재일동포가 장·단기 모국수학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으나, 현재는 장·단기 모국수학 프로그램 외에도 재일동포가 선택할 수 있는 모국수학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다. 아래는 정규·비정규 교육과정 여부로 분류한 모국수학의 형태를 정리한 표이다.

[표 2-7] 모국수학 형태별 분류

	교육과정	운영 기관
정규교육과정	학부·대학원 과정	각 대학교
	학부·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	각 대학교
비정규교육과정	국립국제교육원 모국수학 교육과정	국제교육원 주관 / 공주대학교 운영
	대학교 부속 한국어 교육기관 연수	각 대학교 부속 한국어 교육기관
	사설 한국어 교육기관 연수	각 사설 한국어 교육기관

우선, 정규교육과정은 한국 대학의 학부·대학원 과정에 입학하는 형태와 일본 혹은 다른 외국의 학부·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한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가 있다. 비정규교육과정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모국수학 장·단기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형태와 한국의 대학교 부속 한국어 교육기관 및 국내 사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형태가 있다. 각 형태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a. 국립국제교육원 모국수학 교육과정

국립공주대학교 산하기관인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을 위탁 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이후는 매년 평가 과정을 거쳐 1년씩 사업을 연장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09년 4월,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는 재외동포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교육센터를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 설립하였으며, 옥룡캠퍼스는 현재까지도 재외동포 학생들의 전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기획, 선발, 관리, 평가하고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국수학 교육과정은 외국에서 9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쳤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며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목표는 ‘모국 이해에 필요한 실용 한국어 구사 능력과 미래 국제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익혀 한민족으로서의 폭넓은 소양을 갖추고 국제 사회에서 활약할 세계인 양성하는 것’ 이다.

모국수학 교육과정은, 일년에 한차례 모집하며 8개월간 진행되는 ‘모국수학 장기 교육과정 1·2’ 와 일년에 두 차례 모집하며 3개월씩 진행되는 ‘모국수학 단기 교육과정1’, ‘모국수학 단기 교육과정2’ 로 나뉜다. 장기 교육과정은 한국의 대학·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표현 능력과 한국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기 교육과정은 한국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실용 한국어 표현 능력을 기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 한국사,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과 개인별 특기적성을 계발하는 활동 등이 혼합된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국수학 교육과정의 수업시수와 중점 교육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8] 모국수학 교육과정 수업시수

필수교과			선택교과	계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사		
14 ~ 15	3 ~ 5	3 ~ 5	2 ~ 4	22 ~ 29

※ 시수는 반 편성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2013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 모집안내 팜플렛)

[표 2-9]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의 중점교육내용

구분		중점 내용
필수교과	한국어	-기초적 의사소통 능력 배양 및 회화중심의 생활 한국어 습득 -대학(원)진학 및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배양
	한국 문화	한복과 예절, 한국요리, 사물놀이 등 체험위주의 실습을 통하여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 개념이해 및 문화 정체성 체득
	한국사	시청각자료 및 현장견학을 통한 한국역사의 흐름 이해 및 역사발전과정에 대한 지식 습득
선택교과		토픽심화반, 토론반, 논술반, 기초 한국어반 등
현장체험학습		박물관·과학관·기념관 견학, 병영체험, 역사문화 탐방, 도예체험, 한국요리 실습, 한옥체험, 고궁체험, 국토순례 등
특별활동		체육대회, 국내대학생 교류(버디프로그램), 입시설명회 및 면접 관련 특강, 선배와의 대화, 대학탐방, 홈스테이 등
동아리활동		수요조사에 의해 5~8개 반 편성 및 운영 예) 사물놀이반, 태권도반, k-pop 등 ※ 국립공주대학교 동아리와 연계하여 운영

※ 과정별 입학 대상자의 수요조사에 따라 맞춤형 주제별 교육과정 운영  
(출처: 2013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 모집안내 팜플렛)

모국수학 교육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한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한국교육원)에서 지원서를 교부 받고 접수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한국 공관과 더불어 민단을 통해서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정의 서류와 함께 제출된 지원서는 재외공관장이 검토 후 면접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하게 된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재외 공관에서 추천한 지원자에 대한 선발자 명단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과 추천기관에게 통보하고,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은 선발자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 및 초청장을 해당 공관장에게 송부하는 것과 함께 교육과정 입학자에게 입국 지원 및 등록, 기숙사 배정 등 실질적인 입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국수학 교육과정 입학자에게는 교육과정의 제공과 함께 4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를 살펴보면 우선, 입학이 허가된 재외동포 모국수학생은 국립공주대학교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하여 기숙사가 제공되며, 선발 과정을 거쳐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으로 마련된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과정생에게는 한국의 역사문화유적지 답사, 병영 체험, 한국의 발전상을 접할 수 있는 현장 견학과 같은 문화체험의 기회와 국내 대학생 및 재외동포 선배들과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한국의 대학·대학원에 진학하기 희망하는 과정생들에게는 진학과 관련된 상담과 정보가 제공된다. 진학·진로 및 상담을 담당하는 교사는 재외국민·외국인 전형을 중심으로 한 한국 각 대학의 다양한 전형에 따른 지원 서류 준비 및 원서 접수,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에 대한 맞춤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 희망자 중 90% 이상이 국내 대학·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개국에서 온 1460명의 재외동포들이 모국수학 장기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총 47개국에서 온 972명의

재외동포들이 모국수학 단기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모국수학 장기교육과정과 단기교육과정의 지역별·연도별 수료자 현황을 다음과 같다.

[표 2-10] 모국수학 장기교육과정 지역별·연도별 수료자 현황

지역별	연도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본	42	66	57	77	62	60	62	53	53	36	55	22	32	677
아시아 (일본제외)	34	43	50	39	16	22	23	25	45	71	76	11	15	470
유럽	5	5	10	6	5	7	8	5	21	18	18	2	1	111
북미	1	4	1	0	2	3	0	2	5	5	5	1	0	29
중남미	14	11	4	16	14	12	6	7	15	16	33	15	2	165
오세아니아	0	0	0	2	0	0	0	0	1	0	0	0	0	3
아프리카	0	0	0	0	0	0	1	1	0	1	1	0	0	4
중동	0	0	0	0	0	0	0	0	0	1	0	0	0	1
총 39개국	96	129	122	140	99	104	100	93	140	148	188	51	50	1,460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내부자료를 재구성)

[표 2-11] 모국수학 단기교육과정 지역별·연도별 수료자 현황

지역별	연도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본	13	19	31	28	38	30	36	39	장·단기과정이 통합됨				14	34	282
아시아 (일본제외)	50	68	52	42	22	28	32	25					27	37	383
유럽	22	16	13	25	25	17	21	16					7	5	167
북미	6	5	4	3	1	2	1	0					3	8	33
중남미	6	15	12	6	16	7	5	5					6	18	96
오세아니아	1	0	0	0	0	0	0	0					0	0	1
아프리카	2	4	1	0	1	0	0	0					0	0	8
중동	0	0	0	0	0	0	2	0					0	0	2
총 47개국	100	127	113	104	103	84	97	85					57	102	972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내부자료를 재구성)

## b. 학부, 대학원

국내 각 대학은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 및 정부의 지원으로 바탕으로, 다양한 입시 전형을 통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를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대학의 학위 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동포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일부 한국 대학에서는 일본에 위치한 한국 공관 및 민족학교에 입시 전형을 안내하는 홍보 책자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입시설명회를 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재일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들은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학생들과는 다른 전형을 통해 진학한다. 일본에 위치한 민단계 민족학교인 금강학원에서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재학생들을 위해 안내하고 있는 전형들을 살펴보면, 중·고교 해외 이수자 전형(3년 전형),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12년 전형), 외국어특기자 전형(글로벌리더 전형 포함)이 있다(금강학원 홈페이지). 위 전형들 중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동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①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12년 전형)와 ②외국어특기자(글로벌리더 전형 포함)전형이다. ①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12년 전형)은 12년간의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전형으로서, 정원에 구애 받지 않고 학교의 수용 능력 내에서 선발할 수 있는 정원 외 선발 전형에 해당된다. 이 전형은 통상적으로 내신성적, 영어 및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지필고사, 외국어 공인 성적, 봉사활동, 수상경력, 교내외 활동, 학업 계획서, 논술, 면접 등의 성적과 점수를 전형 요소로 하며, 세부 사항은 각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②외국어특기자(글로벌리더 전형 포함)전형은 뛰어난 외국어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다. 이 전형은 통상적으로 내신성적,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지필고사, 외국어 공인 성적, 봉사활동, 수상경력, 교내외 활동, 학업 계획서, 논술, 면접 등의 성적과 점수를 전형 요소로 하며, 세부 사항은 각 대학에 따라 다르다.

민단에서는 1990년까지 집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대학에 입학한 재일동포 모국수학생 중 약 3분의 1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단 측에서 추측하는 중도 탈락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이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중도 탈락을 하게 된다. 일본에서 성장한 재일동포 학생의 경우 본국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한국어에 덜 능숙하고, 이것이 수업 부진을 초래한다. 둘째, 대학 및 학과 선택을 잘못된 경우 중도 탈락하게 된다. 한국 대학교육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과를 선택하거나 입학하기만 하면 졸업이 가능하다는 안일한 생각이 중도 탈락을 야기한다. 셋째, 생활습관의 차이 및 문화·관습 차이로 중도 탈락을 하게 된다. 넷째, 한국 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재일동포에 대한 멸시나 편견을 경험하고, 좌절하여 중도 탈락을 하게 된다. 민단 측에서는 이러한 재일동포 모국수학생들의 중도 탈락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국수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모국수학 중 부딪힐 수 있는 난관에 대해 안내하고 이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민단에서 매해 국립국제교육원의 협조를 얻어 각 대학을 방문하여 입학관리처와 담당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재일동포들에게 모국수학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각별한 지도를 요청한다. 셋째, 민단의 각급 조직이 한국을

방문할 때 국립국제교육원을 방문하여 민족교육사업 실시에 따른 제반 업무협조, 국립국제교육원 운영에 대한 업무협조, 모국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업무 협조 등을 통해 유대를 강화한다. 넷째, 모국수학생회를 조직하고 지도하여 학생들의 연대의식을 함양한다(민단 홈페이지). 모국수학생회는 결성과 해체를 반복하였으나, 2010년 12월 몇 명의 모국수학생을 중심으로 재결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다. 교육배경, 국적, 소속단체, 모국수학의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현재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재일동포 중 희망자를 모두 회원으로 받고 있다. 현재 약 30명의 활동 회원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번꼴로 친목행사가 열리고 있다. 민단 본국사무소에서 활동비를 지원을 받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민단에서 주최하는 모국연수 프로그램에 도우미로 참가하는 봉사활동이나 합숙 등을 통해 친목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국의 각 대학에 문의한 결과 재일동포 재학생 현황은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학부·대학원에서 모국수학을 하는 재일동포 학생 수는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c. 학부·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

모국수학의 한 형태로서, 국내의 학부 및 대학원에서 6개월에서 1년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교환학생제도란,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협정이 체결된 국내 혹은

해외의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정규과정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재학하고 있는 일본 혹은 외국의 학부·대학원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선발 과정을 거친 후, 선발 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한국 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듣거나 연구 등의 학술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 많은 대학들이 영어 수업을 제공하고, 대학교 부속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학습 강좌 또한 제공하고 있어,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거나 능숙하지 않은 재일동포 학생들도 비교적 쉽게 한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한국의 각 대학에 문의한 결과 재일동포 재학생 현황은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학부·대학원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모국수학을 하는 재일동포 학생 수는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d. 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및 사설 한국어 교육기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각 대학의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 및 정부의 후원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기관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 교육 성장기에는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한국어 교육 기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전 지역에 걸쳐 한국어 교육 기관이 생겨났다. 2010년 현재 국내에는 약 120여개에 달하는 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이영숙, 2010).

국내 최초의 한국어 교육기관이며 현재도 가장 활발하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연세대학교 부설 한국어학당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정규 과정, 야간 과정, 최고급 한국어 과정, 여름 특별 과정, 3주 단기 과정, 대학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어있다. 교과과정은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 요리 실습, 사물놀이, 한국 공연 관람 등의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편성은 반편성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재외동포를 위한 과정 및 반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홈페이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사설 한국어 학원인 가나다한국어학원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정규반, 주말반, 오후 회화반/저녁반, 개인반, TOPIK반, 단기연수프로그램이 개설되어있다. 교과과정은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 요리 실습, 공연관람, 견학, 문화 특강, 영화 감상 등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가나다한국어학원 홈페이지).

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및 사설 한국어 교육기관은 학습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간만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많은 재외동포들이 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및 사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모국수학을 하고 있다.

한국의 각 대학교 부설 어학당 및 사설 한국어 교육기관에 문의한 결과

재일동포 재학생 현황은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대학교 부설 어학당 및 사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모국수학을 하는 재일동포 학생 수는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Ⅲ. 모국수학 동기의 다양성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떠나 공부를 하러 가는 행위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으며, 여러 가지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Kleinberg, 1970; Cohen, 2003 재인용). 재일동포들 또한 모국수학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할 때, 그 기저에는 자신이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사실이 항상 가장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등의 민족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는 재일동포들의 경우에도, 그 이면에 내재된 실제 목적이나 동기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크게 나누어 1. 뿌리 찾기, 2. 유학, 3. 이력 쌓기, 4. 탈(脫)일본, 5. 한류의 영향과 같은 5가지의 동기가 모국수학의 보다 직접적이고 주요한 동기로 독립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모국수학을 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는데, 매번 다른 동기가 계기가 되어 한국행을 택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다.

#### 1. 뿌리 찾기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재일동포 모국수학생들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뿌리 찾기’가 한국에 오는데 가장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뿌리 찾기’란 한국어나 한국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지식과 같은 민족적 소양을 키우고, 한국 생활을 통해 자신의 기원 및 민족 정체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하려는 것을 뜻한다. 한국에서 한국 생활을 체험하며 한국어 및 다른 학문을 수학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모국수학’은, 얼핏 보면 뿌리 찾기와 항상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 실제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민족적 소양으로 인식하고, 한국 생활 체험을 통해 이를 키워나가려는 응답자들은 일부에 불과했다. 이들은 한국어의 실질적인 효용가치보다는 한국어가 자신의 민족의 언어라는 측면에 더 주목하며, 모국수학을 통해 자신의 뿌리와 연관되어 있는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뿌리 찾기가 가장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여 모국수학을 선택하게 된 응답자들 안에서도, 뿌리 찾기의 목적 및 의미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다수의 응답자들은 일본에서 생활할 때부터 자신이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했으며, 자신의 민족의 언어인 한국어를 스스로 만족스러울 만큼 구사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나 위화감을 느껴 모국수학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일동포가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강리사는 계속 일본 학교를 다녔으나, 어린 시절 민단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토요일학교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다. 그녀는 토요일학교에 참가하며 너무나 즐거웠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 때의 경험으로 그녀는 한국어를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하기 위해 한국어 학과에 진학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진학하게 된 일본의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모국수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대학교에 입학한 뒤, 곧바로 한국의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동급생들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다.

“제가 그 모임(재일동포 어린이 토요학교) 때문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에 대해서. 제가 한국인이니까. 그리고 제가 국적이 한국이에요. 한국인데, 한국어 못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말 꼭 해야겠다.”(강리사)

일본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자란 김민준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는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일본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일본인 선생님들로부터 차별 받은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집안은 삼대에 걸쳐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도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으며 그의 아버지를 따돌린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를 다시 따돌렸다고 구술하였다. 그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자, 왕복 3시간의 통학 시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민족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게 되었다고 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국인인데 한국 문화를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겠다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저도 한국의 피가 흐르고 하는데 한국 사람 모르고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해서 한국에 왔지요. (···) 한국에 대해 알고 싶으니까, 직접 살고 싶으니까 한국대학교를 제가 결정하고 들어갔지요.”(김민준)



일본 학교를 졸업한 최미자는 어린 시절부터 재일동포라는 것이 “눈에 띄지 않도록” 생활하라는 부모님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일본 이름으로 생활하며 주변에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거의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아프니까 무시할 수 는 없”지만, “직접보고 치료할 용기가 없는” “여드름” 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하지만, 이후 중국에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한국인들과 만나 교류를 하고 또 일본에 돌아와 한국인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배우며 조금씩 모국수학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원가.. 그.. 예를 들면, 상처, 여드름 같은 거 생겼는데, 아프니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직접 보고 치료할 용기가 없는, 그런 게 재일교포라는, 한국에 대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 정말 깊은 생각 없이, ‘한번 보고 싶다’, ‘봐야 된다’, ‘재일교포로서 한국을 알고 싶다’ 해서 (한국에 왔어요). 가능하면, 현대 한국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거나, 전통적인 거에 관심이 있었죠. ‘많이 보고 싶다’고, ‘느끼고 싶다’고. 그런데 일단 3개월 어학당, 보통 3개월이라 그걸로 예약, 좀 결정하고. 그 후에는 좀.. 그러니까 미정으로.. 좀 가서 결정하겠다고 왔어요.”(최미자)

일본 학교를 졸업한 이순옥은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재일동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했었고, 한국어를 학습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진학 후 일본인 교사 소개로 재일동포 관련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 꼭 참가해야 했던 재단 주최 행사에서의 활동을 통해

점점 민족정체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녀는 스스로 한국 및 재일동포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며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였고, 이후 일본의 대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본명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본명선언<sup>5</sup>과 동시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일본인 친구들이 자신을 떠나갔고, 그녀의 전공이었던 유아교육 실습을 위해 일했던 유치원의 선생님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또한, 실습 기간 중 아이들에게 자신을 재일동포라고 소개했을 때 받게 되는 여러 질문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과 재일동포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졸업 후 일본에서 취직할 경우 자신이 겪게 될 ‘고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후 그녀는 한국에서 일년간 어학연수를 거친 후에 한국에서 취직하는 계획을 가지고 모국수학을 오게 되었다.

“저는 여태까지 일본인 이름으로 살았으니까 그 때 까지는 차별 같은 거 거의 안 받았는데 막상 제가 재일교포 본명으로 살아보니 사람들의 보는 눈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사회가 되게 이렇게 차가울 줄 몰랐어요. 좀 슬펐어요, 사실. 그냥 사람들이 좀 더 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제가 재일교포라고 밝히자마자 막 떠나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사실은 슬픈 것도 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따원가?’ 이런 식으로 느꼈어요. (...) 사람들이 제가 재일교포라고 알고 나서 부터는 너무 차가우니까 좀 저도 좀 답답하고, 당당하게 항상 재일교포다 말하고 싶는데 막상 말도 못하고. 한국에 대해서 음식 같은 것도 잘 모르겠고

---

<sup>5</sup> "민족명을 사용함으로써 코리안임을 선언하는 실천"(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재일코리안 사전」 편집위원회, 2012, p.188)을 뜻한다.

김치 같은 것도 잘 안 먹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뭔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재일교포면 한국, 우리 집은 이런 음식을 먹는다. 일본 사람이랑 좀 다르게 지낸다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특별히 별로 없고. 그리고 말도 못하니까 ‘말도 못하는데 왜 재일교포야?’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씩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지만 언어도 그냥 인사말 정도 밖에 못했으니까 실제로 한국어를 알아 들을 수 있거나 그런 실력이 안됐으니까. 그래서 취업할 때도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주변의 재일교포이신 선배라든가 친구들은 통명이 없고 본명 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이름 없고 한국 이름밖에 없는 사람들은 취업할 때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평소에도 차별 같은 거 엄청 많이 받았던 걸 보니까 저는 이러고 싶지 않다 생각해서 저는 어차피 한국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유학하기로 했어요.”(이순옥)

일본의 한 소도시에서 태어난 권지현은 학창시절 주변에 재일동포를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하였다.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비교적 자주 한국에 왕래하였으나, 부모님이 재일동포 학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추천했을 때 그녀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그녀는 재일동포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당시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깨져버리거나 다른 재일동포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혹시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자신이 있을 곳(居場所)이 없어져버릴 것만 같은 느낌”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권지현의 부모님은 비교적 차별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숙 여학교에 입학시켰고, 그녀는 주변의 일본인 친구들과 자신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를 한번도 만나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대학교 재학시절 권지현의 오빠와 언니가  
한국으로 모국수학을 왔었는데, 방학 때면 일본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한국어 교과서를 보여주며 한국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어  
자신도 점차 모국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모국수학을  
결심한 권지현은 대학 졸업 후 1년간 일을 하며 자금을 모아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내가 한국 국민이고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왔었어요. 엄마 고향에  
와서 이모들이랑 같이, 사촌동생들이랑 같이 놀고 그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거를 말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한국인이다는 느낌도. 한국말을 알아야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도 싫고. 언니, 오빠가 먼저 유학 왔어요. ○○어학당에.  
할아버지가 보내셨어요, 갔다 오라고. 근데 언니 얘기 듣고 재미있는  
거 같다고 저도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권지현)

임영호는 다른 응답자들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일본 중학교에 재학하던  
당시 뉴질랜드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발급받은 여권을 보고  
처음으로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 놀랐다고 한다.  
이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한국인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때  
알게 된 “나이가 많으면 가르쳐야 되고, 동생이 따라야 하고, 형이  
챙겨줘야 하는”, 한국의 “형, 동생 시스템”에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원래 뉴질랜드의 대학교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뉴질랜드로 갔으나, 그

곳에서 한국인들과 교류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그를 보고 어머니가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의 고등학교에 편입하게 되었다.

“패스포트보고 알게 되었지. 아, 한국 사람이구나 하고. 그 때 물어봤어 어머니한테. 한국 사람이냐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아빠도 한국 사람이냐니까 한국 사람이래. 다 한국인이었지. 근데 고등학교 유학가게 되는데, 그냥 여권만 한국이지 나는 문화도 생각도 개념도 다 일본인이었으니까. 근데 뉴질랜드 가가지고 왔는데, 거기 한국인이 진짜 많아.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 만나고, 같이 친하게 지내줬어 나랑. 근데 이제 그때 한국말 못했는데, 한국어 못하는데 너는 왜 한국 이름인데 한국말 못하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 그때부터 내가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뉴질랜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럼 대학교를 한국에서 가자고 해서 왔어”(임영호)

이대철은 일본 이름으로 일본 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본인의 의지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본명선언을 하였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일본인 학생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무술을 오랫동안 배웠던 경험이 있다. 마음속에 “언젠가는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고등학교 재학 중 받았던 근신 처분은 한국에 오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솔직히 대학교도 갈 생각도 없고, 취직도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근신 걸렸어요. 2주 동안 계속 집에 있었는데, 할게 없잖아요. 그 때 좀 한국어나 공부할까 해서 그 때부터 한국어 아야어어부터 좀 공부하기 시작해서. 아야어어같은거 다

배우고, 공부하면 더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갈 데도 없으니까 한국이나 갈까 해서 그 때부터 알아봐서 어학당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 한국인인데, 한국어도 모르고 안 된다는 느낌. 좀 있으면 성인 되잖아요. 성인인데 자기가 한국어도 모르면 자기가 장래에 한국인이라고, 나는 한국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 언젠가는 한국어 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 계속 어머니한테 말했었고, 한국 유학 가고 싶다고.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안 갈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때 그 근신되어서 좋은 기회였어요.” (이대철)

송지숙은 부모님의 권유로 한국 대학교에 진학을 고려하게 된 경우이다. 그녀는 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홈스테이를 경험하며 어학원을 다녔었다고 한다. 이때 그녀는 자신이 조선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신의 한국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이렇게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 대학교에 진학할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조선학교에서 공부하며 남한을 체험할 기회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며 남한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욕구도 모국수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구술하였다.

“엄마가 한국 대학교 어떠냐고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일본 대학교에 가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고2 때는 별로 안 정했었어요. 근데 아빠 아시는 분이 서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에 일주일 동안 홈스테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거기 있으면서 한국어 어학원 같은 것도 다녔거든요. 거기를 다녔는데. 저는, 그러니까 조선 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다 우리말을 할 줄 알거든요.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와

보니까 통하지 않고, 다른 단어도 많고, 모르는 단어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이렇게 못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국 대학교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내다가 고3 졸업해서 ○○대 다니게 되었어요. (···) 저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과도 대화를 해보고 싶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한국어로 그 조선학교 애들이랑 얘기를 해 본 적은 있지 밖에 있는 한국 사람이랑 대화를 해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서 간 거 같아요. (···) 조선학교는 어떻게 보면 좀 북한 계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저는 북한에도 가봤고 이제 남한에도 그냥 여행으로 몇 번 가봤는데 역시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학교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만 배우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좀 체험해 보고 싶다 라고.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생각도 했었고. 또 한국어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국어로 한국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송지숙)

다음은,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했던 윤수진의 구술이다. 조선학교를 졸업한 윤수진은 고등학교 시절 2주간 캐나다로 단기 유학을 갔던 경험이 있다. 그녀가 캐나다에서 다녔던 어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재일동포였는데, 그 선생님과 면담을 하며 영어권 국가의 대학교에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캐나다 단기 유학 후, 일본에서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자신이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스스로 정보를 검색하고 준비하여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조선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한국에서 공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한국 국적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 반년에 걸쳐

가족들을 설득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영어를 하기를 좋아했으니까 영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일본에 들어오면서 영어를 하도록 영어권으로 유학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깐 영어를 하기보다 한국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하면은 제 정체성이 어때지나 이렇게 따지게, 자기를 따지면서 그럼 차라리 한국으로 가면서 영어를 배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대학을 오게 된 거예요. (...) 제가 그 때 KNTV<sup>6</sup> 같은 데서 한국 프로그램이 일본에서 상영되는 그 때 봤던 게 일요일이 좋다? 엑스맨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때는 우리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네이티브 한국어를 들어보니까 제 언어랑 다르고 개네 문화도 나랑 다르고 내가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언어를 할 수 있어야지 역시 자기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점. 그리고 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국적은 한국인데, 한국이랑 조선인데 막 영어만 잘하고 혹시 무슨 한국인이 왔으니까 너 대접해 보라 했을 때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랑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 학과는 무조건 영문과였어요.”(윤수진)

일본의 한 소도시에서 일본 학교에 다녔던 김영훈은 고등학교 재학 중 민단에서 주최하는 모국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 리더로 참가했던 한 모국수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대학교로 바로 입학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무척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후, 원래 일본 대학교에 진학하여 한국어를 전공하려고 했던 김영훈은 한국

---

<sup>6</sup> 일본 내 한국 예능 방송 전문채널



대학교에 진학할 것을 결심하였다.

“고등학교, 그 때는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거기에 있는 한국어학과 다니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민단에서 하는 건데요, 모국연수 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국에 놀러 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때 한국 와서 재미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선배들 만났어요. 그분들이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을 보고 아 이런 길도 있다고 나오고. 그 때까지는 전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바로 나오고 다른 나라 가서 산다는 것이. 그런데 이런 길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 일단 한국 살고 싶은 거 첫 번째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 방법을 해보자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 원래 다른 외국에 관심 많았어요.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에 관심 많았었는데 국적 한국에 있고 솔직히 일본 사람 아니니까. 외국 나가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만약 한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없고 한국말도 못하면 그 말해도 뭔가 이상할 거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 갔을 때 제가 당당하게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게 제일 속상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게 제일 한국어 배우고 싶다는 계기였고.”(김영훈)

위에 소개된 두 구술자 윤수진과 김영훈은,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기 위해 모국수학을 선택하였으나, 이 배경에는 자신이 미래에 국제무대에 섰을 때 “한국어를 모르는 한국인”으로서 난처하거나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대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있었으며, 이후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제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에 영향을 받아 모국수학을 선택했으며, 이러한 성향은 그들이 모국수학을 경험한 뒤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학교를 졸업한 이광일은 “당연히” 조선대학교로 진학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대학 진학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모국수학을 하게 되었다. 한국어 연수를 마친 후,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한 이광일은 인터뷰 당시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모국수학 전까지는 한국을 방문해본 적도 없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일례로, 고등학교 시절 일본에서 유행했던 한국 영화를 처음으로 봤을 때 영화 속에 나오는 편의점을 보고, 한국에도 편의점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권유로 그의 형과 남동생 또한 1년간 어학당에서 모국수학을 하였으나 이 둘은 그 후 일본으로 돌아가 가업을 잇거나 전문학교로 진학하였다고 한다.

“(조선학교) 교육 받으면은 북한이 이제 최고고 결국은. 그러면은 북한이 최고라면은 한국이랑 미국이 떨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죠. 우리가 가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본 게 이제 북한뿐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 처음에는 제가 조선대학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니 스타일을 아닌 거 같아서 그냥 한국으로 한번 가볼래 이렇게. 1년간 놀아봐라, 한국에서. 어학당에서 1년간 놀고. 다니고 싶으면 가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고. 1년간만 다녀라 이렇게.( …) 우리 역시 아버님이 절대적인 존재기 때문에. 아버님이 말을 하면 우리 따라갑니다.”(이광일)

다음으로 살펴볼 이진순과 오태식은 모두 ‘뿌리 찾기’를 동기로 하여 대학원 재학 중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구술자들이다. 이진순은 조선학교와 일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일본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저가 ○○대학에 온 동기는, 저는 미술하기 때문에 한국의 현대미술을 배우고 싶다는 동기가 있었어요. 아이덴티티 문제는 놔두고, 저는 일본하고 한국에 둘 다 애국심 있어요. 양쪽에 흥미가 있어서,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생활해서 미술 역사를 배운다는 동기가 있었어요. (...) 그런데 미술이라는 것은 미술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 배경이나 그 사회적 문제에 아주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리서치 하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성하였냐는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미술은 직접 작품을 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 한국에 오겠다는 생각은 제가 미술 아티스트로 한다면 결정했을 때부터 있었어요. 언젠가는 한국 가서 조금 살아야 한다면. (...) 생활하는 것이 한국 문화를 경험 한다면 뜻에서 더 중요한 목적이지요. (...) 자기 나라 가서 자기 나라의 미술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그림인가라는 것을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이진순)

오태식은 일본 학교와 일본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스위스의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는 특히 탈북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원 졸업 논문의 주제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북송 사업을 통해 북한에 가게 된 그의 친척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는 반년 동안 교환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지내기로

결정한 동기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 번째는 한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어 아주 유창하게 써서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온 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내가 탈북자 문제 관심 있잖아. 그래서 직접 한국에 있는 탈북자 만나서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거에 관여하고 싶어서. (···) 한국어는, 네이티브처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좋다고. 탈북자 문제에 오래 일하고 싶으면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나는) 아직 표면적으로만 한국어를 하니까 정치적인 스피치, 연설할 때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완전 네이티브처럼 잘 하고 싶어서.”(오태식)

오태식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만, 그 자신은 미래에 탈북자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어로 연설을 할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두 대학원생, 이진순과 오태식이 모국수학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의 전공과 관련된 고민과 민족성의 탐색이 맞물려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유학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교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벗어나 유학하고 싶다는 욕구는 오늘날 대다수 나라의 젊은 세대들에게서 발견된다. 인터뷰 결과

재일동포들 역시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유학처’로서 한국을 택하여 모국수학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숨기며 생활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정수나는,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구술하였다. 인터뷰 당시 그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부모님은 귀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일본 공무원들과 재일동포 민족 단체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환멸을 느껴 귀화를 포기하였다고 한다. 정수나는 대학교에서 신문학을 전공한 후 취직을 희망하였으나, 일본 친구들과 같이 입사 원서를 신청하여도 자신에게만 원서가 도착하지 않는 등 차별을 겪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국적이 한국이라서 일어난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취직에 어려움을 겪은 그녀는,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역사를 더 깊이 배우기 위해 학부에 편입하여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그녀는 편입했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이는 당시 비어있는 시간표에 맞춰 수강할 수 있는 제2외국어 수업이 한국어와 아이누어<sup>7</sup>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후 대학원에 입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녀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일본에 소재한 한국 공관에 취직하게 되었다. 한국 공관에 취직한 이유에 대해 그녀는 당시 일이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아마 한국공관이 아닌 곳, 예를 들어 베트남 공관이어도 취직했을 거예요” 라고 구술하였다. 한국 공관에서 일하며 그녀는 업무를 위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였고,

---

<sup>7</sup> 일본의 소수민족인 아이누족이 사용하던 언어로, 오늘날은 거의 사어에 가깝다.

30살이 가까워질 즈음 일에 안주하기 보다는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유학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 영어권 국가에 유학을 희망했지만, 물가와 언어 장벽 등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인 유학처”였던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 쪽에 아니면 영어권 쪽에 대학원도 알아 봤는데 그거하고 한국어, 한국대학원도 알아보고, 어느 쪽인가 생각했는데, 역시 미국도 비쌌어요. 너무 비싸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제일 싸고, 생활비도 10년 전에는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으니까, 제일 그 가능성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거는 한국밖에 없네? 그래서 일단 대학원 시험 봤어요. 그런데 합격하고, 합격해 버렸으니까 갈까? 라고 해서”(정수나)

조선학교를 졸업한 고우리는 좀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일본 대학교에 진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첫 주는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규모의 학교와 학생수에 압도되어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곧 동아리에 가입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이를 극복하였다고 한다. 대학교 재학 중 줄곧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두고 공부했지만 진로를 수정하여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였다. “원래는 미국에 더 가고 싶었”던 그녀는 학비와 언어장벽과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언어도 어느 정도 되고 가깝고 싸며” 당시 “당장 나갈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어서” 한국을 선택하였다고 구술하였다.

“왠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로스쿨 안 가기로 했어요. (...) 갑자기.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공부 그만두고 어떻게 할까 진짜 많이 고민하고. 그때까지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쪽에 유학을 갈 생각이었는데, 아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뭘 할까 싶었는데, 대학원에 가고 싶기는 했어요. 들어갔을 때부터 대학원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원래는 제일교포에 대한 연구도 하고 싶고 그런데도 관심이 있었고 그쪽에서 제가 연구해야겠다 싶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취직활동<sup>8</sup>을 안 했잖아요. 로스쿨 공부만 했으니까 취직활동을 안 했고 다른 친구들은 취직을 내정 받아서. 그때 제가 유학을 가고 싶었으니까 아 이제 유학을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공부를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미국 갈 돈도 없고 비싸니까 그래서 어떻게 쉽게 해외에 나갈 수 없을까 그래서. (...) 고민을 하고, 일단은 한국 가볼까? 일단 언어도 어느 정도 되니까, 가깝고 좀 싸니까. 그래서 그런 단순한 계기로. 한국에서 꼭 해야겠다 그런 것보다도 한국말 하니까 그런. (...) 일본에서 나가고 싶고, 쉽고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어서. 원래는 미국에 더 가고 싶었어요”(고우리)

조선학교를 졸업한 박문희는 다른 친구들처럼 조선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으나 유학을 가라는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인해 한국에 오게 된 케이스이다. 그녀의 부모님은 민족 커뮤니티에서 자라왔으니 좀 더 넓은 사회에 나가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녀의 언니와 그녀에게 유학을 권했다고 한다. 인터뷰 당시 그녀의 언니는 미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 또한 미국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했으나, 영어에 자신이 없었던 그녀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

<sup>8</sup> 일본의 경우, 취직활동(就職活動)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서 3학년 때부터 이 스케줄에 의해 취직을 준비하고 4학년 1학기 이전에 회사에서 내정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취직 활동 시즌을 놓치는 경우,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

조선학교에서 배웠던 경험이 있고 자신이 좋아했던 한국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우리 가족이 조선사람 재일교포라고 뭉치는 게 아니고 사회에 나가고 시야를 넓히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도 계속 재일교포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많이 편했어요. 그런 네트워크. 그래서 저도 거기서 벗어나기 싫어서 조선대학교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유학 가서 그런 시야를 넓히라고 여러 사회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란다고 해서 가라고. 저도 (부모님께) 추천 받아서 많이 생각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라서 생각도 많이 바뀌는 시기여서 많이 고민하다가 조선학교 싫지는 않은데, 조선대학교보다는 한국에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아빠 엄마는 제가 미국 대학교에 가길 원했어요. 그때는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해요. 그래서 미국은 진짜 싫어서 계속 싫다고 했었는데, 유학은 가달라 그렇게 해서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선택수업이 있어서 그 때 국어, 조선말, 우리말?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처음에 보고 내가 일본말도 영어도 내가 좀 싫어해서 그런데 우리말이랑 한국말은 좋아했어요.”(박문희)

### 3. 이력 쌓기

일본 내에서 과거에는 별 효용이 없다고 평가 받았던 한국어는, 일본 사회의 국제화와 증가된 한국과의 교류로 인해 점차 그 효용을 인정받기 시작했다(정병호, 2003).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일부 구술자들은 모국수학을 통해 한국어를 익히고 국제경험을 갖추어 장래에 취업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이직시장에서 좀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다른 분야로 전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모국수학을 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 학교를 졸업한 조민희는 일본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보냈던 ‘토요학교’를 통해 한국어를 배웠다. 조민희는 어렸을 때부터 본명만을 사용해왔는데, 초등학교 때 자신의 이름과 관련하여 친구들이 자꾸 물어보고 따돌리는 일이 생기자 스스로 일본식 이름을 만들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점점 학년이 올라감과 동시에 따돌림도 사라졌고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생활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 대학교에 진학하였고, 1년간 한국에서 교환학생 신분으로 모국수학을 하게 되었다.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배웠으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 또 제가 세미나(ゼミ)<sup>9</sup>를 한국 역사를 배우는 세미나를 선택했으니까 한국에 가는 게 전공에도 맞는 거 같고 그리고 한국어도 더 좀 늘 수 있을 것 같고. (...) 원래 미국이나 유럽 가고 싶었는데, 그쪽으로 가려면 토플 봐야 되고요. 근데 한국에 오는 거는 제가 한국어를 좀 하니까 그 시험 필요 없었어요 그냥 면접보고 가세요~ 그런 거였어요”(조민희)

조민희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 그녀는 원래 미국이나 유럽으로

---

<sup>9</sup> 대부분의 일본대학교에서 졸업 필수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업이다. 일반적으로, 각 세미나(세미나)마다 담당교수의 전공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학생들은 이에 관련된 주제로 졸업 논문을 작성한다.

교환유학을 가고 싶었으나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한국어로 간단한 면접만 보면 갈 수 있는 한국을 고려하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자신이 비교적 취약했던 영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어 실력을 키울 필요성과 함께 전공과의 관련성도 고려하여 한국에서의 모국수학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당시 일본으로 1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앞두고 있었던 조민희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질문하자 일본 혹은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한국에서 살고 싶지는 않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민희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영어를 대체할 수 있는 ‘이력’으로써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하여 모국수학을 선택하였고, 취업이 쉽지 않은 경제 불황 시기에 자신의 이력과 민족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난관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력을 쌓기 위해 모국수학을 선택한 다른 사례로서, 송명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송명자는 부모님의 추천으로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 후 일본으로 돌아가 한 무역 회사에 취직하였고, 이 회사에서 한국 회사들과의 거래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 회사에 다니던 중 점점 그녀는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공부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일했을 때도 부모님이 한국에 가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일했을 때, 한국에 거래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많이 왔었는데요, 그때는 한국어 전혀 몰라서 영어로만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이 저한테, 사장님이 영어를 못해요. 저한테 너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만 이야기하고 어느 날 너랑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래처 회사원들한테도 영어로만 했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럴 때, 아 나는 좀 한국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라고 생각했구요. 그리고 더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도 영어, 일본어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하나 더 언어를 말할 수 있으면. (...) 일하면서 일도 별로 재미없고 좀 한계 그런 거 느껴서 생활을 바꾸고 싶어서. (...) 여기(한국) 아니면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다닐 계획인데요, 제 나이로 일본에 돌아가고 회사원 일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대학원 다니고 좀 높은 선생님 같은 일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송명자)

위의 구술에서 드러난 송명자의 모국수학 동기는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인들과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며 겪었던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느꼈고, 둘째, “더 좋은 일”을 얻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필요성을 느꼈고, 셋째, 업무에 한계를 느끼고 무리한 생활을 바꾸기 위해 모국수학을 결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동기들이다.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해 볼 것을 여러 번 추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그녀는, 일하며 겪게 된 언어상의 불편함과 불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그녀가 원하는 “더 좋은 일”을 찾기 위한 돌파구로서 모국수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년간 대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그녀는 현재 한국 대학교에 새로운 전공으로 다시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다. 이후

대학원에도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교단에 서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학교를 졸업한 하철수는 인터뷰 당시, 1년간 대학 부설 어학당에서의 모국수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앞둔 상태였다. 하철수는 일본 초등학교 재학 시절 주위 친구들에게 조금씩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의 태도가 차갑게 변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후 그는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함으로 인해 자신이 괴롭힘 받는다고 생각하여 한국을 싫어했었다고 한다. 이후, 일본 대학교의 복지 관련 학과에 진학한 후 그 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일본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에게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많은 고민을 한 후 친구들에게 고백한 후에도 그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재일동포여도 창피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을 전처럼 싫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공장에서 육체노동을 하던 그는, 일하던 중 부상을 입게 되어 입원한 것을 계기로 모국수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제가 일하다가 그.. 병원에 입원 하게 되었거든요. 조금 과로 해버려서, 뼈가 뭔가 이상 하다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역시 너무 심한 일은 할 수 없으니까. 역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입원하고 있을 때. 그러면 아버지가, “그럼 한국에 가는 거 어떠냐”고. 재일교포니까 도움도 되고. 앞으로도 도움되고 한다고.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진짜 한국말 쓴 적이 없고. “안녕하세요” 밖에 없었어요. (...) 역시 머리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역시 과로해서 몸 아파게 되었으니까, 역시 몸을 쓰지

말고, 머리를 써야겠다. 그래서 역시 뭐, 컴퓨터도 해야 되겠지만, 말(언어)이나 그런 거는 또 하나 할 수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아 나 재일교포인데 한국말 모른다 그러면 앞으로 공부해야지’ 그런 생각도 생겼어요.”(하철수)

위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육체노동을 하던 하철수는 부상을 입게 되어 입원 중에 사무직으로의 전직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 때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다. 그에게 한국어는 ‘자신의 민족의 언어’ 이기도 하고, ‘사무직으로의 전직을 위한 수단’ 이기도 하다. 하철수의 경우, 다른 모국수학생들의 사례에서 볼 수 없었던 특징이 한 가지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가 구체적인 한국의 교육기관을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점이다.

“○○어학당을 진짜 추천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세대에는 ○○대학교가 진짜 좋은 학교니까. 아들 다니게 하고 싶다. 게다가 아버지 세대에는 갈 수 없는 시대였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일본 학교에 계속 있어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버지는 할 수 없으니까 아들이 가야 한다고. 다른 친구들 얘기 들었는데, 역시 그럴대요. 아버지가 다닐 수 없으니까 자식이나 손자를 한국에. 그 ○○어학당, ○○대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하철수)

하철수의 아버지는 그에게 자신이 희망했으나 경험하지 못했던 ○○대학교에서의 모국수학을 자신의 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터뷰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의 부모들은 하철수의 아버지와 같이 모국수학을 적극 추천하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일부

응답자들의 부모들의 경우 모국수학에 반대하고 “한국에서 나와서 일본으로 와서 잘 됐는데 왜 또 한국으로 돌아가느냐” (박두진)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보고되어, 재일동포 1, 2세대 안에서도 자녀들의 모국수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느낌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탈(脫)일본

인터뷰 결과, 일부 구술자들은 일본을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모국수학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박두진은 인터뷰 당시 세 번째 모국수학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대학교 때 방학을 이용하여 2개월간 한국의 어학당에서 첫 번째 모국수학을 경험한 후,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전 반년 동안 다시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했다. 그 후 박사과정에 진학한 뒤, 그는 다시 한번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오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세 번째 모국수학을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번에 오기 전에 서울로 올까 타이페이로 갈까 진짜 고민했어요. 민족성 문제도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동경에 아주 지쳐서. 거기서 계속 살다 보니까 진짜 심심해서. 심심해서, 계속 동경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우울증 걸렸어. 취직했는데 그만두거나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세계일주 한 바퀴 하거나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거기에 내가 또 한국으로 와버렸다. 물론 한국에 오고 싶었던 마음도 있죠. 제 연구 자체가 주제가 그거니까.”(박두진)

박두진은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졸업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서울로 올까 타이페이로 갈까” 고민한 이유는 “동경에 아주 지치고, 진짜 심심해서” 였다고 설명하였다. 그가 세 번째 모국수학을 선택한 데에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고 싶다는 마음” 과 한국이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점도 작용하였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살고 있던 도시인 동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한 지방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두진은 대학교 진학을 위해 동경으로 상경하였는데, 그는 인터뷰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동경보다 서울이 훨씬 더 익숙하게 느껴진다고 설명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살고 있던 친척들과 함께 매년 방문했던 서울, 그 중에서도 명동은 그에게 “항상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곳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장소이다. 그에 비해 동경은 8년간 살았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느낌이 들고”, 그가 아는 사람들을 우울증에 걸리거나, 일을 그만두고 세계일주를 하거나, 밖으로 나가고 싶게 만드는 장소이다.

조선학교에서 학생회 간부까지 맡을 정도로 촉망 받는 학생이었던 고우리는 조선대학교 진학을 희망했으나,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일본 대학교에 진학하라는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일본 대학교에 진학하여 법학을 공부하였다. 인원이 적은 조선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일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일본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게 된 그녀는 당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충격으로 일주일 정도는 밥도 못 먹고 너무 무서웠” 다고 회상하였다. 또한 그때까지 그녀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 “심술 껄고, 깊은 이야기도 못할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나, 학내 동아리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일본인 친구도 많이 사귀고 좋은 추억들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대학교 졸업이 가까워졌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는 일본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일본 대학교 다녀보고 일본에서 숨이 막혀서 (息苦しい), 22년간 살아봐서 좀 숨이 막히게 됐어요. (...) 원래 일본에 안 좋은 생각 많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일본은 적의 나라 그런 것도 있었고, 일본에서 살면서 희망이 없다 지금 일본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본에 희망이 없으니까. 아직도 어렸으니까, 지금은 좀 생각이 다른데 제가 그 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22살이잖아요. 많이 어리잖아요. 22살”(고우리)

그녀의 표현대로 “일본에서 숨이 막혀서” 일본을 떠나겠다는 생각은, 그녀가 한류 드라마를 통해 접했던 한국을 가장 현실적인 유학처로써 선택하여 모국수학을 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세한 과정은 (5)한류의 영향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고등학교까지 일본 학교를 다닌 윤은미 또한 고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생활했을 당시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것이 강한 민족주의자였던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윤은미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태어난 그녀의 친척 언니들 중 여러 명은



이미 한국의 대학교에서 모국수학을 경험했다. 이는 일본에서 의대에 진학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집안의 풍조<sup>10</sup> 때문이었다. 이러한 풍조로 인해, 그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에 간다고 했을 때도 부모님으로부터 큰 반대는 없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녀는 이대로 일본에 돌아가기 싫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당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부모님 곁으로 돌아와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일본을 좀 싫어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1년 교환학생을 미국에 갔다 와서 대학교를 미국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을 미국에 갔어요. (...) 가족이나 친척들이 일본에 대한 불만 이런 게 많아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좀, 공부도 잘 해야 하고 일본 사람들 이겨야 되고 이런 걸로 심해가지고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사회에 대한 거 내가 갖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보단 가족 때문에. (...) 미국 갔는데, 4년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계속 있기 싫다, 일본도 가기 싫다, 갈 데가 없다 이러니까. (...) 미국은 진짜 힘들었어요. 공부만 계속 했으니까 쉬고 싶었어요. 일본은 가기 싫었던 게, 내가 젊은데 꿈을 가지고 미국까지 왔는데 다시 일본으로 가면 꿈이 다시 옛날 과거로 돌아 가는 느낌, 진짜 싫었어요. 가능성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다시 일본 가면 다시는 안 올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취직하면 계속 생활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싫었고. 더 넓은 세상 보고 하고 싶은 것 찾고 싶다 이런. 일본 가면 못하겠다고

---

<sup>10</sup> 윤은미의 부모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직업으로 의사나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이 비교적 적었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때 느낀 거죠. (···) 그때 부모님이 잠깐 한국으로 이사했어요, 살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 집이 있었으니까 그냥 온 거죠. 할거 없으니까 대학원이나 갈까.”(윤은미)

지금까지 살펴본 세 명의 응답자의 이야기를 통해, 일본을 떠나고 싶거나 일본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탈(脫)일본’과 관련된 욕구가 이들이 한국에서의 모국수학을 선택하는데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5. 한류의 영향

2002년도 NHK에서 방영된 겨울연가를 필두로 일본 전역에 불게 된 한류열풍은,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재일동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인터뷰 결과, 응답자 중 일부는 한류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모국수학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이들에게 한류는 ‘모국의 문화’로서, 잘 알지 못했던 모국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게 만들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으로 이어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앞서 소개되었던 강리사는 일본 학교에 다니며 참가했던 토요학교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어 ‘뿌리 찾기’를 위해 한국에 온 응답자이다. 동시에, 그녀는 고등학교 때 일본인 친구에게 소개받아 알게 된 한국 가수의 영향을 받아 모국수학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이전부터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였지만, 한국

가수의 영향으로 “빨리 한국에 교환 학생 가고 싶어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준비” 하게 된 것이다.

“친구가 빅뱅을 너무 좋아했어요. 일본 친구인데, 너무 좋아해서 한번 보라고 해서. 전 하나도 관심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집에서 한번 뮤직비디오 봤어요. 근데 충격 받아서. (...) 그때부터 진짜 제 인생 끝났어요.”(강리사)

앞서 ‘유학’ 을 위해 모국수학을 선택한 것으로 소개되었던 고우리는, ‘한류의 영향’ 또한 모국수학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사례이다. 조선학교를 졸업한 고우리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한국 드라마 ‘가을동화’ 를 계기로 “너무 친근하고”, “엄청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케이팝(K-POP)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인터뷰 당시 그녀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작곡가로서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녀는 한류가 그녀에게 미친 “임팩트” 가 없었다면 한국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옛날에는 둘 중 하나, 물론 일본인일 수도 있는데 북한인가 한국인가. 근데 북한인가 한국인가보다는 북한인가 일본인가 그쪽이 더 컸던 거 같아요. 근데 한국이라는 그런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게 다가온 거는 분명히 그 한류, 그때 한국이라는 게 갑자기 큰 원자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때까지는 일본, 북한. 근데 한국이라는 거는 정말 갑자기. (...) 그러니까 한류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전혀 몰랐고. 그냥 이름만 남조선. (한국에 대해서) 안 배워요. 그러니까 분단되기 전에 역사는 좀 북한을 중심으로 역사를 배우니까,

전혀 배우지도 않고 남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근데 한류라는 게 되게 우리에게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한글, 민족, 역사 그런 거는 되게 북한 의존적인 너무 민족적이고 전통적이고 촌스러운 그런 게 우리들의 것(私たちの物)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런 게 갑자기 왔잖아요? (...) 중학교 때 가을동화, 원빈. 충격. (...) 그 때 우리는 충격이잖아요. 그런 맛있는 남자가, 너무 이쁘고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랑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에 그렇게 맛있고,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우리는 너무 친근감을 느꼈어요. 그런 문화. 어떻게 봐도 일본 연예인들보다 더 맛있고, 더 노래도 잘하고, 엄청 자랑스러웠어요(すごく誇らしかった). 한국의 연예인이나 문화가.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북한의 그런 거 밖에 모르고. (...) 그때 정말 빠졌어요. 노래도 너무 좋고, 노래도 잘하고, 이쁘고. 근데 그 때는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에서. 근데 그 때 아마 학생들이 자기가 좀 그쪽으로 가고 싶다, 그쪽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받아들이고 싶다 그런걸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우리는 이거(북한)밖에 몰랐는데 이쪽(남한)도 있다. 그런 기대감... 학생들이 진짜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 한국에 유학을 간다거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에게 전혀 다가오지 않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 한국어로 드라마를 보는 거 자체가 처음이었고 우리랑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민족이라는 것에 이미 친근한 느낌도 있는데다가 내용도 좋았잖아요. 그때는 내용도 아주 좋고, 일본 드라마보다는 거리가 가까운 사람으로 느꼈어요, 우리는. 갑자기 가까운 느낌. (...) 저는 한류가 저의 인생에 미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정말 인생에 개입해왔어요.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는 임팩트가 엄청났어요. 한류라는게, 케이팝이라는 게 아마 저한테 계기였던 것 같아요. (...) 그 때 한국에 대한 그런 임팩트가 없었다면 지금 절대 이렇게 안 왔을 거예요.”(고우리)

조선학교를 졸업한 박미화는 조선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이 좋아서 학교를 다녔지만 학교의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졸업 후 일본 회사에 취직한 그녀는 “빨리 일본인이 되고 싶다” 생각과, 앞으로도 일본에서 살테니 일본 국적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서 귀화하였다. 하지만 몇 년 후, 우연히 보게 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좋아하게 된 배우의 팬미팅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고, 이 때 그녀는 일본 국적으로 바꾼 것을 후회하였다고 회상하였다. 이 첫 한국 방문 이후 그녀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어를 배울 것을 결심하였고, 일본으로 돌아가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어학당 입학 수속을 마친 뒤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싫었어요. 왜 일본에서 나는 태어났는데 왜 재일교포지? 일본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었죠, 어릴 때. (···) 그런데, 사회 나가도 계속 정말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이런 생각 계속 있어서, 20대, 한번 한국 드라마를 보고 아, 나 한국인의 피가 있다는 게 되게 기뻐어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 보고, 아 이런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는 한국, 한국 음식도 맛있고, 아 한국 정말 좋다,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 때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느꼈어요. (···) 처음에 한국 드라마 영향으로서, 이준기가 좋아서 (한국에) 왔어요. 이준기가 그 때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가 있어가지고, 이준기 볼 수 있는, 그래서 간 거예요. (···) 너무 좋은 거예요. 음식이 맛있어요, 한국. 그래서 아 유학하고 싶다, 좀 살고 싶다 싶어서 유학을 결정했어요. (···) 회사 그만두고 유학 왔어요. 큰 결정이었죠. 근데 후회한다 싶어서, 한번 한국에 이렇게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드라마 보기 전에는) 생각조차 못했어요.”(박미화)

## 6. 소결

이번 장에서는, 구술자들의 모국수학 동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구술자들이 모국수학을 결정한 배경에는 첫째, 뿌리 찾기, 둘째, 유학, 셋째, 이력 쌓기, 넷째, 탈(脫)일본, 다섯째, 한류의 영향과 같은 5가지 동기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구술자들은 두 가지의 주요한 동기로 인해 모국수학을 선택하였으며, 매번 다른 동기로 여러 번 모국수학을 했던 경험이 있는 구술자도 존재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구술자들은 뿌리 찾기가 동기가 되어 모국수학을 오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뿌리 찾기란 한국어나 한국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지식과 같은 민족적 소양을 키우고 한국 생활을 통해 자신의 기원 및 민족 정체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하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한국어의 실질적인 효용가치보다는 한국어가 자신의 민족의 언어라는 측면에 더 주목하며, 모국수학을 통해 자신의 뿌리와 연관되어 있는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부 구술자들은 유학이 동기가 되어 모국수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교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벗어나 유학하고 싶다는 욕구는 오늘날 대다수 나라의 젊은 세대들에게서 발견된다. 인터뷰 결과 재일동포들 역시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유학처’로써 한국을 택하여 모국수학을 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이 자신의 ‘모국’이라는 사실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생활비가 저렴하고 보다 쉽게 유학 갈 수 있다는 면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일부 구술자들은 모국수학을 통해 한국어를 익히고 국제 경험을 갖추어 장래에 취업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이직시장에서 좀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다른 분야로 전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모국수학을 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한국어가 자신의 민족의 언어라는 측면보다는, 일본사회에서 한국어가 갖는 효용가치 및 ‘국제경험’으로써의 모국수학에 좀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본을 떠나고 싶거나 일본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탈(脫)일본’과 관련된 욕구가 일부 구술자들에게 모국수학을 선택하는데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본에 “지쳐서”(박두진), “숨이 막혀서”(고우리) 모국수학을 하게 되었거나, 미국 유학 후 “다시 일본으로 가면 옛날 과거로 돌아 가는 느낌”(윤은미)이 들어서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구술자들은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모국수학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NHK에서 방영된 겨울연가를 필두로 일본 전역에 불게 된 한류열풍은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재일동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구술자들은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음악(K-POP) 등을 통해 한국을 접한 후, 한국에 호감 및 친근감을 느껴 모국수학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불과 10년 사이에 나타나게 된 변화로, 모국수학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다.

#### IV. 한국 생활의 경험

모국수학생들은 한국에서 모국수학을 하며 교실에서 본국의 한국인들을 접하고, 교실 밖에서도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인들과 조우하며 교류하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한국 생활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게 되는데,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 및 그 전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국관이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복수의 구술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모국수학 과정 중의 경험들을 주제별로 묶어 정리한 것이다.

##### 1. 한국인이 되기 위한 시도

그 수는 많지 않으나, 일부 구술자들은 한국 생활 초기에 본국의 한국인들에게서 발견되는 행동양식을 자신의 준거의 틀로 여겼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본국의 한국인들의 행동양식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답지 않은’ 요소를 지우는 과정에서 ‘차이’를 확인한다. 이는 “한국인보다 모자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의 발현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열등감의 극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순옥은 한국에 와서 그녀가 일본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높은 목소리를 버리고 “한국 사람답게” 낮은 목소리로 발성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선천적인 음색과



오랜 발성의 결과로 이미 굳어져버린 목소리 높이를 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녀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낮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 했다.

“일단 목소리 내는 거부터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내고 있는데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일본 사람들 항상 이렇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높게 하잖아요. 저도 이랬었거든요. 근데 풍물패 갔을 때 제일 먼저 지적 받은 게 그거였어요.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냐 이래서. 고쳐야 된다고. 사람들이 귀가 가렵다고. 왜 이러냐고 말하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지적 하나도 안 받는데. 사람들 막 그렇게 말하니까 ‘아 고쳐야 되는구나’ 이래서. (···) 힘들었어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잘 못 내겠더라구요. 의식해서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지금도 의식해요. 의식하지 않으면 금방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원래 이렇게 높게 높게 얘기 하는 편이에요, 목소리가. 근데 막상 좀 긴장을 해서 얘길 하다 보면 ‘아,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시나요? 들었을 때? (···) 한국 사람답게 얘기를 하려면 한국 사람들 보통 배에서 소리 많이 내니까 저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옥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배에서 소리가 나게 되었죠. 소리가 좀 달라요.”(이순옥)

앞서 소개되었던 박두진은 세 번의 모국수학을 경험했는데, 두 번째 모국수학을 할 당시를 그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되도록 (한국)말을 안 하게 됐어. 말을 하면 이제 아 외국에서 오셨죠? 그렇게 되니까. 택시를 타고 사람을 만나도, 말을 안 하게 됐어, 전혀. 그러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느끼니까. 아, 나도 다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됐고. (···)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예를 들어서 옷이나 스타일이 한국식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담배를 피우고 카악~뿔~! 라고 하거나, 일본에 있었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눈썹을 아주 얇게 했어. 그것도 그냥 한국식으로 좀더 손 대지 않게 됐고. 아예 그만둔 적도 있고. 그런데 일본보다 한국이 내가 보기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도. (...) 그때 노스페이스 유명했었나? 그것만 입고,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박두진)

박두진의 구술에 의하면, 그는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가 관찰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모방했다. 예컨대, 한국식으로 옷을 입고, 한국 남자들처럼 눈썹 모양을 바꾸고, 담배를 피운 후 한국 사람들처럼 침을 소리 내어 뱉는 식이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한국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환기하게 된다는 이유로 한국어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그가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본국의 한국인들처럼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고, 따라서 “좀 병에 가까웠”을 만큼 말 수가 줄어들고 어두워졌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 되고 싶은 만큼, 한국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그 결과로 자신이 한국인들에 비해 “아주 모자라고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구술하였다. 정병호(2003)는 한국어를 강조하는 것이 재일동포들의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한국어는 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늘 부족하고 덜 되었다고 인식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본국의 한국인들과 비교하여 원천적으로 놀리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에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지적은 박두진의 구술에서 확인되는 부정적인 경험과 일치하고 있다. 한국인을 “100퍼센트”로

보고 이들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은 무조건 모자란 것이라고 여겼던 그는, 이후 역사를 공부하며 한국, 북한, 일본 문제를 "제일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존재인 재일동포를 보다 큰 시각에서 바라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어 인식을 전환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열등감의 극복으로 이어졌다.

“옛날에 아주 내가 아주 모자라고 그런 느낌만 있었어. 한국 사람이 나에게는 이제 100퍼센트예요. 내가 한국 사람처럼 되어야 돼. 그런 식으로 나와 한국 사람의 관계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고 어떤 때는 내가 100퍼센트고 한국 사람이 나처럼 되어야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대등, 어떤 때는 내가 한국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 거고. 옛날에는 내가 계속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 못하고, 한국 사람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돼야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그때는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이 우리말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잘못 된 우리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이것도 우리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한국인들) 오히려 일본어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 이걸 좀 강하게 말하는 거지만, 그렇게 나는 모자라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박두진)

박두진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순옥 또한, 한국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본국의 한국인들만큼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이 한국인들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다고 여기며 일종의 열등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

공부를 통해 얻은 통찰로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했던 박두진의 경우와는 달리, 이순옥은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여 자신의 준거집단인 한국인들과 더 가까워지는 “목표 달성”을 통해 이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저도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재일교포인데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답답했지만, 그 때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뭐가 답답했냐면, 말도 못 하고 공부를 해도 끝이 없고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난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문학도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언어도 그렇고 이래서. 한국인이랑 비교 했을 때 너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 때는 정말 많이 억울했어요. 되게.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할까’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지금은 좀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웬만한 거는 알고 있으니까 목표 좀 달성된 거 같아요.” (이순옥)

## 2. 본국의 한국인들과의 만남

인터뷰를 했던 대다수의 구술자들에게서, 그들이 모국수학 시에 가지게 될 본국의 한국인들과의 교류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구술자들이 모국수학 중 만났던 한국인들은 첫째, 재일동포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진 한국인들, 둘째, 재일동포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규정짓는 한국인들, 셋째, 재일동포에게 우호적인 한국인들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일화 작업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부여하는 동일화

작업”(박수경, 2013, p.6) 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국수학생들이 한국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규정짓는지의 문제는 이들의 민족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 실제로 많은 구술자들은 한국인들과의 교류한 경험과 그 내용에 의해 민족정체성에 크고 작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재일동포에 대한 무지와 편견

인터뷰를 했던 구술자들은, 입을 모아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재일동포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한 구술자들의 반응은 보통 부정적이었으며, “실망”, “충격”, “분노”, “짜증”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하지만 일부 구술자들은 재일동포에 대해 무지한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더 명확히 하고, “자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었다.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일본에서 생활하던 김영훈은 한국에 온 후 한국인들에게서 발견했던 재일동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 “많이 실망”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인들을 원망하거나 탓하기 보다는, 자신이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재일동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에 있을 때는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이다, 그냥 그거였어요.

자이니치(在日)란 그런 생각보단. 여기 와서 제가 기대했던 거량은 많이  
다르고. 저는 많이 반갑게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  
그냥 저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니까 자이니치(在日)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거 때문에 많이 실망했어요, 처음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여기 많이 몰랐으니까, 여기 오기 전에. 서로 서로  
모르는 거라 어느 쪽에 책임 있는 건 아니니까.”(김영훈)

김영훈은 “일본 놈을 싫어” 하는 한국인 친구에게서 자신 또한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싫어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종차별’로 여기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옛날에 한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은 건데, 친구한테 나는 사실  
일본 놈을 싫어한다는 얘길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너를 싫어했다고.  
그냥 일본에서 왔다고 들었을 때 느낌 안 좋았었더라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인종차별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태어난 데나 부모님 그런 거는 자기가 고를 수 없는  
건데,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어떻게는 할 수 없는 거라.”(김영훈)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 한국어학당에서 모국수학을 했던 박두진은  
인터뷰 당시 한국의 대학원에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었다. 세 번째  
모국수학에서 그는 “드디어 한국 사람이랑 이야기”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기대처럼 “정말 고생 많았다고” 잘 해주기는커녕  
재일동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만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한국 사람들보다 오히려 일본 사람이 재일동포를 더  
잘 이해해준다고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이번에 반년 와서 드디어 한국 사람이랑 이야기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재일교포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충격 받았죠. 아 이거 오히려 일본 사람이 재일교포를 제일 이해해주는구나 그런 식으로 느꼈고. 그러니까 나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을 내가 모국으로 돌아온다 라는 느낌으로 왔는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일본 사람이 왔다 그런걸 느껴서. (...) (재일동포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어. 나는 정말 고생 많았다고 할 줄 알았고, 잘 해주겠지 싶었어.”(박두진)

본국의 한국인들이 재일동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관해 질문한 연구자에게 왜 한국인들에게 재일동포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지를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분명히 재일교포랑 다른 나라 교포는 달라요. 저도 여러 나라 교포를 만났는데, 역시 우리 교포가 특수하다, 재일교포라는 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왜 관심을 안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물론 외국인 전반에 대해서 한국에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재일교포고 같은... 역시 일본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요?”(고우리)

박미화 또한 한국에서 재일동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조선학교에서 재일동포에 대해 배웠던 것처럼 한국인들도 역사 수업에서 “조금만이라도” 자신들에 대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별로 한국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 같아요, 재일교포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당연히 재일교포가 왜 일본에 건너와서 일본에 많이 있는지

당연히 아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아~재일교포? 이렇게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으니까 아 모르는구나, 아니다 내 생각이랑 다르다. (···) 제 민족학교에서는 역사시간에 역사공부를 할 때, 집요할 정도로 식민지 때 왜 우리는 일본에 왔는데 왜 우리가 일본에 있는지 정말 매시간 매시간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한국 사람도 배워주면 좋겠어요”(박미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재일동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어 능력이 한국인의 필수 요소라고 여기는 한국인들을 많이 만났던 구술자도 있었다.

“해외동포의 입장도 좀 나라마다 다른데요, 일본은 좀 특별한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교포들이 한국말 말할 수 없게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한국 사람은 꼭 한국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송명자)

송명자의 위와 같은 구술은, 박수경(2013)이 본국의 한국인들이 재일동포의 언어권에 대해 지원과 관심은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이들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고 이러한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 문제시 했던 것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윤은미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될 때마다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동포라는 것을 밝혀왔지만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었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로 인해 그녀는 화가 나거나, 때로는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알 것이다라고, 재일교포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재일교포예요, 국적이 한국이다라면 왜 일본 아니냐고 그러고. <그럴땐 어떻게 대답하세요?> 안 해요. 화나가지고. 우리가 국적을 지켜왔는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안 바꾸고 불편한데, 일본 국적이면 얼마나 편한데. 우리가 민족심으로 안 바꾸었는데 이런 노력을 뭐를 위해서 하나 하면 그건 한국이 우리 조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상처받았어요 처음에, 지금도 받고.”(윤은미)

이순옥의 구술에서는, 그녀가 재일동포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다른 구술자들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활동하고 있는 풍물패 동아리 회원들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한국인들이 재일동포는 돈이 많아서 일본에 건너 갔을 것이라고 “오해”했을 때 이순옥은 화가 났다고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재일동포들은 돈이 많아서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이라는 오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오해이지만, 이순옥은 이것이 재일동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생겨난 편견이라는 측면에 더 집중하였고 그 결과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녀는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직접적으로 그들의 “오해”를 정정하였다.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순옥은, 자신을 일본인으로 대하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자신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으니 한국인으로 대해달라고 명확하게 밝히며 부탁을 하여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모습도 보인다.

“재일교포라고 해서 우습게 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특히 풍물패는 나가면 사람들 잘 모르니까 ‘돈이 많아서 간 거겠지’ 이렇게 이려고 있었는데 그 때 저는 참 한국에 적응이 빨리 돼서 그런지 그런 말 할 때마다 좀 화가 나면서 그냥 ‘응? 당신 뭐를 알아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 ‘아니예요, 아니예요’ 이러면서. (···) 보통 지금이야 일본에 넘어간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라든가 좀 부유한 집들이 유학으로 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같이 그 당시에 간 사람들 안 그러잖아요. 강제로 간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집은 좀 아닌 경우였지만. 그래서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돈이 많아서 일본 간 거겠지?’ 라든가 좀 안 좋게 보시거나 그랬을 때 좀 짜증나기도 했었어요. (···) 그냥 일본인 같이 대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었죠. 한국 사람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좀 풍물패도 나가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 전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하니깐 좀 그 때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좀 바뀐 거 같아요.”(이순옥)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서 재일동포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진 한국인들을 만났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심한 모욕을 겪었던 구술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에서 ‘쪽발이’란 일본인을 비하하는 말로서 강한 혐오감을 나타내는 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정병호(2003)은 한국인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을 민족의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보며, 이에 따라 서투른 한국어를 구사하는 재일동포들을 ‘반쪽발이’로 취급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고, 권혁태(2007) 또한 한국사회에서 재일동포에 대해 ‘민족’ 필터가 작동하여 이들을 ‘반쪽발이’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인터뷰 결과,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재일동포를 ‘쪽발이’ 혹은 ‘반쪽발이’로 취급하며, 구술자의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표현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하기까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재일교포입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일단 교포에 대해서 아는 (한국)사람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교포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교포인지, 그 것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갑자기 제가 수업 끝나고 과방 들어가니까 선배 한 명이 갑자기 뭐라고 쪽발이가 어찌고 잔소리를 저한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바로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만나자마자 (쪽발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김민준)

“여기(한국) 오니까 외국인 취급 당했어. 밖에 나가서도 한국말 이상하니까.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잘해줬어. 여기 와서 단순한 말 못하는 애 취급했었고, 날 때린 적도 있고, 고등학교 때. 와서 대놓고는 안 하지만 화장실에서 애는 쪽발이라고. 그 때 나는 하도 쪽발이, 쪽발이 그러니까 물어봤어. 친구가 일본인한테 말하는 거라고, 절대 좋은 거 아니라고. 그때는 말을 못하니까 몸으로 이렇게. 그 뜻을 알게 되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애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았지. 뭔가 나를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 뜻을 듣는 순간 뭐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못하니까, 힘으로. 그런 애들이 힘으로 이겨야 말 잘 들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힘으로 해결했지. 진짜 싫었어. 내가 그냥 일본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쪽발이 소리 들어야 할 정도로 내가 뭐 잘못했나. 일본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 고등학교 때는 별로 안 좋았어. 맨날 손가락질, 날 주먹하니까. 근데 그건 내가 신경 안 쓰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었어. 뭐라고 하고 싶은데 한국어로 못하니까. 고등학교 때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임영호)

“옛날에 공주에 있었을 때는 한번 맞았어요. 술집에서 화장실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보통 대학생들이랑 같이 갔는데 거기서 맞았어요. ‘너 한국인이냐’고 해서 ‘네’라고 했는데, ‘왜 한국어 못 하나’고 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하고 그러면 ‘한국인이 아닌데?’ 하고 맞았어요. 그때는 한국어 쉬운 것밖에 몰랐는데, 할 수 있는 한국어 다 쓰고 설명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이런 차별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다고. (...) 욕 같은 걸 들었어요. 쪽발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전 한국인이잖아요. 재일교포에 대한 지식 같은 거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 기분이 완전 나쁘죠”(이대철)

위의 세 구술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쪽발이”라는 모욕적인 단어를 들었던 경험이 있었으며, 이대철의 경우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했다.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에 편입하게 된 임영호는 언어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후부터는 “힘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놓았다. 조경희(2011)는 한국에서 재일동포들이 종종 외부인 취급을 당하고, 이는 그들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는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의욕을 꺾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의 구술자들은 외부인 취급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및 물리적 폭력을 함께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험들이 그들이 본국의 한국인들에 대해 갖는 인식 그리고 더 나아가 모국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다소 부정적인 사례들과는 달리, 재일동포에 대해 무지한 한국인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더 명확히 하고, “자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느끼는 구술자들도 존재했다. 인터뷰 당시 한국의 대학원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었던 미대생

이진순은 자신의 작품 창작을 위해 한국사회와 한국미술을 더 깊이 있게 배울 필요성을 느껴 모국수학을 선택한 경우였다. 그녀는 같은 수업을 듣는 한국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였다. 이 학생들은 재일동포를 만나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지만 재일동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솔직하게 그녀에게 질문하였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 “더 이론적으로, 분석적으로 생각” 하며 “제일 좋은 설명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생각하는 훈련”이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일본에 있을 때는 아이덴티티라는 것 잘 몰랐지요. 그 때 미술 작품을 만들 때 조금 생각해서라는. 그러니까 그런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공부에 그런 것도 일본에는 없으니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주 고민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정체성인가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많이 왜 다른 일본 사람보다 이렇게 고민이 많은가 라는. 이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의 정체성 그대로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를 더 이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국 친구가 많이 물어봤으니까. 해외 교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아니고 더 이론적으로 생각해야 하니까. 왜? 왜 재일교포는 일본으로 국적을 귀화 안 하는가 라는 질문이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요, 저에게. 그 때는 저는 제일 좋은 설명 방법을 생각해서 더 이론적으로 분석적으로 생각하지요. (...)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합쳐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싶었으니까, ○○대 친구에게. 그것이 제일 자기 훈련이 되었다라고 할까. 정체성을 생각하는 훈련이 되었다라는.”  
(이진순)

조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교에 바로 진학한 박문희 또한, 한국

대학교에서 재일동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재일동포 커뮤니티에서 지내며 재일동포라는 “확립된 입장”을 가지고 항상 본명으로 생활해 온 그녀에게 한국인 친구들은 굳이 그녀의 통명을 물어보았고, 항상 이 통명으로 그녀를 불렀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통명으로 불리게 된 그녀는, 자신을 불렀을 때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처음에는 통명이 낯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친구들이 자신을 본명으로 불러주는 것을 선호하지만, 어째서인지 자신을 통명으로 부르며 기뻐하는 것 같아 보이는 친구들을 보면 자신의 솔직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겠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을 통명으로 부르는 친구들로 인해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이러한 고민의 계기를 제공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일본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내가) 어떻게 봐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일동포라는 네트워크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자이니치(在日)라고 하면 아! 자이니치(在日)구나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자이니치(在日)라는 확립된 입장이 있고, 박문희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일본 이름이 뭐예요? 하야시 유카예요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일본에서 나는 박문희고 내 일본 이름은 하야시 유카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갑자기 일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되었을 때, 왜 내 일본 이름을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제일 처음에 한국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왜 내 일본 이름을 물어보지 이렇게 되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다 일본 이름을 물어봐요. (···) 내가 처음에 박문희라고 하고 재일교포라고 했었는데도, 그게 어딘가 가고 그 친구 속에서는 문희는 일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그때 그 당시에는

유카짱 말고 문희라고 불러줬으면 좋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카짱이라고 부른 것 때문에 내가 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덴티티 문제에서 한번 고민해야 할 문제였는데 그런 계기를 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고 내가 조선사람이고 재일교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많이 고맙죠.”(박문희)

## (2) 재일동포에 대한 규정 - 비(非)한국인

2011년 재외동포재단에서 내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0퍼센트의 내국민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재외동포 2, 3세'는 재외동포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0퍼센트 이상의 내국민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재일동포 3, 4세들을 재외동포라고 여기지 않고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구술자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본국의 한국인들이,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재일동포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진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일동포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을 재일동포에게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국수학의 동기를 막론하고, 이러한 태도는 많은 구술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식 및 인상은 무척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께 자신은 “절대 일본인이 아니다” 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여 한국의 대학교로 진학한 송지숙은,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재일교포라는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해 “열심히 설명”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송지숙에 대해 언급할 때 일본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억울해서 맨날 매번 매번 설명” 했다고 털어놓았다.

“일단 재일교포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 친구들이 다른 사람한테 저를 소개할 때 일본인이야 라고 할 때가 엄청 많아요. (...) 엄청 많이 되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재는 일본인이야’ 이 한마디로 끝내버리니까. 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 1학년 때는 너무 억울해서 맨날 매번 매번 설명했었어요.”(송지숙)

자신은 “일본 사람이 아니다 라는 아이덴티티” 를 가지고 있는 윤은미 또한 한국에서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재일동포라고 소개했을 때 돌아오는 “일본 사람이네” 라는 말이 “너무 듣기 싫다” 고 했다.

“택시타도 제가 처음에는 한국어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어디서 왔니? 이러면 일본교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거 맞는데 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일본 사람이 아니다’라는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도 싫었어요.”(윤은미)

한국의 대학원에서 재학하고 있는 정수나는 같은 연구실 학생들이 자신을 “일본 사람으로서 대접”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연구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일본 사람으로서 대접해요. 그래서 ‘아, 젊은 분들은 한국인으로서 전혀 생각하지 않구나. 일본 사람으로서 생각하시는구나.’ (···) 재일교포가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정수나)

‘뿌리 찾기’를 주된 동기로 하고,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강리사는, 한국에서 본국의 한국인들과 많이 이야기하고 친해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그녀에게 보인 태도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제가 교포라고 하면 어! 한국 사람이네 이러는 사람이랑 어! 일본 사람이네 이런 사람으로 나뉘는 거 같아요. (···)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어 고맙다, 나를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 진짜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 어떤 사람한테, 제가 교포라고 말하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 역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떤 한국 사람 한 명은 같이 놀면서 농담을 하면서 너 한국인이잖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잖아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진짜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저도.”(강리사)

강리사는 자신을 재일동포라고 소개했을 때 일본 사람으로 바라보는 본국의 한국인들이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각각 나뉘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답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두진 또한 한국 사람들이 그에게 보인 태도로 인해 다양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보통 내가 말할 때까지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한국 국적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여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고. (...) 여권 갖고 다녔어.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에 사는 게 더 좋으니까 내가 설마 아직도 한국을 모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생각 안 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본에서 사는데, 일본이 더 잘 사는 나라인데, 재일교포라고 해서 아직 한국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나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가 안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 (...) 그땐 아주 내가 강하게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박두진이라는 이름만 썼어요, 토마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박두진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여권도 보여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토마로 부르고. (...) 그 사람은 일본을 좋아하고 뭔가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보다 내가 일본 사람이라는 게 뭔가 자기에겐 더 좋은 것처럼. 나를 계속 토마로 부른 사람도 있었어.”(박두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박두진은 한국 생활 초기에는 “강하게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한국 이름만 사용하며,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재일교포이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매번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그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믿지 않았으며, 그가 한국인에 가까운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는 그를 굳이 일본 이름으로 불렀다. 이렇듯 적극적으로 자신을 한국인으로서

정체화하고 이를 표현했지만 주위에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일본인으로 보는 상황에서, 여권은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내가 몇 번이나 자기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두 시간쯤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너는 일본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 그리고 내가 여권을 보여주면 어? 한국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 부동산 할 때도 내가 계속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외국인은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여권) 보여주면 어? 그럼 되는데 이러니까. 친구도 보여줬어, 많이. (보고 나서)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안 보여줘도 내가 갖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했어.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는.”(박두진)

위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 여권은 그에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로 인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일종의 ‘증명’ 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를 일본인으로 보는 한국인들에게도 자신이 한국인이란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 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한국인들과 “싸우고” 상처받은 과정을 거친 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그 전까지 일방적으로 상처 받고 분노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인들이 자신과 같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재일동포들이 한국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잖아. 근데, 아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좀 상처를 받고,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그게 재일교포구나,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 근데 그거 뭐 포기한 거 아니라 뭔가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냥 그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재일교포도 그런 설명을 잘 안 했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거고 이제 앞으로 나나 그런 경험이 있는 재일교포들이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 태도가.”(박두진)

본국의 한국인들에게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란 말을 듣기를 희망했던 권지현은, 한국인들이 자신을 일본인으로 규정하고 대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 확인했다고 한다.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밝히자, 택시 기사로부터 ‘쪽발이’라는 말을 듣거나 클럽에서 재외국민 신고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요금보다 비싼 외국인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았던 경험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그녀는 이런 경험을 한 뒤 “실망하고 속을 닫거나” 충격을 받고, 화도 났다고 회상했다.

“한국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를 보면서 ‘같은 한국 사람이네’ 라고 해주는지 ‘아, 재일교포는 일본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지. 궁금하고, 불안하고. (...) 재일교포. 저희랑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좀 슬프잖아요. (...)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고... 음...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이란 말을 듣고 싶었어요. (...) 근데 뭐 한국 사람이란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니까 지현씨는 아니죠?’ 이렇게 얘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에 나는 들어가지 않았구나 라는 느낌. (...) 그런 거도 얘기 들었을 때 재일교포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듣는. 처음에는. 진짜. 실망했고 속 달았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 진짜 충격적인 일 있었어요. 택시 탔어요. 재일교포 친구들이랑 같이 타서 그 때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한국말도 할 수 있고. ‘아저씨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주세요’ 얘기하고 ‘얼마나 걸려요?’ 이런 얘기는 한국말로 하고. 친구들이랑은 일본어로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희 재일교포예요.’ 했는데 ‘어, 쪽발이’ 이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때. 근데 저는 그 때 아마 그런 말을 몰랐어요, 아예. 쪽발이라는 것도 몰랐고 반쪽발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친구가 ‘아, 내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 왜 그래?’ 그랬는데 쪽발이라는데 차별하는 말이라고. 처음으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아, 한국 사람이 재일교포를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크게 느꼈죠. 그거보다 가벼운 얘기도 있는데, 친구가 일본에서 놀러 왔어요. 근데 클럽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 평일이라 몇 시까지 가면 입장 무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갔는데. 그 입장하는 어떤 직원이 외국인은 1000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그렇구나’ 하면서.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그렇게. 거주신고증이라는 게 있어요. 재외국민 신고증 있어요. 이거 이거 재외국민 이러니까 안된데요. 외국인이라고. 재외국민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 때도 많이 느꼈죠. 권지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안 내고 갔어요.”(권지현)

아래 구술자들 또한 본국의 한국인들에게 자신을 재일동포라고 소개했을 때,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일본인이라고 하거나 자신을 일본인으로 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이 때 구술자들은 분노를 경험하거나,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가 거의 다 여기서는 재일교포라고 하면 아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인지는 제가 잊었는데 한번 재일교포라고 하면 일본 사람이네 이렇게 하고. 재일교포는 일본인 이잖아 그런 사람이 한번 있어서, 그때는 좀 일본어로 불끈해서(むっとして) 아 아인데 막 이런. (...)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 그럴 때 뭐라고 못하는 사람이라서, 생각 안에서만 왜 그러는데 하면서도 밖으로는 아, 네.”(박문희)

“처음에는 되게 사람들이 신기해 하면서 이렇게 대해 주는데 점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일본인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한국인이겠지만, 너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일본인이지? 국적은 어느 쪽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스트레스가 되어가고, 저도 모르게. (...) 반 친구들 보더라도 ‘너는 일본인이야’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한국어 못하니까 어떻게 설명 못하고 그냥 ‘일본인이지 그래 맞아, 맞아’ 이러면서 넘어가니까 점점 내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윤수진)

“저는 뭐 일본에서 온 재일교포라고 그러죠 한국말 모르니까 한국말 배우러 왔다고. 솔직히 말하면 뭐 90%정도는, ‘아 왔으니까 한국에서 잘 지내세요. 기회도 좋으니까’ 이러고 가끔 아닌 사람도 있었고. ‘일본 사람이잖아’. 그런 말. 당연히 하죠. ‘재일교포인데 왜 한국말 모르냐’ 그러면 ‘일본 사람이잖아’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나 할 수 없어, 한국말. 그래서 한국말 배우러 왔는데 아직 멀었다 생각 들었었는데. (...)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진짜 그때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다는 생각”(하철수)

### (3) 재일동포에 대한 우호적 태도

많은 구술자들이 모국수학을 하며 재일동포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들을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호적 태도’는 이들이 재일동포여서 특별히 더 좋은 대우를 해주거나 이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 재일동포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들의 ‘우호적 태도’가 도리어 자신을 슬프게 한다고 보고한 구술자도 있었다. 아래의 구술들은, 재일동포들을 환영하는 한국인들과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술자들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교포라서 환영 받았을 때도 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제가 왔을 땐데 ○○대 가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타고 가는데 어느 아저씨가 오더니 일본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 일본어 할 줄 아는 교포인가’ 이러니까 자기는 일제시대 때 일본어 교육을 받았으니까 일본어를 할 줄 안다 이러면서. 우리가 ○○대를 처음 왔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그 아저씨는 산책을 하러 왔나 모르겠는데 친절하게 그 일본인이 아니라 교포라고 알았을 때 ‘어, 한국어도 조금 아시네요’ 이러면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런 경험도 있었고.”(윤수진)

“제가 가르치는 과외 학생이 있는데. 제가 일본 문화랑 한국 문화 말하면서 일본은 이래요, 한국은 이래요 이렇게 말할 때 일본 사람으로서 말하다가 학생이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박미화)

“일본에서 왔다고 했는데, 재일교포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는 한국인이니까 자주 오라고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좋았어요, 진짜.”(이대철)

“일본에서는.. 뭔가 벽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표정에 안 나오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계속 말해요. 한국에 공부하러 왔다. 그랬더니 사람들도, 아 진짜 그럴습니까? 뭐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말해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으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국 생활이 재미있게 되었죠.”(하철수)

“부산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고, 빨리 친해지고. 뭐 주변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친구처럼 이야기를, 인간관계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기뻐요. 좋고. 처음 만나는 식당 아저씨인데도 완전 친구처럼 이야기 하고, 처음 만났던 남자아이인데 친구처럼 말하던지, 안내해주던지 다 해주고 이런 것이 기분이 좋았어요.”(김민준)

재일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환영은, 때때로 민족성과 한국어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김숙자는 처음에는 환영해 주던 한국인들이, 시간이 지나며 점차 부각된 자신의 이질성 때문에 자신을 한국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다르게” 여기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하였다.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교포라고 이야기했고 일본 이름도 없다고 하면 많이 좋아해주는 한국 사람 많았어요. 어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역시 제가 한국 사람이라 성격이 다르고 말도 좀 모자라니까 음... 점점 한국인 안에 있었던 제가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밖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한국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이름 있고, 한국말 좀 할 수 있고, 여권도 한국이면 한국 사람이다라고 기쁘게 생각해주는 거 같아요. 근데 한국어를 못하는 교포를 보면 어 왜 한국어를 안 배웠냐고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조민희)

한 구술자는 한국인들이 자신이 재일동포여서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슬프게 만들기도 한다고 말하였다. 박문희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생각이 자신의 이질성에서 기인한 것 같이 느껴져서, 자신을 “그냥 한국 사람인 것처럼” 대해주면 좋겠다고 털어놓았다.

“내가 교포인데, 교포도 같은 민족으로서 봐줬으면... 자기나라 사람이고, 같은 민족으로서 봐줬으면 기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같은 민족으로서 편하게, 특별감 없이 그냥 해줬으면... 교포니까 더 잘해줘야겠다 그런 게 오히려 더 슬프기도 해요. 아, 나는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나는 싫어서 그냥 한국 사람인 것처럼 그냥 해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박문희)

### 3. 경계인으로서의 소속 선택의 상황

한국 국적과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일본어를 모어로 하고 있다는 다소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재일동포들은

한국에서 경계인으로서 생활하게 된다. 이들은 각종 규칙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없거나, 예외에 해당하게 되어 혼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컨대, 일본 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을 통해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 대상 장학금을 받지 못하며, 동시에 한국어가 모어가 아니어서 외국인 대상 수업을 수강해야만 하는 식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일동포들은 자신의 소속을 스스로 정하거나 넘나드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구술자들은 재일동포들이 일본어를 모어로 하고 외견상 일본인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경우 자신을 일본인으로 소개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부 구술자들은 모국수학 과정에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취사 선택의 단계를 거쳐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자의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타의에 의한 경우도 존재했다.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관계로 대학교에서 외국인 수업을 수강해야 했던 박문희는, 이 수업에서 출신 국가별로 그룹을 나눌 때,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일본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도 “내가 일본 쪽으로 가는구나”라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수업으로 인해,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수업을 듣는 상황과 일본 그룹에서도 일본인이 아닌 재일동포로 소외감을 느끼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부정적으로 경험했다고 털어놓았다.

“외국인 수업을 할 때 내가 재일교포인데 속하는 건 일본인 그룹에 속한다고 할까.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미국 사람은 미국, 유럽 사람은 유럽, 일본 사람은 일본 이럴 때 어떡하지 했는데 당연히 내가 일본 그룹으로 갈 때 나 자신도 아 내가 일본 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나라 사람들이랑 하고,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거는 외국인들이 받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무조건 문희씨도 일본에 가세요 이랬고, 나도 스스로 일본이지 하면서 가서 그런걸 생각하면 교포인데 지금 제가 외국인들이 듣는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왜 난 이런 수업을 듣고 있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소속도 일본 소속 그렇기 때문에 편안히 갔는데 그 속에서도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소속이지만 ‘문희는 교포니까 한국어 더 우리보다 잘하지?’ 이런 질문을 하고, ‘왜 이 수업 들어요?’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일본 사람 속에서도 소외감 이런 것이 좀 느껴보고 그때는 저는 한국인 속에서도 못 들어가고 일본인 속에서도 다른 사람으로서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싫고... 싫었어요.”(박문희)

외국인 수업을 들으며 “한국인 속에서도 못 들어가고 일본인 속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험을 했던 박문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강하는 글쓰기 수업에서는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자신의 “일본 사람에 더 가까운” 면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그녀는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속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식으로 “바뀌서 하고 있다”고 했다.

“제가 한국어 수업을 들었을 때에는 제가 일본에서 자라서 제가 한국어를 못해요 그렇게 했었고, 사고와 표현이라는 글쓰기 수업에서 모두가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인데, 그럴 때에는 제가 교포라고 하면 좀 수준이, 외국인이 되는데 외국인 속에서도 교포니까 좀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애는 교포니까 할 수 있겠지? 그런 게 나한테 좀 부담이

있어서 그럴 때에는 저는 일본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에 더 가까워요 그렇게 더 못하는 사람이 되고, 수준을 낮춰서 할 수도 있고, 친구랑 지낼 때에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더 기뻐해주는 한국 사람들도 많아서 그럴 때에는 한국 사람이예요 이러면 식당아줌마가 잘해주고 일본에서 왔구나 하고 한국 사람이예요 교포예요하면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바꿔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박문희)

하철수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한국 생활 초기에는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자신을 자주 일본 사람으로 소개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박수경(2013)이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재일동포들이 자신을 보는 “폭력성에 되받아 칠 말이 부족하거나, 너무 당황해져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기도” (p.6-7)한다고 분석했던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도 친구랑 만나고 친구도 한국 사람이었는데 친구 데리고 온다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학당 친구였으니까 다 편하게 다 외국사람이다. 그런데 그때 나 한국말 못하니까 일본 사람인척 하는 게 낫겠지 하고 생각을 한 적이 있고. (...)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한국말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하철수)

일부 구술자들은 한국 생활 중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며,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소속을 어떻게 밝히는 게 좋을지 ‘체득’ 하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지현의 경우, 한국 생활 초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자신이 재일동포라고 소개하였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며, 자신을 일본 사람이라고 밝히거나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면

“반응이 좋을 때”가 많은 것을 느끼고 이에 따라 행동할 때가 있다고 한다.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반응이 좋을 때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 모임이나 그런 데에서. 그리고 외국인을 잘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외국인을 보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신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말 하면 좀 실망스러운. ‘잘 하시네요’ 하면서. 열심히 자기는 ‘곤니치와’ 이렇게 일본말 쓰려고 하는데 제가 ‘아, 그냥 한국말로’. 그러면 ‘아’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일부러 못하는 척 하면. 그 분도 기분 좋게 많은 일본어를 열심히 열심히 하시고.”(권지현)

윤수진은 한국 생활 중 일본어로 대화하는 자신과 친구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욕을 퍼붓는 한국인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그 한국인과 “비슷한 냄새”가 나는 한국인들에게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소개하게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교포라고 했을 때 약간 적대심이나 반일 감정을 가진 분들은 교포라고 해도 어차피 일본서 왔다는 걸로 욕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런 약간 일본에서 왔다는 거...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본어를 쓰고 있으면은 너는 어디 나라 사람이냐. 한 번 그런 사건 있었어요. 제가 교포 오빠랑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그 오빠랑 역시 우리는 일본어 편하니까 일본어 얘기하니까 뒤에서 어느 부부 아저씨가 보더니 ‘니들 여기가 어디 나라고 무슨 말을 쓰느냐’ 이러면서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한국어 쓸 줄 아네’ 그러면서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일본인이냐고 그러니까 ‘교포예요’ 말을 하니까 교포면은 한국어 할 줄

아니까 한국어 왜 안 쓰냐고. 그래서 그 부부가 정류장까지 내릴 때까지 한 15분 동안을 계속 욕을 붓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버스, 우리는 서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 앉아 있었는데 어느 한 명도 그거를 말리는 사람도 안 나오고 그냥 우리는 그 아저씨 내릴 때까지 침착히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뭐지. 약간 흥분할 거 같은 세대에는 그냥 ‘아, 네. 일본인이예요. 한국어 못해요’ 이렇게 한국어 못하는 척을 하면서 지낼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 그 전까지는 거기까지 제가 일본인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니깐 누구 만나고 교포라고 하면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아 이럴 때 일본인이라고 써야 되는 경우가 있구나.”(윤수진)

또 다른 구술자인 정수나 또한 윤수진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이나 일본인의 “느낌”을 보고 판단한 후, 취사 선택하여 자신을 한국인 혹은 일본인으로 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원가, 그쪽에 사람들은 원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바로 한국 사람인 척하고, 원가 그쪽에서 원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원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일본 사람인 척 하고, 진짜. (...) 축구 응원할 때, 원가 한국 사람만 있으면, ‘저도 한국 사람이다’하고, 일본 사람 있으면 ‘일본 사람이다’하고 주체성 없이... 귀찮을 때는 그냥, 여권이 필요한 데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고, 여권이 필요 없을 때는 일본인이라고 하고, 상황에 따라.”(정수나)

다른 구술자들이 처했던 상황과는 다르게 타의에 의해 자신을 일본인으로 소개하며 지내게 된 구술자도 있었다. 인터뷰 당시 이광일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가 맡은 일은, 한국의 여러 상점이나 업체를 방문하여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일본어로 정리하는 것이었다. 한국에 소재한 이 회사의 사장은 한국인이었는데, 그는 이광일에게 업무 시 일본 이름을 사용하며 일본인으로 행동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이러한 요구에 수긍하고 이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회사에서 취재를 할 때 한국 이름을 쓰면은 또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같은 나라 사람인데 이렇게 기사를 써달라 이런 게 시끄러워가지고 사장님이 할 수 있으면은 일본 이름을 써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상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이광일)

한편, 복수의 구술자들은 본국의 한국인들이 자신에게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 소속인지 선택하기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소개된 사례들이 외면적인 소속과 관련된 사례들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부터 소개될 사례들은 좀 더 내면적인 귀속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한국과 일본 중 이들이 좀 더 귀속의식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 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본국의 한국인들은 구술자들에게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거나 스포츠 부문에서 한일전이 열리면 어느 나라를 응원하는지에 대해 자주 질문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동포들에게 ‘한국’ 과 ‘일본’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잔인한 질문이다. 재일동포들은 자신이 기원을 둔 한국에 소속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일본에도 소속감 및 친근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일동포들이 복합적이고 혼성적인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 하나의

소속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때때로 그들을 곤혹스러움과 마주하게 한다는 사실을 다음 구술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진짜 싫은 게. 처음 만났는데 ‘저기,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고. 진짜 많아요. 그거를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축구도 많이 물어봐요. 일본이랑 한국 어느 나라 응원하세요? 하면 어느 나라나 이겨도 되요. 준비하고 가요.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나라가 이겨도 되고. 근데 독도는. 독도는 관심이 없어요. 재미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권지현)

“한일전? 너무 싫어졌어요. 막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느 쪽 응원하나 이런 질문 받게 되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그냥 당연히 한국 응원했었는데 그런 질문 받고 나서 좀 한국 응원하기 싫다기보다 불편해졌다? 그리고 스포츠는 상관없다 이런 거. 그래서 한일문제가 제일 싫어요. 저는 일본도 좋아하고 한국도 좋아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싫어서. (...) 요즘은 관심 없다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냥 한국 응원한다 했었는데 지금 관심 없다고. 결과, 점수나 그런 건 상관없고 좋게 끝나면 되요.”(김영훈)

“나는 한국인이 독도에 대해 물어보면 한국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게 누구 땅인지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사실 누구 땅인지 모르잖아. 그때 안 살았으니까. 그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일본에서도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중요하다 하는데 답이 안 나와. 축구도 마찬가지라, 그냥 이기고 있는 팀 응원해. 두 개다 잘 아니까. 독도 문제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와. 어디 땅인지 모르니까. 축구도 모르겠고. 내 모국이. 제일 좋은 거는 반반이라고 답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회사나 그럴 때 모국이 어디냐고 하면 한국이라고 하지 당연히. 모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익이니까. 일본이라고 말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겼던 적이 많았어. 그런데 진심으로 진짜 솔직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본. 모국은 일본. 모국이 아무래도, 거기에서 태어나고 중학교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될 수는 없어.”(임영호)

위의 구술들을 살펴보면, 많은 한국인들이 독도문제나 한일전과 같이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상황에서 재일동포들이 ‘한국 편’과 ‘일본 편’ 어느 쪽인지 선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경희(2011)는 한국인들에게 “‘동포’ 그 자체가 수많은 경계선을 내포한 혼종적인 실체라는 인식 전환”(p.88)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4. 한일 문화 간 차이 발견

마지막으로, 구술자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일본을 떠나 새로운 환경인 한국에서 생활하며 여러 가지 문화 차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차이를 경험하였을 때, 이를 받아들이거나 이에 대처하는 방식 또한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놀란 거는 화장실이에요. 이 종이(휴지)를 번기 안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많이 놀랐고, 좀 일본에 비하면 화장실이 좀 보통 좀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건 처음에 익숙해지기 어려웠고요. 길거리

다니면서도 일본 사람에 비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마음대로 걸어가는 거 같아요. 부딪혀도 상관없이 넘어가고 그 커플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쓱 걸어가면 길이 이렇게 조그마한데.. 그리고 갑자기 서서 둘이 뭐 이야기하고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상관없이. 그런 거는 좀 제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점이고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조민희)

“쓰레기.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는 거요. 특히 신촌에 가면 진짜 더러워요. 그런 점. 좀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 거. 근데 내 (한국인) 친구도 그냥 버렸어요. 내가 왜 버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괜찮아, 다 버리고 있어, 너도 버려 라고. 아,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강리사)

위에 소개된 조민희와 강리사의 구술을 살펴보면, 한국의 화장실 위생상태, 공중도덕, 거리의 청소 상태 등이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난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민희는 여전히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익숙해졌다고 말하고, 강리사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보지만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라고 여기게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조민희와 강리사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문화 차이를 겪고 이를 사소하게 여기는 것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문화 차이를 겪는 구술자들도 있었다. 윤은미는 언어를 비롯해 일본과 “하나 하나씩 다 다른” 한국의 문화로 인해 한국 생활 초기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문화 차이 때문에 처음으로 자신을 일본 사람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에 너무 힘들었죠. 언어도 못하고, 그냥 너무 달라요 일본이랑. 하나 하나씩 다 달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시간 안 맞추고, 안 나타나고 사람들이, 뭐 끝까지 같이 가고, 사양(遠慮)같은 거 없고. 그때 나도 아 일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윤은미)

하철수 또한 언어를 비롯해 일본과는 다른 문화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답답했어요. 자기도 말 못하고 상대방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데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일본에) 완전 가고 싶었어요.”(하철수)

임영호는 뉴질랜드에서 유학하던 중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던 한국인 형들이 자신을 포함한 한국인 동생들을 잘 보살펴주는 “형 동생 시스템”에 매력을 느껴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모국수학을 온 경우이다. 그는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해본 결과, 그가 ‘한국의 문화’로 여기고 높이 평가했던 “형 동생 시스템”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형 동생 시스템” 대신 한국에서 발견했던, 연장자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문화를 일본의 문화와 비교하며 다소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인들의) 형 동생 관계 신기했고, 좋게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형 말 무조건 들어야 하고, 선배 말 무조건 들어야 하고. 나이가 많으면 완전 예의 바르게 해야 하고, 그 사람이 존경할 수 없는데도 해줘야 하고. 근데 일본에서는 그 사람 나이가 많고 그런 거 상관없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 여기서는 나이가 많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문화인 거 같아.”(임영호)

임영호는 한국 생활 중 택시를 탈 때 여러 번 경험했던 ‘바가지’ 또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며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택시도 말 못하면 바로 바가지 하니까. 그래서 한국 진짜 안 좋다, 일본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임영호)

권지현도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화 차이들을 일본과 비교하고 “자연스럽게”, “계속 의식”하며 지내게 된다고 구술하였다.

“평소에 계속 의식하는 거 같아요. 뭐. 진짜 사소한 건데 뭐 지하철에서 통화하는 거. 그냥 하잖아요. 그냥 그거는 습관이고 괜찮으니까 하는데 너무 시끄러우면 ‘아, 일본은 안 하는데. 항상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계속 비교하는 거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권지현)

권지현의 경우 다른 구술자들과는 다르게, 일본에 비해 한국이 뒤쳐진다고 여겨지는 문화 차이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은) 시민의식 그런 거가 갖춰지면 일본을 금방 이기는 거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이) 더 수준이 높은데.”(권지현)

구술자들 사이에서, 똑같은 문화 차이를 두고 전혀 상반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김민준은 거리를 두고 사람을 대하는 일본인들 보다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한국인들의 문화가 편하고 좋다고 말했다.

“인간성이 자유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좋아요. 일본에 가면 90프로 이상이 숨기면서 살고 있어가지고, 자기를, 벽이 있잖아요, 벽. 그 거리감이 참 싫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일단 거리감 보다는, 싫다고 하면 싫다고 말하고 좋다고 하면 좋다고 말하고, 감정표현을 되게 솔직하게 하는 편이니까 그런 것이 저는 좋아요. 살기 위해서는 좀 편한 것 같아요.”(김민준)

반면, 한국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박미화의 조선학교 동창의 경우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준다. 2년간 한국에 거주했던 그녀의 친구는,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왔으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느낀 것을 다 말로 표현”하는 한국 여성들과 성향이 맞지 않아 결국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위에서 김민준이 한국의 매력적인 문화로 뽑았던 ‘솔직함’이, 다른 누구에게는 한국 생활을 접고 일본에 돌아갈 만큼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이다.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가 20대 때 한국에 2년간 살았어요. 그 때 한국 유치원에서 일해서 2년간 보냈는데, 이젠 한국에서 못 산다고 해요. 한국 여자가 좀 나하고는 안 맞다. 한국 여자가 마음을 숨기지 않고, 느낀 것을 다 말로 표현을 한다. 싫다면 싫다, 좋다면 좋다, 지금 나 기분 안 좋다. 일본은 다 참아요.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였대요. 나는 못하겠다 한국에서 일을,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박미화)

## 5. 소결

이번 장에서는, 모국수학생들이 한국 생활 중 겪었던 경험들을 살펴보았다. 모국수학생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며, 교실 안팎에서 본국의 한국인들과 조우하고 교류하게 된다. 또한, 한국 생활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게 되는데,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 및 그 전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국관이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복수의 구술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모국수학 과정 중의 경험들을 주제별로 묶어 정리한 것이다.

첫째, 일부 구술자들의 경우 한국 생활 초기에 본국의 한국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행동양식을 자신의 준거의 틀로 여기며 ‘한국인이 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본국의 한국인들의 행동양식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답지 않은’ 요소를 지우는 과정에서 ‘차이’를 확인했다. 이는 “한국인보다 모자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의 발현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열등감은 개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다수의 구술자들은 모국수학 중 본국의 한국인들과 교류하였고, 그 경험과 내용에 의해 민족정체성에 크고 작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술자들이 모국수학 중 만났던 한국인들은 (1) 재일동포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진 한국인들, (2) 재일동포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규정짓는 한국인들, (3) 재일동포에게 우호적인 한국인들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우선, 인터뷰를 했던 거의 모든 구술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재일동포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한 구술자들의 반응은 보통 부정적이었으며, “실망”, “충격”, “분노”, “짜증”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또한, ‘쪽발이’, ‘반쪽발이’와 같은 심한 욕을 직접 듣거나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한 구술자들도 일부 존재했다. 다음으로, 다수의 구술자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본국의 한국인들이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재일동포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진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일동포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을 재일동포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국수학의 동기를 막론하고, 이러한 태도는 많은 구술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식 및 인상은 무척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많은 구술자들이 모국수학을 하며 재일동포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들을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호적 태도’는 이들이 재일동포여서 특별히 더 좋은 대우를

해주거나 이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 재일동포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들의 ‘우호적 태도’가 도리어 자신을 슬프게 한다고 보고한 구술자도 있었다. 인터뷰 분석결과, 구술자들은 (3) 재일동포에게 우호적인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겪은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1) 재일동포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진 한국인들과 (2) 재일동포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규정짓는 한국인들과의 만남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 더 크게 영향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경험들은 대다수의 경우, 재일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구술자들은 한국에서 ‘경계인’으로서 생활하며, 자신의 소속을 선택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과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일본어를 모어로 하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재일동포들은 각종 규칙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없거나 예외에 해당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일동포들은 자신의 소속을 스스로 정하거나 넘나드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구술자들은 재일동포들이 일본어를 모어로 하고 외견상 일본인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경우 자신을 일본인으로 소개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부 구술자들은 모국수학 과정에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취사 선택의 단계를 거쳐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자의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타의에 의한 경우도 존재했다. 또한,



스포츠 경기의 한일전 혹은 독도 문제에 대해 어느 나라 편이냐는 질문을 받은 구술자들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기원을 둔 한국에 소속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일본에도 소속감 및 친근감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 귀속의식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이러한 질문들이 무척 곤혹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넷째, 구술자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일본을 떠나 새로운 환경인 한국에서 생활하며 여러 가지 문화 차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차이를 경험하였을 때, 이를 받아들이거나 이에 대처하는 방식 또한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구술자들은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확인한 결과, 일본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를 경험하였다고 구술하였다. 한편, 또 다른 구술자들은 일본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국의 문화에 매력을 느끼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화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모국수학과 민족정체성 변화

이번 장에서는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모국수학생들이 모국수학 과정 중 겪었던 민족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논할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재일동포들의 모국수학 동기와 목적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구술자들은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동기로 인해 모국수학을 하였고, 다른 구술자들은 민족 정체성과 관련되지 않은 동기로 인해 모국수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국수학의 동기와 목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구술자들이 모국수학 과정이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고 구술하였다. 즉,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동기로 모국수학을 선택하지 않은 모국수학생들의 경우에도, 한국 생활을 통해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구술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민족정체성이 모국수학 과정 중 여러 번에 걸쳐 변화하거나, 하나의 민족 혹은 국가와 관련된 정체성이 강화되기보다는 복수의 민족 혹은 국가와 관련된 정체성이 동시에 강화되거나, 중층적이며 복합적인 민족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이다. 우선, 이들의 민족정체성의 변화는 첫째, 한국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둘째, 재일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셋째, 일본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방금 설명된 것처럼, 이 범주들은 모국수학생들이 최종적으로 가지게 된 확고하고 유일한 민족정체성이라기 보다는 모국수학 중 겪었던 단편적인 변화의 단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가지 민족정체성이 모두 강화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1. 한국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인터뷰 결과, 모국수학 중 한국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를 겪었다고 구술한 구술자는 오직 2명에 불과했다. 이 두 명의 구술자는, ‘뿌리 찾기’를 위해 한국행을 택하였고, 한국의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모국수학을 마치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 한국에 남게 된 다른 구술자들과는 달리, 스스로 선택하여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강하게 희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 중학교 시절, 일본인 학생들에게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심한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김민준은 한국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인터뷰 당시 그는 한국에서 6년째 생활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는 한국인으로서의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나라에는 아직 노벨상이나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첫 번째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김민준)

위의 구술은, 김민준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그가 답변한 내용이다. 그는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보며 노벨상을 수상하거나 유명한 “첫 번째” 한국인이 되겠다고 말하였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 어느 정도 소속감을 느끼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던 다른 구술자들과는 다르게, 김민준은

“남의 나라”인 일본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거의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나라인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관심을 가지며, 이를 개선시켜 “좀 좋게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인이고, 한국인이라서 유명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한국나라를 더 좋게 좋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 한국에 대해서는. (···) 일본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이 없고, 일본은 일본에 잘 살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 할 수 없잖아요. 남의 사람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가 없으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일단 한국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한국은 나쁜 점 많잖아요. 좋은 점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정치가들도 나쁜 점 많고. 회사 들어가도 차별 같은 거 있잖아요. 군대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것. 뒤에서 돈 주는 것 그런 것이 없어지고, 좀 좋게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한국 나라의 전체를.”(김민준)

또 다른 구술자인 이순옥은, 대학교 시절 본명선언을 한 후 일본인 친구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였고 유아 교육과 실습과정에서 일본인 선생님들로부터 차별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내 나라”에서 차별 없이 일하고 싶어 그 준비 단계로서 모국수학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취직 할 예정이었지만, 그녀는 한국의 대학교에 다시 한번 입학하여 한국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기로 결정하였다. 인터뷰 당시 8년째 한국에 거주 중이었던 이순옥은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밝혔다.

“(자기소개할 때) 재일교포 3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리지날 한국인이라고. (...) 맨 처음에는 재일교포 3세라고만 했는데 풍물패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구요. 너는 되게 특별하다. 오리지날 한국인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때, 저만의 특별한 느낌을 들어서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오리지날이라고. (...) 저 지금은 (한국)유학도 했고 한국어도 배웠으니까 저는 스스로를 재일교포가 아니라 완벽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말하는 것도 좀 한국인답게 말 한다든가 문화에 대해서도 좀 많이 접해서 좀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한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자랐던 한국 사람처럼 많이 알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재일교포로서 좀 많이 알고 살고 싶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유학했으니까 재일교포는 원래 한국 국적이니까 재일교포를 넘어서 완벽한 한국 사람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 ○○대 입학하고 나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더라구요. 너는 재일교포니까 한국어도 좀 여기가 원래 모국이니까 열심히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고, 교수님들도. 그리고 제가 풍물을 했었는데, 그 때 어르신들이랑 말씀 좀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구요. 너는 재일교포지만 원래는 한국인이니까 모처럼 여기까지 와서 배웠다면 열심히 한국 사람 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된다,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그 때는 정말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래도 역시 외국어라서 그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언어도 잘 못하고 발음하기 너무 힘들고 공부 해도 해도 일본어보다 한국어 어휘가 많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꽤 됐으니까 온 지, 많이 익숙했어요. (...) 저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들은 한국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재일교포로는 안 키울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한국 사람이잖아요.”(이순옥)

위 구술에서 알 수 있듯, 이순옥은 대학교 교수님과 풍물패 어르신들의 조언을 듣고 모국어인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재일교포가 아니라 완벽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아이들 또한 “한국 사람으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국인답게 말 한다든가 문화에 대해서도 좀 많이 접해서 좀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한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자랐던 한국 사람처럼 많이 알고”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구술에서 그녀가 언어와 문화를,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8년간의 모국수학을 통해 열심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운 이순옥은 자신이 “이미 거의 한국 사람”이 되었고 한국인에 “거의 다 달성”한 것 같다고 했다.

“저는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력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스스로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많이 알게 되었고. 지금은 거의 일본어 출강 같은 걸 통해서 자립한 상태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저는 노력을 하면 아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노력만 하면 못 하는 게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게 별로 실감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진짜 노력만 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없구나 느껴요. 지금은 이 얘기 하면서 깨달은 게 저는 재일교포가 아니라 한국 사람 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 얘기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아 이미 거의 한국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느껴요. (...) 진짜 재일교포를

벗어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가 재일교포지만 재일교포에 있어서 일본인에 가까운 재일교포가 아니라 거의 한국인에 가까운 재일교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영주권 같은 거 포기만 하면 완벽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느껴요. (...) 언어. 그리고 생각.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의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정이 두껍고 그냥 좀 자기 주장을 똑바로 말하고 자기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거의 다 달성한 거 같아요.”(이순옥)

## 2. 재일(在日)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인터뷰 결과, 대다수의 구술자들은 모국수학 과정 중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거나,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모국수학을 통해 자신이 재일동포라고 인식하게 된 구술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게 된 이유는 다양했고, 인식의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일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를 겪은 구술자들의 경험은 1. ‘나는 재일이다.’, 2. ‘한국인은 아니다’, 3. ‘부정적인 재일에서 긍정적인 재일로’, 4.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나는 재일이다.’ 유형은, 재일동포만이 가진 특질이나 재일동포만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에 보다 주목하며, 자신을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재일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3. ‘한국인은 아니다’ 유형은, 한국 생활을 통해 경험한 본국의 한국인들과 자신의 차이 및 이질성을 강조하며, 이 결과로 인해 재일적

민족정체성이 강화된 구술자들이다. 3. ‘부정적인 재일에서 긍정적인 재일로’ 유형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국수학을 통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변화를 경험한 구술자들이다. 마지막으로, 4.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유형은, 모국수학 전에는 자신의 민족정체성이나 자신이 속한 국가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인지를 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모국수학을 통해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고 경계인이자 월경(越境)인인 재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 구술자들이다.

#### (1) ‘나는 재일이다.’

권지현은 자신의 민족정체성은 “재일교포 애들의, 재일교포끼리 알 수 있는 아이덴티티”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본국의 한국인들이 한국을 칭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의 나라는 “재일교포의 나라”라고 느끼고 있다고 구술하였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일본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재일교포 애들의, 재일교포끼리 알 수 있는 아이덴티티라는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수 있으면 재일교포라는 나라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 우리나라라는 말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시작해서 계속, 여러 얘기하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재일교포의 나라다.”(권지현)



한국어를 익혀 일본에서 사무직으로 전직하는 것을 목표로 모국수학을 선택한 하철수는 한국에서 만난 재일동포들과의 교류가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구술하였다. 일본 학교를 다닐 당시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숨기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기도 했던 그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다른 재일동포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 오고 어학당 다니고, 재일교포 선배 후배 많이 생겼어요. 절 선배라 부르는 후배도 있었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생활을 통해, 원가, ‘나는 재일교포구나’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교포형제.. (···) 한국 생활에서 나 재일교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생활을 통해서, 생활에서 나는 재일교포라고 느꼈고 지금은.. 역시 재일교포죠.”(하철수)

그는 모국수학 중,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교포문화”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만났던 재일동포들이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들과 교류하며 강한 동질감과 편안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에게 “교포문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개 할 때 일본 사람이라면 ‘아 어디에서 왔어요?’, ‘아 저는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잖아요? 하지만 재일교포라면 ‘어디에서 왔어요?’ ‘저도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재일교포예요’라면 ‘아 정말로? 나도

재일교포”라고.. 뭔가 거기에 관계가 생겨요. 그럼 내가 아 재일교포다..  
뭔가 친해질 수도 있고, 편한 거죠.”(하철수)

하철수에게 있어서 “교포문화”란, 서로 재일동포라는 사실만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뭔가 거기에 관계가” 생기는 “친해질 수도 있고, 편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 처음 만나게 된 재일동포들과의 이러한 교류를 통해 강한 귀속의식을 가지게 되어,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보다 강하게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모국수학 중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었다고 밝힌 고우리는, 인터뷰 당시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한국도 북한도 일본도 아닌, 재일과 한반도에 가깝다고 구술하였다.

“(민족정체성은) 어쩔 수 없는 문제, 이거는 제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거고... 정말 답이 없어요. 분명 일본은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한반도, 그렇게 하면 조금 알 수 있어요. 그 재일이라는 거랑 한반도 그거는 조금 잘 들어맞는 말(しっくりくる言い方).”(고우리)

위의 구술에 나타난, “답”은 그녀가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모국수학을 직접 체험하며 내리게 된 것이었다. 이런 “답”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자신이 재일이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한국에 무척 실망하여 “일본인에 가까운” 민족정체성을 가지기도 하는 단계를 거쳐 “재일은 재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구애”되며 살아와서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편견이 모두 무너지고, “나로서 살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결국 어디에 있어도 재일은 재일, 그런 대우를 당하고... 제 꿈이 있는데, 다시 태어나면 꼭 그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때까지는 되게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재일교포는 좀 특수한 입장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알고, 다른 경험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거는 좀 불편한 성장과정(生い立ち), 불편한 백그라운드. (...) 저는 정말 나, 나로써 살고 싶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일본인, 한국인, 북한 사람 그런 것 보다는... 그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구애되면서(拘って) 살면 너무 힘들 수 밖에 없고, 싸울 수 밖에 없고 나 자신이랑 다른 사람이랑 싸울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일본에서 일본을 되게 나쁜 걸로 생각하고 그런 게 다 한국에 와서 그렇게 깨끗하게, 어느 정도 깨끗하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한 편견도) 없어졌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도 없어지고. 다 똑같아요. 사람이 살고.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에 가도 다 똑같아요, 아마. 다른 나라에 갔다고, 어느 나라 가든지.”(고우리)

## (2) ‘한국인은 아니다’

일본에서 부모님께 일종의 반일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윤은미는, 모국수학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국수학을 하며 그녀는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바로 그녀가 한국에서 체험한 다양한 문화 차이 때문이었다.

“일본에 있었을 때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재일교포라고 생각하거든요. 차이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못하고, 문화도 그렇게까지 모르고, 한국 사람이 당연하게 하는 걸 절대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재일교포니까 그런 거지, 나는 진짜 한국 사람 아니구나, 재일교포구나 그렇게 바뀌었어요, 한국 와서 1년 지났을 때. 친구들도 많이 사귀기 시작해서 사람들 만나고, 한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어서, 좀 아니구나 이렇게. (···) 예를 들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여자는 이래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없어졌다고 해도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남자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고.”(윤은미)

일본에 있을 때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김영훈 또한 그가 한국에서 느꼈던 크고 작은 문화 차이 때문에 “완전한 한국 사람”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낀다고 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만약에 100프로 한국말을 잘 했어도, 한국 사람이, 완전한, 완전한 한국 사람이라는 말 좀 이상한데,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사는 공부만 하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으니까. 아무리 제가, 저는 군대를 안가는 데, 아무리 제가 군대를 가고 그래도 일단 사고방식이 약간 일본 사람, 일본식이라기 보다, 살고 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지금 가는데 처음에 여기 와서는 이해 못하는 게 많았어요. 문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가 부딪혔을 때 일본에서는 다 죄송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일단 군대문제, 제가 오는 문제도 있고, 군대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저를 취급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심각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완전한 한국 사람이라고, 완전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냥 저는 그냥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다. 그냥 그런.”(김영훈)

언니와 오빠의 모국수학을 보고 자신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여 한국행을 택했던 권지현은, 인터뷰 당시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후 평생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거주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모국수학을 통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후 자신감이 생겼으며, “기분도 좋고, 내 자신이 너무 좋”고, “한국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재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구술하였다.

“(한국이) 진짜 싫고 일본에 가고 싶다는 이런 거 생각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여기도 좋은 추억이 많고,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어렸을 때부터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게 뿌듯한 느낌? 하지만 완전히 한국말 해도 완전히 한국인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생각인데,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한국인이 됐다는 생각은 안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25년 동안 생활했으니까. (...) 처음 여기 왔을 때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많이 느꼈어요.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한국어를 잘 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빨리 한국 사람 되고 싶다고 했었고.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라고도 하고 싶다. (...) 지금은 재일교포라는 저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좀 포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죽을 때까지 완벽한 한국인이 될 수가 없다고 지금은 생각하니까. 포기하고.

재일교포라는 저를 좀 인정하고 살아야겠다. 좀 슬픈 얘기지만.”(권지현)

‘현실적인 유학처’로서 한국을 선택하여 한국의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정수나는 인터뷰 당시 10년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누군가 자신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면 “한국인은 될 수 없다. 전혀 다르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한국에 와서 벌써 10년째가 돼가지고, 저는 ‘한국인이냐?’ 누군가가 물어보면, ‘아닐 거다’ ‘한국인은 될 수 없다. 전혀 다르다’ 그거고.. 그럼 ‘일본 사람이냐’고 하면,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하긴 ‘저는 일본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은데, 사실은 솔직한 마음은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른다’(정수나)

부모님께 항상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교육받으며 성장한 송지숙은, 한국에 와서 여러 번에 걸쳐 “넌 한국 사람 아니다라는 규정”을 받게 된 결과, 민족정체성에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구술하였다.

“한국 국적이고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한국 사람한테 ‘넌 한국 사람 아니다’라는 규정을 받게 되고, 계속. 그러니까 ‘역시 완전 한국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국 사람은 아니네’ 하는 생각으로 바뀐 거 같아요.”(송지숙)

조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회사에서 근무하며 “빨리 일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귀화했던 박미화는 한국 드라마에 심취하게 되어 모국수학을

결정하였다. 이후, 자신이 귀화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생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인터뷰 당시 한국인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를 위해 재일동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여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민족정체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빨리 일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녀는 모국수학 후 한국인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나 자신의 완벽하지 못한 한국어 능력과 성장배경 때문에 한국인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 정말 한국남자친구 덕분으로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자랑스럽고, 한국 좋고, 새롭게 변했어요. 정말 이 1년이 나의 인생에서 정말 큰 변화예요. (모국수학 올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길어도 1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나 한국에 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 이상(理想)으로 원하는 게 한국인으로 살고 싶지만,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말투도 다르고 억양도 다른 게 있으니까, 재일교포로서 살 생각 이에요. 언어 때문이랑, 30년간 (일본에) 살아왔던 그런 상황, 그런 걸로 완전 한국인이라는 것은 역시 어려운 것 같아요. (...) 하지만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요” (박미화)

### (3) ‘부정적인 재일에서 긍정적인 재일로’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구술자들 중 일부는 모국수학을 하며 재일동포여서 유리한 점들을 인식하는 기회가 종종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모국수학 전에는 자신을 재일로서 정체화하며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었다고 기억했다. 이후, 모국수학 중 자신이 재일동포여서 유리한 상황을 경험하거나 재일동포라는 배경으로 인해 형성된 자신의 특질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즉, 자신을 재일로서 정체화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 내용과 인식에 있어서는 변화를 겪은 것이다.

조민희는 일본에 거주할 당시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 신분으로 1년간 생활한 후, 현재는 자신이 재일동포여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양국의 문화도 이해할 수 있어 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 긍정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제가 교포여서 한국 회사를 들어가서 일본에 파견 가는 것도 있다고 들었고, 그런 좀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 옛날에는 (한국)이름 같은 게 있어서 너무 싫어했는데 근데 요새는 좋아요. 교포여서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문화의 나라를 좀 알고 있고 하니까.” (조민희)

윤은미의 경우, 재일동포로 지내오며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게 된 “세상 보는 눈”을 자신의 경쟁력으로 여기며, “재일교포로 태어나서 다행이었다”고 구술했다.

“지금은 재일교포로 태어나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세상 보는 눈도 다르고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들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었죠.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을 보면 내가 너무 불쌍해요. 머리 나쁘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 그냥 다른 학생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나한테 진짜 가능성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계속.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친구들은, 시야 같은 거. 논문 같은 거 쓰는 것도 내가 잘하고. 그런데 그거는 공부 잘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어떤 일을 보는 눈 같은 거 그거는 내가 재일교포라는 생활을 겪으면서 갖게 된 거여서.”(윤은미)

앞서, 한국인이 되고 싶지만 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재일교포라는 저를 좀 인정하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구술자로 등장했던 권지현은 모국수학을 통해 민족정체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며 더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는 자신의 민족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못했던 내 자신보다 여기 와서 한국말도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더 좋고, 기분도 좋고. 내 자신이 너무 좋아요. (...) 자신이 생긴 거 같아요. 자신도 생기고. 시야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일본도 알고 있고 한국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나라에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계속 생각하게 되고. 아는 게 많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고. 일본에 있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그런 게. 내가 두 쪽 환경에 살아보니까 한국의 좋은 점도 알고 나쁜 점도 알고. 두 나라 관계가 나빠지면 그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는지. 좋아지면 좋은 거고. 그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싶어요.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일본의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

싶고, 일본 갈 때는 한국이 좋은, 이런 나라다 한 번 가봐 이렇게 가까워지게 만들고 싶다는. 그거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권지현)

또한, 권지현은 모국수학 이후 일본에서 일본인들과 만났을 때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자신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녀는 일본에 있는 때, 재일동포이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다소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그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을 만난 적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모국수학 후 그녀가 자신이 재일동포이며 한국어를 할 수 있고 한국에 살고 있다고 소개하면 일본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는 것 같다고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말 하는데 편하고 기분도 좋” 다고 설명했다.

“마음이 완전 달라요. 말 하는데 편하고 기분도 좋고.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 이 사람이 재일교포인데 지금 한국에 살고 있구나. (...) 전처럼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살면서 한국어 모르는 것보다는, 지금은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생활한다는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편이 상대방이 알기 쉬워한다고 할까. 나를 봤을 때, 왜? 라고 할까, 왜 처음에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어 모르는 것 보다는 이미지를 이해하기 쉬워요. 나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까, 생각을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고.”(권지현)

고등학교 때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기 위해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보고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임영호는 4년간의 모국수학을 통해 자신이 “재일교포여서 좋아”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4년간 공부한 한국의 대학교는, 학교 특성상 외국어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더 인정받는 풍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학생이었던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에게 이러한 경험은, 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의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차별당했던 기억과 대비되어 더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교포를 “한국인보다 특별한 경험이 많은 한국인”으로 인식했으며, 자신이 교포여서 다른 한국인들보다 “개념이 좀 더 넓고” “여러 입장에서 살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학교 ○○대를 가니까 거의 다 교포니까, 교포에 대한 나쁜 감정 같은 거 거의 없어, 사람들이 서로에게. 차라리 부러워해, 교포라고. 살아오면 그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대에서는 좀 언어를 할 줄 알아야. 그냥 한국 사람들이 교포 되게 부러워했어. 그래서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완전 반대가 된 거야. (...) 진짜 좋았어. 내가 제일교포라는 게 좋아진 거는 대학교 때. 다시 제일교포라고 말해. 왜냐면 애들이 부러워했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제일교포라고 말하면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아. (...) 한국인이랑 교포는 다른데, 교포는 한국인보다 특별한 경험이 많은 한국인. 그래서 누가 좋다 안 좋다 라고 따지면 난 교포가 좋아. 교포로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절대 경험 못하는걸 경험해봤고, 그 사람들보다 개념이 좀 더 넓다라고.. 그리고 여러 입장에서 살아봤으니까, 한국인 입장도 경험해봤고 반대도 경험해봤고 그러니까 제일교포여서 좋아, 좋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교포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임영호)

자신을 조선학교에 다니며 “제일 커뮤니티”에서 성장했다고 소개한

박문희는 고등학교 때 일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처음으로 일본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까지 “재일동포라서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 던 그녀는, 첫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조선학교 출신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자신이 “재일교포라는 게 좀 싫어졌다” 고 회상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재일동포라서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도 다 아는 사람들끼리여서, 친구 만들기도 편했고, 이야기도 통해서 이런 작은 마이너리티 그런 것이 그냥 있기가 편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재일동포라서 좋았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회에 나가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많이 사회 경험을 해보게 되었을 때, 제가 재일교포라는 게 좀 싫어져서.”(박문희)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한 박문희는 모국수학 중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고민의 결과, 자신이 한국과 일본에서 “소외” 당하는 존재가 아닌 “모든 곳에 속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느꼈고, 재일동포라는 것이 “편리, 럭키” 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내가 조선사람이고 재일동포라는 그런 생각이 강해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일동포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내가 한국 사람일까? 내가 그냥 재일동포일까? 아니면 일본 사람에 가까울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모든 것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

아이데티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다 소외 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다 그런... 교포가

그런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서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교포이고 일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느 그룹에도 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라고 할까.. 편리하다는 건 아닌데, 럭키 라고 할까.. 처음 왜 그런 작은 마이너리티 속에 속해있는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좀 없어지고 아재일동포라는 것이 이렇게 편리, 럭키다 이런 그룹, 소속이다라고 점점 좋은 쪽으로 변했어요”(박문희)

위의 구술에서 볼 수 있듯, 깊은 고민의 결과 보다 긍정적인 민족정체성을 가지게 된 박문희는 아직도 때때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갈등할 때도 있다고 말하였다. 자신이 가졌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쉽게 “이해하는 척” 하는 일본인들을 보고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민족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식” 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기 위해 자신이 “노력”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모습에서,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그녀의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 상태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자기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가끔 고민을 말하면 ‘이해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런 고민을 말하고 근데 지금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비자도 일본에 갈 때도 필요 없고, 한국에 올 때도 비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나는 힘들지 않다고 할까, 편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많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일본 사람들은 ‘어, 맞아 문희는 럭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일본 사람이나 교포 아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싫다고 할까. 나 아닌 사람들이 그런걸 말하면 좀... 별로 그렇게 럭키라고 하는데 자기

나라가 있는 그런, 나는 일본 사람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확립되어 있잖아요? 국적도 있고. 그런걸 보면 좋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럭키는 아닌데 그렇게 그 나라 사람이 저 같은 경우라면 그렇게 럭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긍정적인 생각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바뀌어지고 그래요. 아직 내 속에서는, 이해는 못할 것 같다.. 교포 아닌 분들에게는 이해는 가도 완벽한 이해까지는, 모든걸 이해는 못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동정을 받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그렇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아직 부정적인 의식이 없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러움 같은 걸 받으면 그렇게 부러운 것 아닌데? 이런 좀 남아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다시 되돌아와서 좀..."(박문희)

일본에 있을 때 자신을 한국인으로서 정체화하며, 한국에 오면 “그냥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김영훈은 모국수학 중 이러한 기대가 무너져 약 2년간에 걸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구술하였다. 하지만, 깊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민족적 배경으로 인해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는, 인터뷰 당시 자신이 제일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신경 안 썼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 때는 그냥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한국 오면 그냥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1년 쯤,

2년 짜 때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으니까 힘들었고. (···) 저는 옛날에는 진짜 일본에서 태어난 교포 이런 사람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거의 너무 심했는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좀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일본에서 태어난 교포라서 이렇게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한국 오는 것도 할 수 있고, 지금 만족, 지금 일단 만족하고 있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냥 대학교 다행히 들어갔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학과 또 뭐 지금 일단 만족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있는 거는 나의 출생, 나의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이라고, 교포라는 게. (···) 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아니고, 아니면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 아닌가라는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많이 고민했으니까. 많이 보통 사람이 생각 안 하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거 행복이다. 재일교포인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되는”(김영훈)

조선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던 중 한국미술에 대해 알고 싶어 교환학생을 오게 된 이진순은 모국수학을 통해 한국인 작가들과 교류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일동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한국인들이 그녀에게 던졌던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통해 “자기훈련”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 그녀는, 한 한국인 작가가 자신에게 했던 “정체성이 여러 가지 있어서 부럽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후, 이때까지 “마이너스”로만 여겼던 자신의 “애매한 정체성”이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오랫동안 꿈꾸고 있었으나, 반년간의 모국수학을 마친 후 진로를 수정하게 되었다. 일본 미술계에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재일동포

큐레이터로서 활동하며, 일본 현대 미술 담론 속에 재일동포를 위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진정한 작품활동” 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단 국적은 한국인데 일본도 한국도 자기나라는 아니죠. 그 애매한 정체성이니까. (...) 일본에서는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뭐 너무 많아서 좀 불안정한 정신상태이죠. (...) (한국에 와서) 고민이 좀 덜어졌어요. ○○대 친구나 서울에 있는 작가나 만나서. 한 작가가 재밌는 말을 해서. 이제 아티스트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는 작가인데, ‘진순이가 부럽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왜?라고 놀라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어서. ‘그 자기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 있어서 부럽다’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충격으로... 자기의 국적하고 자기의 태어난 나라가 복잡하니까 그것으로 일본 친구로부터는 고생했다, 고생했다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부럽다는 말은 처음 들어서 그것으로 저의 고민이 많이 풀어졌어요. (...) 애매한 것을 더 큰 장점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된다’라는.”(이진순)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재일에서 긍정적인 재일로’ 변화한 사례는 아니지만, 이광일이 인터뷰 중 설명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교포이기 때문에 좋은 점” 을 소개하기로 한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광일은,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한국과 일본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과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 기업에서 “비즈니스 효과” 가 있다고 여겨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재일동포 중에서도 특히 한국 국적 소지자가 “이익이 되는”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교포 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아요. (···) 한국에 비자가 필요 없고. 그런 거죠. 한국, 일본, 한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포인 게 훨씬 제도적으로 이제 유리한 거 같아서. (···) 또 이제 사람이랑 만나면 일본 국적으로 바꾸면은 한국 사람,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겠고 아직도 한국 국적을 가지겠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아직 호기심이나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이익이 많죠. (···) 일본에서는 일본 교포에 대한 나쁜 생각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고, 우리는 이제 교포라 하면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대기업이란 게 특히 특별하게 해주고. 또 한국 사람이랑 또 비즈니스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 일본 이름으로 다니는 것 보다 한국 이름으로 다니는 게 비즈니스 효과도 있고, 이익이 되는 게 한국 국적이예요, 지금은.”(이광일)

#### (4)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권유로 참가했던 재일동포 어린이 토요학교에서의 즐거운 추억과 고등학교 때 열광적으로 좋아하게 된 한국 가수의 영향으로 한국에 교환학생을 오게 된 강리사는 일본에 있을 당시 자신이 “완벽한 한국인도 아니고 완벽한 일본인도 아니”라는 생각에 “짜증”이 났었다고 했다. 이런 생각에 불안을 느끼며 자신이 “어느 쪽인가” 정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느꼈던 그녀는, 한국에 가면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국수학 후 그녀는 자신이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반반인데 그게 진짜 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짜증났던 것은, 제가 역시 완벽한 한국인도 아니고 완벽한 일본인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 제가 한국에 오면 저는 한국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완벽한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그런 생각 많았어요,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나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 많았어요. 한국 오기 전에 많았어요. 한국에 오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답을 찾은 거 말고 그냥 오히려 나는 교포다. 그거 밖에 없어요. (...) 오기 전에는 어느 쪽인가 내가 정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100%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것이 좀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반반인데 그게 진짜 나라는 것. 그게 오히려 100%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인 것보다 오히려 나인 것이 아닌가.”(강리사)

인터뷰 당시 총 세 번의 모국수학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박두진은, 과거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갈등하며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 으나 지금은 자신이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기도 하다고 말하였다.

“지금까지는 계속 일본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 그런 식으로, 일본 사람이라면 한국을 부러워했었고,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을 잘 아는 한국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둘 다. 한국 사람이며 일본 사람. 지금까지는 자기에게 아주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어.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박두진)

일본에 있을 당시 자신을 한국인으로 정체화 했었으나, 모국수학 중 지속적으로 “한국 사람한테 ‘넌 한국 사람 아니다’ 라는 규정” 을 받아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가지게 됐다고 말한 송지숙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 인지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같다” 고 보고 있었다. 또한, 그녀의 구술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국적과 민족정체성을 별개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국)대학교 와서 정체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생각하게 된 거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뭐 한국 사람이라고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 반대로 한국에서 외국인 취급을 당하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국적이 중요한 건 아니구나. 재일교포는 그냥 어느 나라 사람이다든지 그런 걸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일본 국적을 갖고 있어도 일본인은 절대로 아니고, 한국 국적이라도 한국인은 아닌 거 같고. 국적은 그냥 수단? 네, 그냥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거고 필요 없는 거 같아요.”(송지숙)

조선학교를 졸업한 윤수진은 모국수학 중에 일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이라는 틀” 과 그 보호에서 벗어나 “자기를 완전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시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는 불쌍한 존재같이” 느껴지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불쌍하게 여겨졌던 시기” 를 겪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이 시기를 극복한 후, “속하지 않아도, 속하지 않는 게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신” 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벗어나야겠다, 이 제가 숨어있는 일본에서 외국인이라는 틀 속에서 있었던 자기의 보호를. 어디선가 자기가 외국인이다라는 보호막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거를 깨고 자기를 완전 한국인이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거를 이뤘을 때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이덴티티를. 하지만 그거는 옳은 답이 아니었고.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게 가장 자유롭다. 진짜 이게. 속하려고 하니깐 힘들고 속하려고 하니깐 차이가 보이고. 공통점을 찾아도 어딘가 다르고. 사람들이, 한국인 분들이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이 느낌들이 한국인에 한하지 않고 여러 모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하잖아요. 나는 누구다 이런 자신감이랄까. 단언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게 슬프다기보다 불안정하지만, 그 불안정함이 자기가 무언지를 더더욱 생각하게 했고, 지금까지. 그리고 그 불안정한 상태가 자신에 있어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언하려고 하니깐 자기가 힘들고 하지만 그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자기가, 가장 자기가 설 수 있는 곳. (···) 그 안전하다라는 것보다 단언할 수 없는. 자기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단언할 수 있는 게 자기를 정리 짓는 가장 안정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을 때도 자기 소개를 할 때 자기는 한국인이예요, 자기는 일본인이예요, 자기는 미국인이예요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게 가장. 아, 미국인이니까. 아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에 세계에는 많지만 그렇게 단언을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속하려고, 자기를 속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자기가 보이니까 불안하고 그 결과 그 불안정한 정체성에 서고 있는 게 자기를 가장 안심하게 하는. (···) 지금은 완전 세계가 넓어진 자신. 속하지 않아도, 속하지 않는 게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신“(윤수진)

### 3. 일본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22명의 구술자들 중 모국수학을 하기 전에 자신을 ‘일본인’으로 정체화했던 구술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sup>11</sup>, 이들 중 일부는 모국수학을 하며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던 일본적인 요소를 발견하였고, 이는 일본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는 구술자도 존재하였다.

조미희는 원래 영미권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한국으로 “대신”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일본에 있었을 때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것을 “거의 잊어버리고” 지냈지만 한번도 일본인으로 정체화 했던 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모국수학 중 일본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는 한국인을 만났을 때 일본을 “자기 나라”로 느끼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변한 건 아닌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자기가 일본도 그... 자기나라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기에 와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는 일본 사람이다 일본 나쁜 점 이야기 했을 때 그렇게 느껴서 처음에 어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조민희)

조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국적을 조선적에서

---

<sup>11</sup> 일본에 거주할 당시,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구술자 한 명은 제외.

한국으로 바꾼 윤수진은 일본에서는 자신을 “외국인” 이라고 생각했었다고 구술하였다. 이후 그녀는 모국수학 중 한국에서도 자신이 “약간” 외국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방학이 되어 가족이 있는 일본에 갔을 때 “내 나라 왔다” 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일본 뿐만 아니라 일본인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도 바뀌었고 지금은 “일본이 더 좋아” 진 것 같다고 구술하였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자기를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왔고, 한국에서도 외국인이잖아요, 약간. 그게 처음에는 저를 힘들 게 했던 것들의 하나인데, 일본에 가니까 예전까지는 일본이 자기 나라가 아닌 거, 아닌 거 보다는 자기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사는 데 막상 가니까 어, 내 나라 왔다. 이런... 약간 일본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어요. 돌아왔다 드디어, 우리나라에. (...) 일본 친구들이 싫었기보다 무서웠어요. (일본) 친구랑 사귀는 것도 개네들이 날 싫어하겠지? 거리감을 뒀야겠다. (지금은) 재미있어요. 일본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윤수진)

자신의 기원이 있는 한국을 경험하고, 더 늦기 전에 ‘도전’ 을 하고 싶어 모국수학을 선택했던 최미자는, 인터뷰 당시 한국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우자가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자신도 계속 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 와서 “있으면 있을수록 한국 사람과 차이를 많이 느끼” 고 이 결과로 자신이 “일본 사람”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마음이, 발견된 거는 ‘자기는 일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여기오니깐 ‘나는 일본 사람이구나’하는 것을.. ‘사람은 무엇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서류는 역시 서류니까. 국적이 어디든 내가 사는 곳이 제일 영향 크잖아요. 그래도 완전히 일본 사람 아닌 거는 저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 사람으로서 마음은 그렇게 자란 거 아니니까, 아무래도 할아버지들이 왔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교포라는 게.. (···) 역시 저는 완전히 한국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와서 있으면, 있을수록 한국 사람과 차이를 많이 느끼니까, 저는 “일본 사람이구나”하는 거예요. 문화도, 교육도 다”(최미자)

12년 동안 조선학교에서 공부했던 고우리는 일본 대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일본인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한다. 철저하게 재일동포 커뮤니티 안에서 성장한 그녀는 단 한번도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으며, 일본이 “지겨워서” 다른 나라로 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국수학을 하며 일본이 “아이덴티티로 다가” 오는 “예상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일본에 있을 때는, 재일조선인이라는 그런 게 있었고, 한국 오기 직전에는 한국에 가까운 아이덴티티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오자마자 그런 게 아니라고 느끼고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게 나한테 정말 내 몸 속에 다 일본적인 습관, 생활, 사고 그런 게 진짜 배어있어서 일본이라는 게 처음으로 아이덴티티로 다가왔어요. 그게 나한테 되게 예상 못했던 그런 아이덴티티 변화였어요. 일본이라는 게 나한테 가깝게 다가왔다는 게.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그때는 국적을 일본으로 바꿀 생각도 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깐 역시 일본(국적)은 아니고...”(고우리)

모국수학을 하며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던 일본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귀화까지 고민했던 고우리는 한국 생활을 하며 민족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갈등 및 민족정체성의 변화와 이에 관련된 고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한국에 와서 충격. 처음에는 한국에 많이 기대를 하고 왔잖아요. 왔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많이 오해를 했었던 것 같다.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왔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일본이 정말 그리웠죠.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 나는 일본 사람이구나, 내 아이덴티티도 일본 사람이라고 처음 생각해봤고. 한국에 가면 내가 딱 정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갔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한국 사람이다라는 아이덴티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런데 가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한국 학생들이랑 같이 있어도 나를 일본 사람으로 생각하고, 물론 외국인들도 나를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교수님들은 나를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갈등이 너무 컸고. 아예 일본 사람으로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생각보다 한국에서 재일교포가 한국에 산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것...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쉬운 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꼭 살아보라고, 한번. 재일교포가 한국에서 산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슬프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재일교포가 한국에서 살고, 배우는 거. 케이팝 그 시대, 그때는 몰랐던 한국에 산다는 정말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때는 정말 아주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하고 신념 그런 게 무너져요, 일단은 한국에서. 다 무너지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로(0)가 되는 게. 특히 저처럼 민족학교 나왔던 사람들이 한국에 산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한국이 되게 좋죠.”(고우리)



#### 4. 소결

이번 장에서는, 모국수학생들이 모국수학 과정 중 겪었던 민족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재일동포들의 모국수학 동기와 목적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모국수학의 동기와 목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구술자들이 모국수학 과정이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고 구술하였다. 즉, 민족정체성과 관련되지 않은 동기로 인해 모국수학을 선택한 구술자들의 경우에도, 한국 생활을 통해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민족정체성의 변화는 첫째, 한국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둘째, 재일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셋째, 일본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이 범주들은 모국수학생들이 최종적으로 가지게 된 확고하고 유일한 민족정체성이라기 보다는 모국수학 중 겪었던 단편적인 변화의 단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가지 민족정체성이 모두 강화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국수학 중 한국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를 겪었다고 구술한 구술자는 오직 2명에 불과했다. 이 두 명의 구술자는, ‘뿌리 찾기’를 위해 한국행을 택하였고, 한국의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모국수학을 마치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인 대부분의 구술자들 및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 한국에 남게 된 다른 구술자들과는 달리, 스스로 선택하여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강하게 희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거의 모든 구술자들은 모국수학 과정 중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모국수학을 통해 자신이 재일동포라고 인식하게 되거나 인식의 강화를 겪은 구술자들 사이에서도 그 이유는 다양했고, 인식의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일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를 겪은 구술자들의 경험은 (1) ‘나는 재일이다.’, (2) ‘한국인은 아니다’, (3) ‘부정적인 재일에서 긍정적인 재일로’, (4)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나는 재일이다.’ 유형은, 재일동포만이 가진 특질이나 재일동포만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들에 보다 주목하며, 자신을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재일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인은 아니다’ 유형은, 한국 생활을 통해 경험한 본국의 한국인들과 자신의 차이 및 이질성을 강조하며, 이 결과로 인해 재일적 민족정체성이 강화된 구술자들이다. (3) ‘부정적인 재일에서 긍정적인 재일로’ 유형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국수학을 통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변화를 경험한 구술자들이다. 마지막으로, (4)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유형은, 모국수학 전에는 자신의 민족정체성이나 자신이 속한 국가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인지를 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모국수학을 통해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고 경계인이자 월경(越境)인인 재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 구술자들이다.

셋째,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22명의 구술자들 중 모국수학을 하기 전

자신을 ‘일본인’으로 정체화했던 구술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모국수학을 하며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던 일본적인 요소를 발견하였고, 이는 일본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는 구술자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국수학 후 자신을 오직 ‘일본인’으로만 정체화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재일적 민족정체성과 함께 일본적 민족정체성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모국수학은 대다수 구술자들에게 자신이 재일임을 ‘확인’ 및 ‘재확인’ 하는 과정으로 작용하였으며, 일부 구술자들에게는 자기 안에 있던 일본적인 요소를 ‘발견’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민족정체성은 다양하게 분화되어가고 있고,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구술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자신감 및 자아정체감의 풍부화와 연결되고 있었다. 한국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를 겪은 구술자는 오직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것이 예외적인 사례에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과 그 자손들을 ‘재일동포’라고 칭하며, 모국수학이 이들의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최소한 6개월 전에 모국수학을 위해 한국에 온 재일동포 3, 4세 22명을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모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semi structured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구술자들이 모국수학을 결정한 배경에는 뿌리 찾기, 유학, 이력 쌓기, 탈(脫)일본, 한류의 영향과 같은 다섯 가지 동기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뿌리 찾기’란 한국어나 한국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지식과 같은 민족적 소양을 키우고 한국 생활을 통해 자신의 기원 및 민족 정체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하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한국어의 실질적인 효용보다는 한국어가 자신의 민족의 언어라는 측면에 더 주목하며, 모국수학을 통해 자신의 뿌리와 연관되어 있는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부 구술자들은 ‘유학처’로써 한국을 택하여 모국수학을 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이 자신의 모국이라는 사실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생활비가 저렴하고 보다 쉽게 유학 갈 수 있다는 면에 더 주목했다. 셋째, 또 다른 구술자들은 모국수학을 통해 한국어를 익히고 국제경험을 갖추어 장래에 취업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다른 분야로 전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모국수학을 택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들은 한국어가 자신의 민족의 언어라는 측면보다는, 일본사회에서 한국어가 갖는 효용가치 및 ‘국제경험’으로써의 모국수학에 좀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일본을 떠나고 싶다는 ‘탈(脫)일본’과 관련된 욕구가 일부 구술자들에게 모국수학을 선택하는데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부 구술자들은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모국수학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10년 사이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다음으로, 모국수학생들이 한국 생활 중 겪었던 경험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부 구술자들의 경우 한국 생활 초기에 본국의 한국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행동양식을 자신의 준거의 틀로 여기며 ‘한국인이 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다수의 구술자들은 모국수학 중 본국의 한국인들과 교류하였고, 그 경험과 내용에 의해 민족정체성에 크고 작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터뷰를 했던 거의 모든 구술자들은 많은 한국인들이 재일동포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한 구술자들의 반응은 보통 부정적이었으며, “실망”, “충격”, “분노”, “짜증”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다음으로, 다수의 구술자들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본국의 한국인들이 재일동포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구술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식 및 인상은 무척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많은 구술자들이 모국수학을 하며 재일동포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들을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구술자들은 재일동포에게 우호적인 한국인

들과의 만남을 통해 겪은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 더 크게 영향 받았다. 이 부정적인 경험들은 ‘재일 정체성’의 강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구술자들은 한국에서 경계인으로서 생활하며, 자신의 소속이 한국인가, 일본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을 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술자들은 태어나고 자란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며 여러 가지 문화 차이를 경험했으며, 이에 대처하는 방식 또한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모국수학생들이 모국수학 과정 중 겪었던 민족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국수학의 동기와 목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구술자들이 모국수학 과정이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고 구술하였다. 이들의 민족정체성의 변화는 한국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재일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일본적 민족정체성의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이 범주들은 모국수학생들이 최종적으로 가지게 된 확고하고 유일한 민족정체성이라기 보다는 모국수학 중 겪었던 단편적인 변화의 단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가지 민족정체성이 모두 강화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국수학 중 한국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를 겪었다고 구술한 구술자는 오직 두 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뿌리 찾기’를 위해 한국행을 택하였고, 한국의 대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모국수학을 마친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강하게 희망한다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거의 모든 구술자들은 모국수학 과정 중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모국수학을 통해

자신이 재일동포라고 인식하게 되거나 인식의 강화를 겪은 구술자들 사이에서도 그 이유는 다양했고, 인식의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일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를 겪은 구술자들의 경험은 (1) ‘나는 재일이다.’, (2) ‘한국인은 아니다’, (3) ‘부정적인 재일에서 긍정적인 재일로’, (4)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나는 재일이다.’ 유형은, 재일동포만이 가진 특질이나 재일동포만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들에 보다 주목하며, 자신을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재일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인은 아니다’ 유형은, 한국 생활을 통해 경험한 본국의 한국인들과 자신의 차이 및 이질성을 강조하며, 이 결과로 인해 재일적 민족정체성이 강화된 구술자들이다. (3) ‘부정적인 재일에서 긍정적인 재일로’ 유형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재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국수학을 통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변화를 경험한 구술자들이다. 마지막으로, (4)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유형은, 모국수학 전에는 자신의 민족정체성이나 자신이 속한 국가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 인지를 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모국수학을 통해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고 경계인이자 월경(越境)인인 재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 구술자들이다. 셋째,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22명의 구술자들 중 모국수학을 하기 전 자신을 ‘일본인’으로 정체화했던 구술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모국수학을 하며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던 일본적인 요소를 발견하였고, 이는 일본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는 구술자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국수학 후

자신을 오직 ‘일본인’ 으로만 정체화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재일적 민족정체성과 함께 일본적 민족정체성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모국수학은 대다수 구술자들에게 자신이 재일임을 ‘확인’ 및 ‘재확인’ 하는 과정으로 작용하였으며, 일부 구술자들에게는 자기 안에 있던 일본적인 요소를 ‘발견’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민족정체성은 다양하게 분화되어가고 있고,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구술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자신감 및 자아정체감의 풍부화와 연결되고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본 연구는 재일동포 모국수학생들의 모국수학 경험과 민족정체성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모집된 22명의 모국수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22명의 재일동포 모국수학생에 대한 결과이며, 전원이 서울에 소재한 교육 기관에서 수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재일동포 모국수학생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50년 이상의 긴 역사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거의 연구된 바가 없었던 재일동포 모국수학생의 민족정체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한일관계와 한국의 위상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2002년 이후 처음 수행된 연구로,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는 충분한 구술 자료를 담고 있다. 재일동포 학자 서경식(2012)은 일본인들에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실현된다면, 일본은 재일조선인뿐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p.13) 라고 말하며, 이는 한국 사회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본 연구가, 한국에서 경계인으로서 생활하며 오해와 편견을 경험하고 있는 재일동포들과 한국인들의 바람직한 공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구라시게, 유키. (2001). 한국에 유학하는 자이니치(在日)학생의 삶과 문화.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권숙인. (2002). 월경(越境)하는 정체성 : 재일 한인, 민족, 그리고 '우리'. 교포정책자료, 103, 14-26.
- \_\_\_\_\_. (2004). 일본사회의 변화와 민족문제의 새로운 전개. 일본연구논총, 19, 181-210.
- \_\_\_\_\_. (2008).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국제지역연구, 17(4), 33-60.
- 권혁태. (2007). '재일조선인' 과 한국사회 - 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 해 왔는가. 역사비평, 78, 234-267.
- 김덕용. (2008). 재일조선인민족교 에 관한 한 고찰 -현황과 과제의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5, 255-269.
- 김영민. (2009). 새로운 문화담론으로서의 초국가주의. 영어영문학연구, 51(1), 87-105.
- 김예림. (2009). 이동하는 국적, 월경하는 주체, 경계적 문화자본 - 한국내 재일조선인 3 세의 정체성 정치와 문화실천. 상허학보, 25, 349-386.
- 김왕식. (2005). 재일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 변화와 그 촉진 요인. 한국언어문화학, 2(1), 33-47.
- 김은희. (2007). 모국에서 수학하는 파라과이 동포 학생들의 문화충격과 갈등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지영. (2009). 조국 문화로서의 한류-재일한국·조선인의 한류 미디어 접촉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41, 197-212.
- 김찬정. (2010). 재일 한국인 백년사 (박성태&서태순 역. 재일동포연구소 Ed.): 제인앤씨.
- 김현선. (2007). 재일 코리안의 축제와 민족 정체성. 일본연구논총, 26(단일호),

457-489.

- \_\_\_\_\_. (2011). 재일의 귀화와 아이덴티티- ‘일본국적 코리안’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통권, 91, 293-323.
- 남근우. (2011). 재일동포사회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민족, 조국 귀속성, 현실의 ‘3중 경계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1(4), 159-188.
- 박명규. (2004). 한인 디아스포라론의 사회학적 함의. In 김. 최협, 정근식, 유명기 (Ed.),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pp. 159-176): 한울아카데미
- \_\_\_\_\_. (2009). 네이션과 민족:개념사로 본 의미의 간격. 동방학지, 147, 27-65.
- 박수경. (2013). 재일코리안의 언어권을 생각하다. 로컬리티의 인문학, 33, 6-7.
- 박용구. (2008). 재일코리안의 문화적 갈등과 분화하는 정체성. 일어일문학연구, 64(2), 331-350.
- 박은경. (1987). 종족성 이론의 분석. 한국 문화인류학, 19, 59-92.
- 박준규. (2003). 텔레비전 드라마 ‘겨울연가’와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한국 문화인류학, 36(1), 219-245.
- 배덕호. (2003). 진단-재일조선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 한국정부는 재일 조선인 면해놓고 자기편이기를 바라는 철면피. 월간말 2003 년도 3 월호 (통권 201 호), 162-165.
- 서경식. (2006). 디아스포라 기행 (김혜신 역.): 돌베개.
- \_\_\_\_\_. (2012).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 한일 젊은 세대를 위한 서경식의 바른 역사 강의 (형진의 역.): 반비.
- 송기찬. (2004). 소수자로서의 재일동포 - 민족교육을 중심으로. In 최협, 김성국, 정근식 & 유명기 (Eds.),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pp. 198-238): 한울.

- 시마, 아쓰코. (1993). 재일한국인 교육의 현황과 조사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재일코리안 사전」 편집위원회,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Ed.) (2012). 선인. 재외동포재단 & 이주·동포정책연구소. (2011). (2011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조사. 재외동포재단.
- 신현준. (2013). 동포와 이주자 사이의 공간, 혹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상이한 성원권. In 신현준 (Ed.), 귀환 혹은 순환 (pp. 18 - 72): 그린비.
- 이문웅. (2004).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 인류학적 접근. 한국사회과학, 제26권 제1·2호, 163-224.
- 이영숙. (2010).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나라사랑, 119, 100-125.
- 이정훈. (1997). 재일동포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창기, & 김재갑. (1988). 재외국민 모국수학생 지도. 학생연구, 23(1), 72-76.
- 이한정. (2012). 재일조선인과 디아스포라 담론. 사이間 SAI, 12, 259-284.
- 이향진. (2011). 한류와 자이니치. 일본학, 32, 161-194.
- 임영언. (2009).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Ethnic Identity) 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일본문화학보, 40(단일호), 427-444.
- \_\_\_\_\_. (2011). 초국가시대 세계디아스포라 민족공동체의 변화 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59, 231-261.
- 임영언, & 김태영. (2008).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 정체성 (Ethnic Identity) 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36(단일호), 393-415.
- 임채완. (2008b). 세계화 시대 “디아스포라 현상” 접근: 초국가 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49, 469-491.
- 오자와 유사쿠. (1999).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이충호 역.): 혜안.
- 윤인진. (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2).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재외한인연구, 28, 7 - 47.
- 윤일성. (2003). 재일한인의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논총, 34(-), 269-307.
- 「역사 교과서 재일 코리안의 역사」작성위원회. (2007). 역사교과서 재일한국인의 역사 (신준수 & 이봉숙 역.): 역사넷.
- 장정아. (2005). 홍콩인: ‘국제 도시의 시민’ 에서 ‘국민’ 으로. In 김광익 (Ed.),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pp. 285 - 340) :아카넷.
- 정병호. (2003). 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 재일 조선학교의 민족 정체성 재생산. 비교문화연구, 9(2), 125-155.
- 정영훈. (2010). 민족정체성,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정체성. 한민족연구, 제9호, 1-29.
- 정진성. (2012). '재일동포' 의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7), 258-287.
- 정태현. (2007). 총련계 재일동포들의 21 세기 자기인식. 역사비평 2007 년 봄호 (통권 78 호), 199-233.
- 조경희. (2011). ‘탈냉전’ 기 재일조선인의 한국이동과 경계 정치. 사회와역사 통권 91, 61-98.
- 조혜영. (2002). 해외동포 모국수학생에 대한 연구- 중국동포 학생들의 모국관 및 민족관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12(1), 65p - 114p.
- 최영호. (2008). 재일교포사회의 형성과 민족 정체성 변화의 역사. 한국사연구(140), 67-97.
- 토시히코, 마즈다. (2003). 해방후 민족교육의 발자취. In 한일민족문제학회 (Ed.),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pp. 143-155): 삼인.
- 황혜경. (2008).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변화. 일본문화학보, 36, 451-467.

- Basu, Paul. (2005). Roots tourism as return movement: semantics and the Scottish diaspora. In M. Harper (Ed.), *Emigrant Homecomings: The Return Movement of Emigrants* (pp. 131-150):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Berry, Rita SY. (1999). Collecting data by in-depth interviewing. Paper presented at the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University of Sussex at Brighton.  
<http://www.leeds.ac.uk/educol/documents/000001172.htm>
- Brubaker, Rogers. (2005). The 'diaspora'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28(1), 1-19.
- Cohen, Erik H. (2003). Tourism and Religion: A Case Study—Visiting Students in Israeli Universiti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42(1), 36-47.
- Cohen, Robin. (2008).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 French, Sabine Elizabeth, Seidman, Edward, Allen, LaRue, & Aber, J Lawrence. (2006). The Development of Ethnic Identity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2(1), 1-10.
- Huang, Wei-Jue, Haller, William J, & Ramshaw, Gregory P. (2011). The Journey "Home": An Exploratory Analysis of Second-generation Immigrants' Homeland Travel. Paper presented at the The 16<sup>th</sup> Annual Graduate Student Research Conference in Hospitality and Tourism, Houston, TX.
- Ishkanian, Armine. (2004). Home-Coming and Goings. *Diaspora*, 13(1), 111-121.
- King, Russell, & Christou, Anastasia. (2008a). Cultural Geographies of CounterDiasporic Migration: The Second Generation Returns 'home' .

- University of Sussex, Brighton, Sussex Migration Working Paper, 45.
- \_\_\_\_\_. (2008b) Cultural Geographies of Diaspora, 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Perspectives from the Study of Second Generation 'Returnees' . Diasporas, Migration, Identities Programme Working Paper, No 6.
- \_\_\_\_\_. (2009). Cultural Geographies of Counter-Diasporic Migration: Perspectives from the Study of Second-Generation 'Returnees' to Greece. *Population, Space and Place*, 16(2), 103-119.
- \_\_\_\_\_. (2010). Diaspora, 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Insights from the study of second-generation 'returnees'. In R. Bauböck & T. Faist (Eds.),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Of Counter-Diaspora and Reverse Transnationalism: Return Mobilities to and from the Ancestral Homeland. *Mobilities*, 6(4), 451-466.
- Lev Ari, Lilach, & Mittelberg, David. (2008). Between Authenticity and Ethnicity: Heritage Tourism and Re-ethnification Among Diaspora Jewish Youth. *Journal of Heritage Tourism*, 3(2), 79-103.
- Phinney, Jean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99-514.
- Phinney, Jean S, Horenczyk, Gabriel, Liebkind, Karmela, & Vedder, Paul. (2001). Ethnic identity,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93-510.
- Roberts, Robert E, Phinney, Jean S, Masse, Louise C, Chen, Y Richard, Roberts, Catherine R, & Romero, Andrea. (1999). The structure of ethnic

- identity of young adolescents from diverse ethnocultural group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3), 301-322.
- Ryang, Sonia. (2001). Diaspora and Beyond: There is No Home for Koreans in Japa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4(2).
- Safran, William. (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1(1), 83-99.
- Saharso, S. (1989). Ethnic identity and the paradox of equality. *Ethnic minorities: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97-114.
- Spickard, Paul R, & Fong, Rowena. (1995). Pacific Islander Americans and Multiethnicity: A vision of America's Future? *Social Forces*, 73(4), 1365-1383.
- Tajfel, Henri.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suda, Takeyuki. (2003). *Strangers in the Ethnic Homeland: Japanese Brazilian Return Migration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Columbia University Press.
- Weingrod, Alex, & Levi, Andreh. (2006). Paradoxes of Homecoming: The Jews and Their Diasporas. *Anthropological Quarterly*, 79(4), 691-716.
- Wessendorf, Susanne. (2007). 'Roots Migrants' : Transnationalism and 'Return' among second-Generation Italians in Switzerland.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3(7), 1083-1102.
- Yinger, John Milton. (1994). *Ethnicity: Source of strength? Source of conflict?* : Suny Press.



原尻英樹. (1989). 在日朝鮮人の生活世界: 弘文堂.

福岡安則. (1993). 在日韓国・朝鮮人: 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央公論社.

가나다한국어학원 홈페이지 ([www.ganadakorean.com/](http://www.ganadakorean.com/))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niied.go.kr/index.do>)

금강학원 홈페이지 (<http://www.kongogakuen.ed.jp/>)

민단 홈페이지 (<http://www.mindan.org/kr/>)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www.moj.go.jp](http://www.moj.go.jp))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홈페이지 (<http://www.yskli.com/proc/p2.asp>)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재일코리안 청년연합 KEY 홈페이지 (<http://www.key-j.org/study/index.html>)

재일코리안 KEY워드 홈페이지 (<http://www.key-j.org/keyword/index.html>)

총련 홈페이지 (<http://www.chongryon.com/index-kk.htm>)

코리아 NGO 센터 홈페이지 ([http://korea-ngo.org/ngo\\_01/minzoku/index.htm](http://korea-ngo.org/ngo_01/minzoku/index.htm))

코리아국제학원 홈페이지 (<http://www.kis-korea.org/>)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 (<http://hansaram.kr/>)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2012) 재외동포 모국수학 장·단기 교육과정  
운영 성과 보고서

\_\_\_\_\_. (2013).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 모집안내 팸플렛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내부자료

오사카 한국교육원 내부 자료

민단 중앙본부 문교국 내부 자료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Studying Abroad in Homeland  
on the Ethnic Identity of *Zainichi* Koreans**

Yoon, Dyne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Zainichi* Koreans refer to the Koreans and their descendants who live in Japan as a result of Japanese colonization. In this dissertation, 'studying abroad in homeland' implies *Zainichi* Koreans visiting Korea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various studies in Korean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language institutes,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With the purpose of executive training,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made a request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 the formation of the studying abroad in homeland policy. The policy was enforced by presidential decree in 1962, and with minor alterations to its content, the policy has been maintained for the last 50 years. Today's studying abroad in homeland organizes an important axis for *Zainichi* Koreans' ethnic education, where its form is becoming more diverse and larger in scale. However, despite the long history and significant implications it carries, hardly any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in this field.

This dissertation aims to delve into the effect that studying abroad in homeland has on the ethnic identities of *Zainichi* Koreans. For this, 22 third and fourth generation *Zainichi* Koreans who came to Korea at least 6 months ago to study were selected through snowball sampling,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five factors were the main motives behind the participants' decisions for taking part in studying abroad in homeland: searching for one's roots, studying abroad, acquiring experience, leaving Japan and following the Korean wave. Searching for one's roots manifests the desire for one to improve his or her ethnic knowledge, especially about the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as well as the exploration for one's origin and ethnic identity through life in Korea. In terms of the Korean language, they have a tendenc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fact that it is their ethnic language rather than to its practical use, and it is found that they tend to place deeper implications on learning the Korean culture that is closely connected to their own roots through studying abroad in homeland. Secondly, it was found that some participants had taken part in studying abroad in homeland because they had viewed South Korea as the most ideal place to study abroad. These people placed more emphasis on the fact that living expenses were cheaper in South Korea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or Europe, rather than the fact that South Korea was their homeland. Thirdly, other participants took part in studying abroad in homeland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gain international experience to hold a dominant position in the employment market, or to establish a foothold for a career move into a new field. These people had the tendency to place more significance on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the effective and practical value that the Korean language has in Japan, rather than the fact that it is their ethnic language. Fourthly, the desire to leave Japan had a large impact on some of the participants' decisions to take part in studying abroad in homeland. And lastly, some participants were found to have taken part in studying abroad in homelan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This is a very recent phenomenon that has formed in the last 10 years.

After exploring the various motives for *Zainichi* Koreans to study in Korea,

the author had the privilege to listen to an array of experiences they actually had while learning in their homeland. Firstly, some participants considered the patterns of behavior found among the Koreans as their frame of reference to try to be 'more Korean'. Secondly,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socialized with Koreans who were born and raised in Korea and as a result, experienced minor and major changes to their ethnic identities. Their experiences interacting with the aforementioned 'original' Koreans could be summarized into three major points. To begin with, almost all of the participants who were interviewed explained that Koreans tend to be ignorant of or have a prejudice towards *Zainichi* Koreans. They commonly expressed negative feelings about this, and used words such as 'disappointment', 'shock', 'anger' and 'irritation' to convey their emotions. Moreover,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said most of the Koreans they met had directly or indirectly expressed understanding that *Zainichi* Koreans are not Koreans. This attitude hurt the participants, whose impressions and reactions were diverse. Lastly, many participants shared experiences of meeting Koreans with friendly attitudes towards themselves during the studying abroad in homeland. Upon analyzing the experiences, it was found that the negative experiences that the *Zainichi* Koreans received from Koreans had larger effects on them than the positive experiences. These negative experiences l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ir '*Zainichi* Korean identities'. Thirdly,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nts lived as 'marginal men' in South Korea, and faced having to choose between being Korean or Japanese. Fourthly, the participants who were born and raised in Japan faced numerous cultural differences in life in South Korea, and also had assorted ways of coping with the dissimilarities.

Finally the research also investigated the changes to the ethnic identities of the participants that occurred during studying abroad in homeland. In spite of the diversity in motives and purposes of the participants, almost all of them stated that

studying abroad in homeland had minor and major impacts on their ethnic identities. The changes to their ethnic identitie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main facets: strengthening of Korean ethnic identity, strengthening of *Zainichi* Korean ethnic identity, and strengthening of Japanese ethnic identity. These categories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last and firm ethnic identity that the participants adopt, but rather be the fragmentary phase of change that they undergo during studying abroad in homeland. There were also cases of two ethnic identities being strengthened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can be compiled as follows. Firstly, only two participants studying abroad in homeland responded that they experienced a strengthening of their Korean ethnic identity. They both came to South Korea in search of their roots, both studied in Korean universities, and both had a strong desire to live in Korea after studying abroad in homeland ends. Secondly, almost all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strengthening or gaining of *Zainichi* Korean ethnic identities for the first time during studying abroad in homeland. However, a large diversity existed among them, with small differences in terms of contents of awareness.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strengthening of *Zainichi* Korean ethnic identities could be sorted into (1) 'I am a *Zainichi* Korean', (2) 'I am not Korean', (3) 'From negative *Zainichi* Korean to positive *Zainichi* Korean', (4) 'It does not need to be determined'. (1) The 'I am a *Zainichi* Korean' group focused on the aspects that only *Zainichi* Korean carried and sympathized with. These people acknowledged themselves as '*Zainichi* Korean', not Korean nor Japanese. (2) The 'I am not Korean' group emphasized the dissimilarities that they noticed between themselves and Koreans through life in Korea, and have strengthened *Zainichi* Korean ethnic identities as a result. (3) The 'from negative *Zainichi* Korean to positive *Zainichi* Korean' category possessed *Zainichi* Korean ethnic identities from when they had been in Japan, but now looks at their ethnic identities in a more

positive way as a result of studying abroad in homeland. Lastly, (4) the ‘it does not need to be determined’ group believed that they n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y were Korean or Japanese before studying abroad in homeland, but have realized that it is not obligatory, and have accepted themselves as ‘marginal men’ and ‘transborder people’, as *Zainichi* Korean. Thirdly, from the 22 people that were interviewed, no participant identified himself or herself as being ‘Japanese’. Some participants found Japanese elements inside them for the first time while studying abroad in homeland and this was found to lead to strengthening of Japanese ethnic identities. Moreover, there was a participant who responded that his perspective of Japan had changed. However, the participants did not simply identify themselves as being ‘Japanese’ after studying abroad in homeland, but viewed themselves as possessing aspects of both *Zainichi* Korean ethnic identity and Japanese ethnic identity.

In other words, studying abroad in homeland had the effect of ‘confirming’ and ‘reconfirming’ most of the participants’ *Zainichi* Korean identities, while giving the others the opportunity to ‘discover’ the Japanese elements inside them. Furthermore, their ethnic identities are being differentiated diversely, underscoring their complex and multi-layered natures. Participants were generally positive about such phenomenon and this clearly discloses the enrichment of self-identity and confidence.

**Key words:** *Zainichi* Koreans, studying abroad in homeland, ethnic identity, ethnic education, diaspora

< 日文抄録 >

母国修学が在日コリアン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に  
与える影響に関する研究

ユン ダイン  
ソウル大学 大学院 社会学科

本論文における「母国修学」とは、在日コリアンが語学堂・大学・大学院といった韓国の教育機関に、韓国語をはじめとした様々な学問を修めに来ることを意味する。母国修学制度は、民団が幹部養成を目的に大韓民国政府に要請し 1962 年に大統領令によって施行されたことから始まり、内容上若干の変化を経ながら 50 年以上維持されてきた。今日の母国修学は、在日コリアンの民族教育におけるひとつの重要な軸となっており、その形態は徐々に多様化するとともに、規模も拡大する動きにある。このように、母国修学制度は長い歴史と重要な意味をもつにも関わらず、これに関する研究はこれまでほとんど行われてこなかった。

本論文は、母国修学が、在日コリアン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に及ぼす影響を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このため、少なくとも 6 カ月前に母国修学のために来韓した在日コリアン 3、4 世 22 名を、スノーボールサンプリングを通して募集し、彼らを対象に半構造化された深層インタビューを実施した。本論文の研究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

まず、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が母国修学を決めた背景には、ルーツ探し・留学・経験の蓄積・脱日本・韓流の影響といった 5 つの動機が主に作用

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ルーツ探しとは、韓国や韓国文化、および歴史に関する知識といった民族的な素養を育て、韓国生活を通して自身の起源や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をより深く探索することを意味する。彼らは韓国語の実質的な効用よりも、韓国語が自身の民族言語であるといった側面に注目し、母国修学を通して自身のルーツと関わりがある韓国の文化を学べるといった点に、より意味を見出す傾向が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二つめに、一部の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は「留学先」として韓国を選び、母国修学をするに至ったことが確認できた。彼らは、韓国が自身の母国であるといった事実よりも、米国や欧州に比べ生活費が安く、より気軽に留学できるといった点に注目している。三つめに、また別の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が、母国修学を通し韓国語を身につけ、国際的な経験を積み、将来就職市場で優位にたつため、あるいは他の分野に転職するための足掛かりにするために母国修学を選択したことが確認できた。彼らは、韓国語が自身の民族言語であるといった側面よりは、日本社会で韓国語がもつ効用価値、および「国際経験」としての母国修学により注目する傾向をみせた。四つめは、一部インタビュー対象者にとって、日本を離れたいという「脱日本」に関する欲求が、母国修学を選択する際の主な契機として作用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最後に、一部の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は、韓流の影響によって母国修学を決め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れはここ 10 年の間に表れた新たな現象である。

次に、母国修学生たちが韓国生活の中で経験したことについて考察した。一つめに、一部インタビュー対象者の場合、初期の韓国生活において、本国の韓国人に見られる行動様式を自身の準拠と見なし、「韓国人になるための試み」を行っ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た。二つめは、大多数のインタビュー対



象者たちが、母国修学中に本国の韓国人たちと交流し、その経験と内容によって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に大小の変化があったことがわかった。まず、インタビューを行ったほぼ全ての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は、多くの韓国人が在日コリアンに関して無知である、もしくは偏見をもっているようだと述べた。これに対する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の反応はたいてい否定的であり、「失望」・「衝撃」・「怒り」・「苛立ち」といった言葉で表現された。次に、多数の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が、今まで出会った多くの本国の韓国人が、在日コリアンは韓国人ではないといった認識を直接・間接的に表現したと述べた。こういった態度に多くの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は傷ついたが、それに対する対処法および印象は非常に多様なものであった。最後に、多くのインタビュー対象者が母国修学を行い、在日コリアンに対し友好的な態度を見せた韓国人に出会った経験が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ういった経験を全体的に分析した結果、在日コリアンに友好的な韓国人との出会いを通じた肯定的な経験より、否定的な経験によってより大きな影響をうけていた。そしてこの否定的な経験が、「在日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化につながることを確認された。三つめは、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は韓国で境界人として生活し、自身の所属が韓国人なのか日本人なのかを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多様な状況に当面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四つめは、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が生まれ育った日本を離れ、韓国で生活しながら様々な文化の違いを経験し、これに対処する方法もまた多様であったことが確認できた。

最後に、母国修学生たちが母国修学の過程に経験した、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化について考察した。母国修学の動機と目的の多様性にもかかわらず、ほぼ全てのインタビュー対象者が、母国修学の過程が自身のエ

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に大小の影響を与えたと述べている。これら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化は、韓国的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化、在日的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化、日本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化といった、三つにカテゴリー化することができた。このカテゴリーは、母国修学生たちが最終的にもつことになる、確固たる唯一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うよりは、母国修学中に経験した断片的な変化の段階を表しており、同時に二つ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が強化される場合もあった。調査結果を整理すると以下の通りである。一つめ、母国修学中に韓国的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化を経験したと述べたインタビュー対象者は、わずか二名にすぎなかった。彼らは「ルーツ探し」のために韓国行きを選択し、韓国の大学で修学し、また母国修学を終えた後も、引き続き韓国に住むことを強く希望するという共通点がみられた。二つめ、ほぼ全ての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が、母国修学の過程の中で初めて、在日として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つようになった、もしくはすでに持っていた在日として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が強化されるといった経験をしたことが確認できた。しかし、このように母国修学を通して自身が在日コリアンであると認識した、もしくは認識の強化を経験した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の間でも、その理由は多様であり、認識の内容においても若干の違いがあることが発見できた。在日的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化を経験したインタビュー対象者の経験とは、(1)「私は在日だ」、(2)「韓国人ではない」、(3)「否定的な在日から、肯定的な在日に」、(4)「決めなくても構わない」に分類することができた。(1)「私は在日だ」型は、在日コリアンのみがもつ特質や、在日コリアンのみが共感できる側面により注目し、自身を韓国人

でも日本人でもない「在日だ」と認識していた。(2)「韓国人ではない」型は、韓国生活を通し経験した、本国の韓国人と自身との違いおよび異質性を強調し、この結果によって在日的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が強化された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である。(3)「否定的な在日から、肯定的な在日に」型は、日本にいた時から在日として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をもっていたが、母国修学を通して、自身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をより肯定的に捉えるようになるといった変化を経験した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である。最後に、4)「決めなくても構わない」型は、母国修学以前には、自身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や、自身が所属する国を韓国と日本の中から選択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考えていたが、母国修学を通して「決めなくても構わない」ことを悟り、境界人であり越境人である在日としての自分を受け入れた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である。

三つめとして、インタビューに答えてくれた 22 名のインタビュー対象者のうち、母国修学をする以前の自分を、「日本人」として位置付けていたインタビュー対象者は一人もいなかったことが確認できた。しかし彼らのうちの一部は、母国修学を通して初めて自分の中にある日本的な要素を発見し、これが日本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化につなが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日本を捉える見方に変化が生じたとするインタビュー対象者もいた。しかし彼らは母国修学の後、自身を単純に「日本人」として位置けるといったことは決してなく、在日的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とともに日本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をもつに至ったことがわかった。

言い換えれば、母国修学は大多数の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に自身が在日であることを「確認」、および「再確認」する過程として作用しており、一部の

インタビュー対象者たちにとっては、自分の中にあった日本的な要素を「発見」する契機とな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彼ら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は多様に分化し、複合的でかつ重層的な性格を帯びていること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な現象についてたいていのインタビュー対象者らは肯定的に考えており、これは自信及び自己アイデンティティを豊かにすることに繋がっていた。

キーワード： 在日コリアン、母国修学、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民族教育、ディアスポラ